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26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 개인주의를 확산시키고 가족애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해곡시킬 것이란 일부 우려와는 달리 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기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동호회 사이트가 사이버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크게는 인터넷상의 '한민족 공동체'를 비롯 아파트단지 사이버 공동체, 사회봉사 동호회, 국악동아리, 대안교육모임, 대머리동우회, 취미·동창회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주제로 사이버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집단화 되면서 현실사회에서도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21세기 혁명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성에 의탁한 언어폭력과 사이버 테러 등 부정적인 면을 극복한다면 민족과 인종, 종교를 넘어선 지구촌 공동체 의식의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많은 동호회 사이트
사이버 공동체 형성

흔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은 '3C'로 요약된다. 특히 이중 공동체(Community)는 내용물(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를 위한 기본토대가 된다.

불교계도 늦은감은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가상공동체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불교문화, 문화재, 수행법, 사찰답사, 불교미술, 불교경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이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신행 및 사이버포교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신행을 넘어선 문화사업과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불교등호회 차원에서 한단계 나아가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회원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3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경내지 편의시설 건축 불허
국토이용법 개정 시급"

전사법 시행령선 허용…지자체 자의적 해석 '불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와 신도교육 등 불교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의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종교용지에 한정하고 있어 전사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불교용품 판매소, 전통다원, 각종 편의시설의 운영을 막고 있다.

전통사찰을 포함해 대다수의 사찰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있고, 경내지 가운데 종교용지로 분류된 곳은 대웅전 등 주요 전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야로 분류돼 있다. 또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국토이용관리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해줄 리 없다. 따라서 지목 변경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사찰은 경내지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결론이다. 조계종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받는 사찰은 1천5백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부 사찰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지켜야 하느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포교와 신도교육 등 불교 고유의 활동을 계속하고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냐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의 한 스님은 "신도와 탐방객의 증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사찰이 많다"며 "사찰소유 경내지의 대부분이 임야인 현실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반영하지 않아 불법건축을 유도하는 결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이 현실을 무시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불교활동을 제약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반불교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용문사는 최근 일주문 부근에 불교용품점과 유물전시관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양평군의 건축불허로 신축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경북달성의 유가사도 같은 경우이다.

국토이용관리법과는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6조와 이 법 시행령 9조에서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에서 불교용품 판매소, 전통다원, 신도의 교화·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 2면으로 계속

"종교세 추진 사실무근"
국세청, 언론보도 해명

국세청은 16일 일부 언론의 '종교세 추진중?'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내용 중 현재 서구에서 실시중인 종교세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의 사전 확보 성격을 띠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공익단체·종교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종교단체 등에 영수증의 제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출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영리단체의 과세자료제출은 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정성운 기자



남녘의 동백꽃 춘설이 날리고 꽃샘바람 불지만 동백꽃은 붉디 붉은 열정을 내품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옷자락을 풀고, 새싹이 돋기 시작한 숲속으로 가면 삶의 희망을 만날 수 있을 듯 하다. 진도 쌍계사=고영배 기자

조계종 예산안 정보공개 '논란'

재가연대-기획실

재가연대의 조계종 예·결산에 대한 의견 발표와 관련, 종무행정 정보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의 지난 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자, 조계종 기획실(실장 지원)이 11일 재가연대의 의견 발표에 대해 "그 취지가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무행정 정보공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기획실은 재가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심의안이 심의중에 유출돼 언론을 통해 남남이 공개되고 심의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니, 추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은 기획실에서 입안, 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은 물론 중앙종회 사무처도 예산안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예산 증감을 요구하는 로비 때문이다. 그런데 심의자료가 재가단체의 손에 들어갔고, 여기에다 지난 해 종단사태에 따른 호법비가 포교원의 결산액 12억4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24억여원을 지출한 것을 자세히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재가연대는 15일 기획실의 유감 표명에 대해 "열린 종무행정을 통해 대중참여의 길을 넓혀야 하며, 예산안을 종회에서 심의, 확정하기 전에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재가연대는 이어 "심의과정에서 재가연대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 종단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참여했다"며 예산안 검토의견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실장 지원스님은 16일 "종단행정에 관련된 정보공개는 점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우선 종단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때 재가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종무행정 정보공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조계종 종회 '만장일치'
종단화합 기여할 듯

통도사가 총림 해제 6개월여만에 영축총림으로 재지정됐다.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4일 재적의원 77명 가운데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6회 임시종회를 개회, 첫날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불기 2544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통과, 조계종-대각회 합의문 인준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2·3면>

영축총림 재지정과 관련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안건 상정 제안설명을 통해 "월하스님이 집행부의 뜻에 따르고, 분규에 개입하지 않으며, 원하스님 명의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종단의 화합을 위해 영축총림을 재지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들은 찬반토론을 거친 후 만장일치로 통도사의 총림 재지정을 결의했다.

통도사는 그동안 정화개혁회의의 중심사찰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에 총림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종단의 화합분위기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축총림은 지난 해 7월 열린 종회에서 "통도사가 총림이기 때문에 종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림에서 해제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한·중 불교문화전 교환 개최

종단협-중국불교협 '합의'

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는 15일 북경 곰제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두 나라 불교문화전을 교환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등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스님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국불교협회는 사진전을 포함 양국의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종단협의회 대표단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자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 총무부장 회정 대정사는 중국불교협회의 중국유학승의 한국파견시 협조를 당부한데 대해 위덕대학에서 장학금과 매월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진각종 대표단 5월경 2차 방북

조불련, 천태종에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요청

종단협의회와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대표단은 12~15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각종 대표단은 14일 조불련 대표단과 접촉을 갖는 자리에서 진각종 대표단 6명의 공식방북을 요청하는 조불련 박태화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과 일정 교육원장 등 대표단이 5월말 또는 6월초 북한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종단협의회 대표단으로 참가한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조불련측에 남북한 불교계 공동토론회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이와 관련 법현스님은 "조불련이 트론회의 주제를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로 하자고 했으며, 시기는 추후 준비를 진행하며 연락하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조불련은 또 천태종 대표단에 천태종 창종주인 의천스님의 출가사찰인 개성 영통사 복원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불협과 조불련은 11일 북경에서 만나 부처님 오신날 남북등시법회와 공동발원문 채택에 합의했다. 조계종은 조불련과의 회동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ARS, Web Site를 통해 생생한 현물정보만을 찾아주는 곳!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코데콤으로 오십시오! 코데콤을 만나는 순간 희망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초 급급매물 부동산 전시장
ARS : 700-3894 / www.speed-land.co.kr

결혼 배우자 정보 센타
ARS : 700-2154 / www. kowedding.com

특허, 기술 정보 경매장
ARS : 700-8446 / www.tech1472.co.kr

3월 28일 GRAND OPEN

KODAcom과 함께할 불자가족을 찾습니다

♣ 지역 Consortium 관리지사장 모집

※ 지역 Consortium 이란 ?
제반 설비 및 프로그램, 광고, 기획 등 일체의 경영 제안을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수행하며, 매월 일정금의 매출 지분금을 본사에 입금하여 기업운영에 대한 광고 및 개발 재원을 전국 Consortium간 공동 추렴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독자적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온라인 경영 기법임.
본업은 재투자 및 생산비를 요하지 않는 고수익 첨단사업으로 관리능력만 있으면 은퇴자 및 부녀자의 첨단 고수익 부업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 모집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전국 8개소)
■ 모집자격 : 금융거래에 하자없는 지역 유지로 순 자기자본 2,000만 이상 가능자.
■ 월 순 익 : 운영 3개월 이후, 광역시 이상 지역은 최하月 1,500만원 이상 보장함.
※ Minimum Recall제 운영 : 국내 최초로 지사 운영에 대한 최소 수익성 상호 보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수익성이 미흡할 경우 지사운영을 본사에서 적정가로 책임 Reacall하여 인수하며, 또한 지사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소기의 수익 창출에 부적합 할 경우 본사에서 임의 해약을 요구하는 쌍방 권리보증 제도입니다

♣ 함께 일할 가족!
우리 회사는 ARS 및 Web Site를 통한 정보유통과 Program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제 막 출발한 불자 도반이 설립한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조직과 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장래성과 기업성은 후히 점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심 깊은 불자가족을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도반님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찾는 사람 : 1. Web 관계 Programer, Designer, Projecter (초보 or 경력자)·····0명
2. Ip Programer 및 Operater, (초보 or 경력자) ·····0명
3. 기획, 총무, 관리, 비서, (년령 성별 불문) ·····0명
4. T/M, 주부 영업사원, (38세 미만 주부로 PC 초보자)·····00명
▶ 각항 공히 불자가족으로 3.4항은 PC운영에 초보자도 가능함.
▶ Copy Writer 및 Project 기획에 자질 있는 분 특채함.

문의전화 : 02)364-6181
KODAcom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3

불교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재가연대등 20개단체 동참… '불교NGO 지원법' 청원키로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좋은벗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20개 단체는 14일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불교시민단체 네트워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불교 NGO 영역의 확대를 위한 공동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월 1회 정례회의, 인터넷상(불교정보센터內)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재가연대 산하 참여불교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모임은 불교 NGO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불교 안팎의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하는 역할을 맡아 NGO관련 정보 유통, 국제참여불교 창구,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업 개발 등의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올 조계종 결산종회에 시민사회단체지원법과 (가칭)사찰종무원법 등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재가연대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불교단체들의 동의를 얻은 후 종회 사회분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안들은 열악한 불교NGO의 활성화와 불교단체 종사자 및 사찰 종무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게 된다.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그동안 불교 NGO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해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불교NGO를 하나로 묶고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단체실무자들은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2000 민간단체 포럼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13개 위원회로 구성될 민간단체 포럼은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현재 불교인권위원회(인권), 좋은벗들(인권·평화), JTS(빈곤과 개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평화), 불교환경교육원(환경) 등 불교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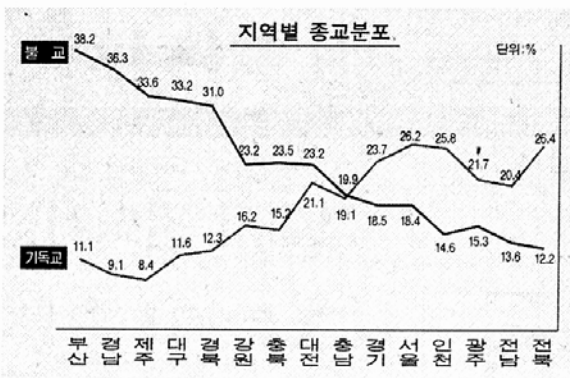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는 21일 오후5시 기독교연합회관 609호에서 2차회의를 열고 공동의제, 회의장소(봉은사) 등을 논의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화사 승가대학 현판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3월13일 심검당에서 동화사 승가대학 현판식을 거행한데 이어 15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동승가대학에는 올해 치문반 10명 사집반 5명등 모두15명의 학인이 등록했다.

동화사강주 해월스님은 "현장학습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에 맞는 실천수행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東-불교 西-개신교 '강세'

한신대 유성민 교수 분석

국민 50.7% "종교있다"

불교-개신교-가톨릭 順

"동쪽은 불교, 서쪽은 기독교가 우세하다"

한반도 동쪽은 불교 신자의 비율이 높고 호남과 서울 등 서쪽은 기독교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유성민(한신대 종교문화학)교수가 14일 발표한 '한국 종교문화의 현황과 특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국민의 50.7%를 차지하는 2,259만 7824명. 이중에서 불교신자가 전 인구의 23.2%로 가장 많으며, 개신교가 19.7%를 차지한다.

지역적으로 불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8.2%)이고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26.4%)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의 경우는 강북은 불교신자가, 강남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구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개신교 신자 비율이 30%대를 유지한 반면, 성동 동대문 중구 등 강북은 21%대로 나온데 반해 불교는 강북 주민들의 신자 비율(21%)이 강남(16%)보다 높았다.

유 교수는 "종교인구의 편차가 한국종교의 특징이며, 이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한국종교문화에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이 종교간 갈등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는 있지만, 종교와 사회를 유리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 1166명

장기기증-화장유언 '서약'

포교사단 12일 출범

포교사 1166명이 교계 처음으로 장기기증및 화장유언을 단체 서약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2일 조계사에서 출범과 함께 포교사 스스로가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하는 표현한 장기기증및 화장유언 생명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출범식에 참가한 포교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장기기증에는 사후 각막기증에 212명, 뇌사시 장기기증 228명, 사후시신기증 135명, 신장기증 16명, 골수기증 17명등 608명이 참여했다. 또 화장유언에도 558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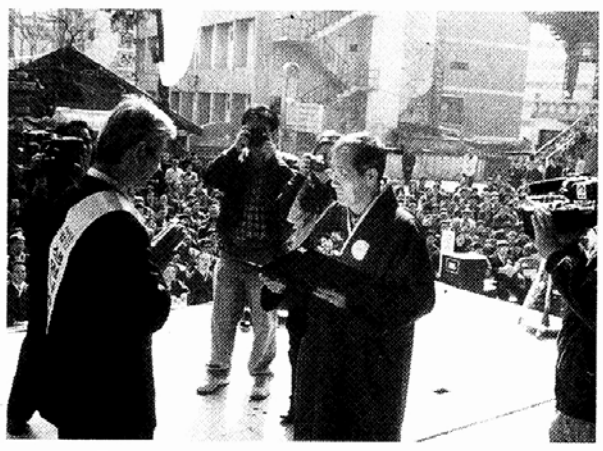
포교사단은 집계된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서약서' 내역을 참가 대중들에게 발표하고 곧바로 생명나눔실천회(회장 법장스님)에 전달했다.

김기병단장은 "어느종교보다 위대한 가르침을 받들고도 사회적 실천이 부족했던 점을 돌이켜 '나누는 삶'의 모범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생명나눔운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포교사들이 각 지역과 사찰에서 장기기증 및 화장 유언서약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교사단은 포교비전 2000, 포교사전도 선언문을 발표하고 포교를 통한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가현하고, 힘과 능력을 갖춘 포교사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 포교사단 총재 정련스님(포교원장)은 출범식에 앞서 제5회 포교사고시에 합격하고 2회 연수를 마친 신규포교사 320명에게 포교사증을 품수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은 12일 출범식에서 포교사 1166명의 장기기증및 화장유언 서약서를 생명나눔 실천회에 전달했다.

조계종 예산 282억 '통과'

종회, '조계종-대각회 합의문'도 인준

14일 개회한 146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회기 첫날 영축총림 재지정, 불기 254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일반회계 일반회계157억6천91만3천원, 특별회계 125억4천8백50만원) 통과 등 11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15, 16일은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로 휴회하고 17일 속개해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특위 보고를 듣고 김포학사 부실 시공을 따지기 위해 중앙승가대 전 이사장인 월주, 고산스님의 출석을 요청을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17일까지의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축총림 재지정 △조계종-대각회 합의문 인준 △동국학원 법인 정관 개정 촉구 결의:등국학원 정관 24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단서조항 삽입,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청계사 주지 지명스님, 재원스님(경산포교당 주지, 비구니)을 선출 △초심호계위원 도견스님(도피안사 주지) 선출 △종헌·종법 제·개정특위 구성. 위원은 학담 성관 법안 정휴 현응 광조 장주 대원 법성(이상 종회의원), 총무부장 원택, 기획실장 지원 △환경(사찰, 자연, 문화환경) 문제 대책위를 집행부에서 구성토록 촉구 결의 △삼화사 주위의 석회석 채취 발파 중단 촉구 결의, △불기 254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정성운 기자

성동경찰서 경불법당 개원

성동경찰서 경승실(실장 상덕스님)이 부처님을 봉안하고 경불법당으로 거듭나 성동경찰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승실장 상덕스님은 14일 성동경찰서 5층 경승실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회의실에서 경불법당 봉축법회를 거행했다. 부처님 점안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경불법당 현판식, 봉축법회, 기념축하공연, 다과회로 진행됐다. 봉축법회에서 상덕스님은 권영섭 성동경찰서장에게 경승단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 안장사 주지 벽파스님, 미타사 주지 상덕스님(경승실장), 청룡사 주지 일홍스님, 홍도사 주지 영주스님, 성동경승 종일스님, 권영섭 성동경찰서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93년 5월 개원한 성동경찰서 경승실은 그동안 법당만 마련한채 불상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권영섭 서장의 지시로 불상을 봉안하게 됐다.

한편 성동경찰서 불자들의 모임인 경불회(회장 정승태)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경불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강지연 기자

수덕사 주지에 법장스님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는 15일 임회의원 23명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장스님(현 주지)을 주지로 재추대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법장스님은 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80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2년 총무원 사회부장, 84년 총무원 재무부장, 92년 수덕사 주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경 기자

행자교육원 311명 입방

조계종 18기 행자교육원이 12일 해인사에서 개원했다.

이번 18기 행자교육에는 총지원자 350명중 39명이 서류심사와 신체검사에서 탈락, 남행자 187명 여행자 124명 등 총 311명이 입방했다.

4월 3일까지 23일 동안 열리는 제18기 행자교육원은 사미·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위의문, 조계종사 등 10개 과목이 개설되며 교수사는 도법, 혜능, 정락, 무관, 무비스님 등이다.

한편 행자교육 지원자 350명의 학력과 연령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졸학력의 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 183명, 대졸 131명으로 대졸출신이 점차 늘어나는 고학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자 연령분포의 경우 30대 166명, 20대 119명으로 20~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원우 기자

☞ 1면 '국토이용법'서 계속

폐지의 행위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사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집행으로 부조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전사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사이에 상충이 있을 경우 전통사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인 전사법을 적용해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전사법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연계시켜 두 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의 김영주계장은 "전통사찰 경내지에 무분별하게 종교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사찰의 고유한 활동까지 막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정보화시대…불교도

2000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야간2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60명		
유아교육 (유아포교)과	2년	■통신50명 ■주간2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주간30명 ■통신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40명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어과 1학년때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9월학기)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3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TEL.02)511-2026~8 FAX.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m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2학년 6학기 졸업가능,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3월 28일까지
■ 문의처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보증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의 예 과	5년	
· 중국포교 하실 분 본과 우선 입학 가능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군대연기 가능 ※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목어

제주도 물과 하와이 물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제주도의 지하수에 바닷물이 역류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보도였다. 물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충격이다. 수년 전에 지하수를 전공하는 한 학자로부터 제주도의 물은 지금과 같은 개발 논리로 간다면 언젠가는 식수 자체를 수입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와 하와이의 지하수가 비교된다. 섬의 크기는 다르지만 두 섬 모두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제주도에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시추공이 6000여 개나 되는 반면 하와이는 150여개에 불과하다. 주민과 관광객의 인구를 비교하면 하와이가 제주도의 10배 가까이 많은데, 시추공은 오히려 제주도가 하와이의 40배나 된다.

시추공의 수도 문제이지만 수질도 문제다. 하와이의 개발 역사는 70년이 넘지만 생수 그대로를 무소독 무처리 상태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물은 개발 30년도 채 안되어 소독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두 섬 모두 같은 조건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왜 한쪽은 무소독 무처리 수돗물을 만드는가 하면 제주도는 아직도 소독과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수돗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었는가를 심각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개발정책과 수질 보존에 대한 확신과 노력의 차이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헤쳐지는 시추공이 제주도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반면 하와이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리가 소홀해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시추공은 학자의 말을 빌리면 300만개에 이른다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갖자. 물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수(公水) 개념을 철저히 가지고 모두가 주인이 되어 관리해야 한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천연상태에서도 수돗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가 만들어지기까지 제주도는 2~10년, 내륙지방은 20~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학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관리, 부재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물이 오염되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법 지키자니 화장실도 못 짓는다

국토이용관리법 왜 문제인가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 '임야'
건축행위 종교용지에만 허용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이 법 시행령 17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는 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로 한정하고 있다. 종교용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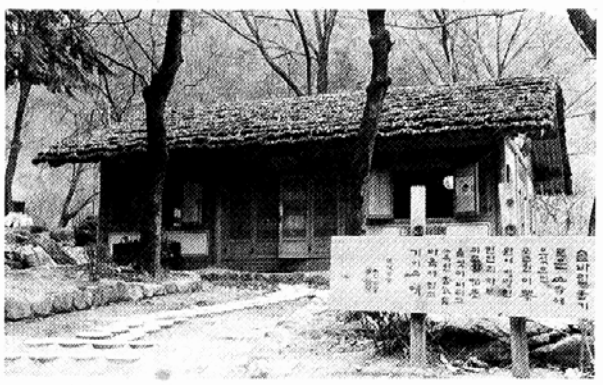
850여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구에 속해 있으며, 전통사찰 경내지의 대부분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지키면 경내지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다. 특히 사찰이 신도의 교육이나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불교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 농어가 주택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의 주택과 편의시설은 지목에 관계없이 신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만은 종교용지로 제한하느냐는 것이 조계종의 불만이다.

전전통사찰보존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의 상호 모순도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전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허가관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음으로 부조리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국토이용관리법 15조에 전사법을 연계법령으로 삽입해야 하며, 이 법 시행령 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에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찰 내에 포교와 신도교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까지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불교 고유의 활동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진은 탐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찰 내의 전통다원.

◇전통사찰보존법-국토이용관리법 상충 부분

전통사찰보존법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지 전사법 시행령 제9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보호)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시찰의 관광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석조품등의 판매 2.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염주·촛대 및 초와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주지가 신도의 교화·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제1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자연환경보전지역 가.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항 2의 2.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된 학교부지에서의 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설치

영축총림 재지정 의미

"종단화합 물꼬 텄다"

4월 임시종회 소집이 분기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98년 종단사태로 야기된 조계종의 불화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면 실시를 위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시금석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화합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월하스님은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을) 소문으로만 들었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편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화합을 위한 물길이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종헌 개정안이 이번 종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종헌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집행부에서도 월하스님이나 정화개혁회의, 사면대상자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종헌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스님은 16일 사면과 관련, "집행부로서 종단화합을 위한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호흡을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이 지난 9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헌 개정을 위한 종회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하겠으며,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앙종회에서도 종헌개정안을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 심의토록 할 것으로 보여 4월중 임시종회 소집 여부가 종단화합을 위한 사면 실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운 기자

화두, 말보다 마음으로 계합해야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❾최근의 선 논의



변상섭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최근 선 논의와 관련, 불교와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김용옥 선생의 잘못만이 아니고 널리 일반화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폐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선(禪)이나 도(道)에 대한 접근 방법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은 실참수행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논자들은 선이나 도를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결과 그분들은 선이나 도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선을 닦는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을 수행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마음속에서 언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량과 분별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종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심행처멸(心行處滅),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닌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통해 헤아리고 생각하는 사량과 분별이 있다. 이러한 사량과 분별로 인하여 온갖 번뇌와 망상을 일으켜 고통을 받으며, 바른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이러한 번뇌와 망상을 끊어버리면 곧 열반을 증득한다고 설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언어와 문자가 끊어져 버린 경계를 언어와 문자에만 의지하여 풀어내려고 한다. 이것을 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비판해 본다면, 동양의 직관적 사유의 세계 즉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합일하는 정신세계를 서양의 사변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시각 즉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분리되어진 사유의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서양철학에서도 종래의 주객분리의 사유를 부정하고, 주객합일의 직관적 사유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드문트 훗설이나 마르틴 하이데거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직관'과 '존재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철학의 주제와 사조의 변천도 모르면서 철학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학자로서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이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이 분명하여야 한다. 그렇게도 사변적 사유를 끊지 못하고 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교학을 전공하면 될 것이다. 교학에서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 정신세계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기설은 중생의 언어와 문자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사유하여 인식하는 그 경계가 의식속에서 행온(行蘊)의 작용에 의해 희론(戱論)되어 일어나는 허망한 것이라고 설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곧 선정을 수행하여 그러한 허망한 분별과 망상을 끊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성기설은 모든 분별과 사량(思量)이 끊어진 뒤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참답고 청정한 인식의 세계 즉 주관과 대상이 합일하는 인식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도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여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교학에 대해 연구하면 될 것인데, 실천적 수행을 하는 선에 대해서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학문의 목적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셋째, 그들은 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를 해석하고 풀이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화두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벽암록〉의 서문에 삼교노인(三敎老人)이 화두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도를 닦는 도학자들을 평가하는 저울추의 역할과 수행자들이 선을 수행하는데 번뇌와 망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두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을 수행한다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는지 또는 바르게 수행하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평가의 척도로써 화두를 던져주어 그에 대한 답을 들어봄으로써 수행자가 어떤 경계에 이르렀는지 알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목적은 번뇌와 망상을 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정을 닦는다고 묵묵히 고요한 상태에 머물다 보면, 혼침과 산란에 빠지기 쉬워 바른 선정을 닦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식이나 언어적 사유로는 풀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져주어 그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촉발시킨다.

만약 화두를 대하며 의심에 사무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헤아리고 따지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더욱 증장시키는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선사들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즉 말에 떨어져서 헤아리고 분석하지 말고 마음으로 바로 계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자들은 마음으로 계합하자 못하고 말길에 떨어져 이렇게 저렇게 분별과 망상만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화두를 해설한 책을 보고 사람들이 "화두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못 이해해 버리고, 다시 이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처가 될 종자를 송두리째 썩혀버리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선사들께서 화두를 해석하고 헤아려 알아맞히려 하지 말라고 간곡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어코 화두를 해설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 대법회

■ 일 시 ▶ 입재일 : 2000년 4월 9일 (음력 3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2박 3일)
회향일 : 2000년 4월 11일 (음력 3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5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위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무루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 유나 /신본
■ 인례 /지정

동참금 5,0000원

연락처
통도사 : 0523)382-7182, 7187
부 산 : 051)816-2241(부산포교당)
대 구 : 053)474-8228(불교대학 관음사)
창 원 : 0551)255-6359(구룡사)
마 산 : 0551)245-6544(마산포교당)
울 산 : 052)211-3340(해남사)
창 녕 : 0559)533-2295(창녕포교당)
밀 양 : 0527)352-1150(표충사) 354-3296(무봉사)
서 울 : 02)355-9815(보현사) 575-7766(구룡사)
경 기 : 0344)905-7766(일산여래사)
0342)703-7766(분당장안사)
※ 접수처 : 통도사 기와 불사처

교통편(통도사 버스)
· 부산 :동래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9시 출발
· 울산 :태화호텔(8시)-공업로타리(8시20분)-무거로타리(8시40분)

일반교통편
· 부산 :동부시외버스터미널(명륜동) 매20분간격 출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일반천일고속(부산-대구)매15분 간격출발
· 울산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08시50분, 11시20분 출발
· 서울 :동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동서울 - 신평(통도사)] 직통
오전9시, 12시/오후3시, 5시/(심야)11시30분

불기 2544년 3월 일

(우)626-86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 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 허 합장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 49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15일 가진 입제법회에서 혜총스님은 "알게 모르게 쌓이는 몸의 때와 같은 죄업을 목욕하는 것이 참회"라며 "끊임없는 참회로 맑은 마음자리를 발현할때 까지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4박 5일의 참회기도기간 동안 참회기도와 지관스님, 인환스님, 정관스님, 홍선스님, 금당스님, 성우스님, 법회스님, 혜인스님, 철우스님, 각성스님, 혜총스님 등 법사스님의 법문으로 신심을 다졌다.

천미희 기자

"석등·탑 비교연구 계속"

한국교원대 정년퇴임 정영호 박사



'고고미술학'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았던 정영호(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박사.

60년 8월 〈고고미술〉 제1권에 기고한 '원주의 사적 ; 흥법·법천·거둔'에서 99년 11월 〈불교학논총〉에 게재한 '고구려 금니여래입상'까지 저서 33권, 논문 323편 등을 펴내며 국내 불교미술사학의 초석을 다졌던 정박사가 17일 한국교원대를 정년 퇴임했다.

"52년 분황사 석탑,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지역 불교유적을 답사하면서 불교미술에 기울었는데, 53년 황수영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고고미술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박사에게 학문적인 호기심을 자극한 불교미술품은 다름 아닌 석등이었다. 석등이 가지는 조형미와 배어남이나, 극락왕생의 길을 밝혀준다는 석등의 상징적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그를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끔 유도한 것이다.

정박사는 그후 50여 년 동안 답사와 연구를 반복했는데, 조사한 유물·유적 중에서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들이 상당수 있다.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국보 112호), 선산죽장동5층석탑(국보 130호), 진전사지3층석탑(국보 122호), 팔공산이 갓바위불상(보물 431호)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충북 청원군 비중리사지의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절터임을 확인했고, 법주사 팔상전의 초석군과 충북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 햇골산의 고구려시대 마애불·보살군을 등을 새로이 발견·조사해 불교예술품에 담긴 당대의 불교문화를 밝혀냈다.

"나만치 운이 좋아 유적·유물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도 드물 것"이라는 정박사는 "한국교원대와 동국대를 오가며 동양 3국의 석등·탑 비교 연구와 불교 공예 연구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교 관련 유적·유물에 대한 발굴과 조사를 전담할 연구소 개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박사는 현재 지인(知人)과 후학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정년 퇴임식에서 정영호 박사는 50여 년간 자신의 학문적 성과물을 완전히 압축한 〈고고미술의 첫걸음〉(한언)을 세상에 선보였다. 이 책은 각종 학술지에 발표했던 208편의 주요 논문을 실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일주문

안양교도소와 자매결연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30일 오후1시30분 안양교도소를 방문, 자매결연식을 갖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능인선원은 매월 한 차례 안양교도소를 위로 방문해왔다.

육군 교육사령부서 법문



삼중 부산 자비사 주지는 14일 대전 육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무궁화 표구그림 50점을 기증하고 교육생들을 상대로 '참되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장학금



양산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8일 복지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가정 중고생 3명에게 1/4분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음대 새 학장에 선출



구해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준보유자)은 최근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 새 학장에 선출됐다.

한길포토라인 전시회



선암스님(한길포토라인 회장)은 16일~20일까지 서울 예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제5회 한길포토라인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광덕스님과 반야바라밀' 특강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4월 2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광덕스님과 반야바라밀'을 주제로 특강한다. (0334)676-8700

'깨달음의 열쇠' 출판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김사철·황경환 공저)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호국 보현사서 법문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선곡에 위치한 호국 보현사에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법문한다.

동국대 석좌교수에 위촉



김명하 코래드회장은 16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위촉. 이번 학기부터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론'을 강의하게 된다.

신진법무사 사무소 개원

박종길 법무사(대구구도회원)는 18일 수성구 범어3동 범어빌딩 303호에서 신진법무사 사무소를 개원했다. (053)753-6775

부부교수가 낸 사찰환경 도서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위원인 이병인(41·밀양대 환경공학과)·이영경(41·동국대 조경학과) 부부교수가 자신들이 발표한 사찰환경 관련 논문 및 에세이를 모은 〈사찰환경연구〉를 발간했다. 223쪽 분량의 이 책은 사찰환경의 보존과 관리, 불교와 환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난 94년부터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11편과 〈불광지〉에 기고한 에세이 18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15일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출판기념식을 가진 이씨 부부는 "스님과 불자들의 사찰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찰경광 및 오폐수에 관한 책을 더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절을 쉼터·문화공간으로"

범어사신도회 박수관 회장



"스님들의 수행 기반과 신도들의 신행공간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신도회로 조직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2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취임법회를 가진 박수관 신임회장은 범어사 신도회의 역할론을 강조한다. 박회장은 범어사 신도회가 이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정비부터 시작했다. 범어사내 신도회 조직인 관음회, 지장회를 비롯 신도회 조직을 갖추고 있는 말사 신도회 조직 파악 및 의견수렴에 한창이다.

"말사의 신도회장과 범어사를 아끼는 다양한 사람들이 범어사 신도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탄탄한 조직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박회장은 범어사를 사람들의 삶 가까이로 끌어와 삶의 연장선에 있게 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의 위안처가 되고 문화의 장이 되는 범어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신도회가 다진다는 포부로 스님들을 만나고 말사 신도회장을 만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본부장도 맡고 있는 박회장은 23년째 범어사 신도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범어사에 오르면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 박회장은 자신이 그랬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어사를 통해 삶의 힘을 되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

앞으로 범어사 신도회는 50여명의 이사진, 실무자를 갖추고 시민들을 위한 일요 법회 개최, 부산불교 문화의 장이 되는 불교회관이나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등 다양한 사업 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선원총람' 출판기념 법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총람〉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법회에는 일면(교육원장) 법등(중앙종회의장) 원택(총무부장) 계성(교육부장) 법장(수덕사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장)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련 지원스님,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도명스님 부도·탑비 제막식

담연당 도명스님의 부도 및 탑비 제막식이 14일 고성 금강산 화암사(주지 동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도명스님의 상좌·손상좌스님들과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중앙종회의원 정휴·마근스님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95년 입적한 도명스님은 1962년 파계사에서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월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 개교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설립한 서울불교문화대학 개교기념법회가 10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학과 50명 법사과 20명 등 70명의 입학생들과 그 가족, 종정 혜웅스님등 종단 스님들과 서울불교문화대학 김용직 학장,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대구대학교 박윤흔 총장 등 5백 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中 고적정리연구위 자매결연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4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중국 전국고교·대학 고적정리연구위원회와 〈한국한학가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가졌다.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에는 중국측 안평추 주임과 북경대 양충 교수 등과 동국대 송석구총장 등이 참석했다.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90분, 5,000원).
오쇼는 이 테잎에서 바르도와 대한 설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행사 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신국판/140쪽/값 5,000원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제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처음으로 출가 발심할 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라면, 첫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첫 아기의 미소를 바라볼 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
처음 절에 왔을 때, 처음 절에서 마주쳤을 때의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이 상대를 부처님의 품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환희심에 가득찬 신행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수행> 중에서





<아름다운 생활수행>에는 원혜 스님의 깊고 따뜻한 사려가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화합 공동체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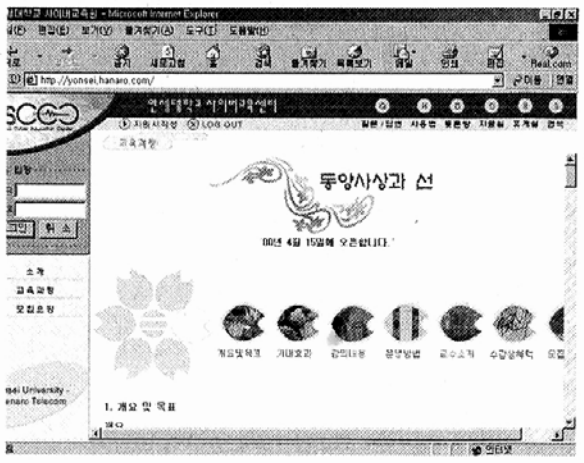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닦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원혜 스님의 예절론이 신선하다.

저자 원혜 스님은
마곡사에서 득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은사 주지 소임중.

봉·은·출·판·부
전 화 (02) 547-4255
팩 스 (02) 516-6885

사이버 禪강좌 열린다

◇ '동양사상과 선' 강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강좌로 강의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延大 '동양사상과 선' 내달 15일 개강

"사이버 세상에서 선(禪)을 배운다." 최근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선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동양사상과 선' 강좌가 개설된다. 연세대학교 사이버 교육원에 개설되는 이 강좌는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친다.

신규탁교수 강의

신 교수는 "선불교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기만의 언어로 생생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나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한다"며 "이런 선사들의 정신은 현대의 대중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개인에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음미하게 해 줄 것이기에 선어록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4월15일 정식 오픈될 '동양사상과 선'(http://yonsei.hanaro.com)은 12주 강의 가운데 36시간은 사이버강의, 12시간은 대면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선불교란 무엇인가-인도인의 우주관, 인간 석가모니의 사상,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사상 △중국의 불교-번역승들의 행로, 노장사상과의 만남, 중국화되는 불교 △기성교단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모색-기성불교에 대한 갈증의 고조, 교조주의에서 탈피, 새로운 종교운동의 시작 △흔들리는 젊은 수행자를 위한 질책-죽음, 부처도 사모하지 않는다, 제 목소리 △혜능과 육조단경-공부에 찌든 세상, 마음이 열리는 세상, 전설이 만들어지는 세상 △하택신회의 선사상-호적과 스즈끼의 대결, 누가 정통이냐, 굴절되는 역사 △마조도일과 홍주종-마음이 부처, 그대는 완성된 주체이다, 교단의 형성 △임제땅에서 조주땅에서-네가 바로 부처, 부처라는 짐에 억눌린 자들, 엿먹어라 △선종과 교종의 통합운동-억울한 누명:종밀스님, 뒤에 오는 이들의 안내판, 무식이 통하는 세상 △선어록의 레토릭-술지게미 먹고 기분내는 놈, 사람 달아매는 말뚝, 개도 부처가 된다는데 △선과 문학-황악루에 올라 시 한수 지어보게, 창랑의 시화(詩話), 벽암에서 오고간 사연들 △선과 언어-영원히 잊지 못할 그대:이마를 깐다, 걸림없는 수행인:자손이 귀하다, 꺼져라:차나 한잔 드시오 등이다.

연세대에서 개최하게 될 대면강의에서는 사이버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규탁 교수가 직접 강의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이버 강의 도중에도 세차례에 걸친 대면강의를 통해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질의응답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호회 개설도 가능

'동양사상과 선' 강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3월 말까지 수강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수강생은 등록후 1년간 10MB의 메일과 홈페이지 용량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하나넷 내에 동호회 설립을 지원받는다. 강의를 끝마치면 수료증도 수여한다.

사이버 교육원은 '동양사상과 선'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의 심리, 마광수 교수의 시창작교실, 등의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와 청소년을 위한 멀티미디어 등 실험강좌를 비롯 학점으로 인정하는 전문과정에 사이버 신학과정, 종교심리학, 종말론, 사이버스페이스와 법률과정, 사이버 논리논술교육, 사고력 지도와 논리교육,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등을 개설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 종 욱
〈생명의 실상 연구소장〉

유년기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선석사라는 절과 그 주위의 경관이 고향산천의 모습과 함께 자주 떠오르니 이것이 불교와 나의 첫 인연인 것 같다. 청년기에 들어서는 절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일어나 절을 찾아가 법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염불을 따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교란 삶에 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신비에 싸인 종교라고 막연하게 믿게 되면서 언젠가는 제대로 공부를 해 보겠다고 마음 속으로 원을 세웠었다.

30대 후반부터는 등산을 좋아하게 되어 매일 아침 산에 오르면서 30분은 염불을 해야겠다는 발원을 했다. 그 후 지금까지 꾸준히 아침에 염불을 하면서 산에 오른다. 50대 초반까지는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불교서적을 구해서 읽고 염불도 해보고 스님과 성직자를 찾아 법문을 들어보았지만 의문에 대한 진전은 조금도 없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동료 교수 9명과 함께 성전암 철웅 큰스님을 고 있는 동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일도 있었다. 그 이후 손에 느껴지는 기로 미약하나마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 신비한 치유의 힘에 놀라면서 한편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체험들을 겪는 동안 나의 마음은 한결 밝아지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상의 세상이며,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임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한다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없앨 수 있고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

"긍정적으로 살면 세상은 극락"

찾아 뵙고 공부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쉽고 자신에 찬 확고한 설법은 우리를 크게 감동시켰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낀 기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 공부를 마칠 때는 손과 얼굴에서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어느날 기도 중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음)가 온 천지에서 끝없이 나를 향해 몰려와 두려워서 소름이 끼쳤다. 이 소리의 일부는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여 기도를 계속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지만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마음과 몸이 그전보다 편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기도 때는 전날보다 소리도 공포심도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는 수년이 걸렸고 동시에 여러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엊그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중에 우리 일행이 탄 차는 〈반야심경〉만 낭독하면 비가 멎고 다시 비가 오면 또 낭독하여 비가 멎는 신비함. 운전 중에 치통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념과 함께 손가락으로 아픈 이를 누르이 바탕이 되어 무엇보다 포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쁜 마음을 포교에 충실하겠다는 발원으로 다잡았다.

심원불교학생지도교수, 학생생활연구소장 등을 지내면서 본교 학생과 교직원 외에 타학교 학생과 일반인들까지 많은 상담을 해왔다. 이런 상담을 바탕으로 나는 또하나의 원을 세웠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말이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산업체, 군부대, 학교 등에서 불성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강연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지금은 대구경북법륜불자교수회가 후원하는 생명의 실상 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강연과 상담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육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3년을 앞당겨 퇴직한 이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 나의 하루하루 수행이라고 믿고 또 내가 지상에 태어난 사명이라고 느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그림 너무 많으면 속도 장애

홈페이지 만들기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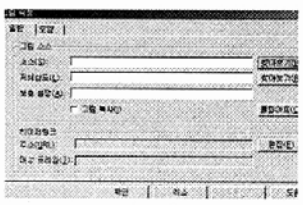
첫화면을 그림으로 꾸며보자. 먼저 그림이 들어갈 위치에 커서를 놓고 기본 도구막대에 있는 그림 삽입하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의 '삽입', '그림'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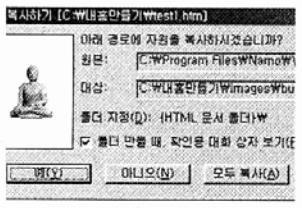
'그림 속성' 대화상자가 나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다.〈그림1〉

'열기' 대화상자가 뜨면 그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그림 파일을 클릭한다. 두번 클릭하면 열기를 누르지 않아도 단번에 그림이 선택된다. 첫화면에 들어갈 그림을 선택했으면 '그림 복사' 항목을 클릭하고 '보충설명'에 그림에 관한 설명을 입력한 후 아래의 '확인'을 누른다. 선택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속성'의 보충설명은 해당 그림의 설명을 입력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나중에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 그림 위로 가져가면 그림 설명으로 뜬다. 저장하면 '자원 복사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예'를 누른다.〈그림2〉

그림을 저장하는 폴더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 디렉토리를 만들 것인지 물는다. 이때 '예'를 누르면 새로운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된다.


◇〈그림1〉



◇〈그림2〉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은 주로 jpg나 gif를 사용한다. 다른 그래픽 파일에 비해 용량이 작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장식할 때 너무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이 많으면 열리는데 시간이 오려걸려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용량을 줄여 여는 시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림크기를 조절해보자. 그림위에서 클릭하면 '그림도구' 상자와 크기조절 포인터가 생긴다. 포인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로 바뀐다. 그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그림크기를 조절하면 된다.

우리 모임에선

농불회 23일 창립 법회

농림부 내 불자들의 모임인 농불회가 23일 정오 농림부 내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한다.

이날 창립법회 후 농불회는 격달 모임을 정례화하고 신심함양에 힘쓸 예정이다. (02) 503-7264

불교언론인회 정대스님 초청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에게 종단화합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한다.

한편 한국불교언론인회 강신철 부회장은 6일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김영일 감사는 4일 MBC 보도제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02) 719-4083

철도청 성북법우회 환경법회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회장 박병호)는 8일 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도선사 진입로에 모여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도선사 마애불 앞에서 열린 환경법회에서는 못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정진에 힘쓸 것 등 7개 항의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도 다짐했다.

한편 4월18일에는 1호선 석계역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클릭! 새 홈 페이지

■ 원광대 불일동문회(http://www.freechal.com/wonkwang)-2월28일 개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원광지부 동문회로 졸업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

■ 창원대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changbool)-2월28일 개설. 창원대 불교학생회 모임.

■ 우리는 선우 중고딩(http://www.freechal.com/sw2000)-2월29일 개설. 우리는 선우 중고등학생회 회원 및 동문들을 위한 홈페이지.

■ 한용운 시집(http://www.freechal.com/kimki66)-3월1일 개설.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개설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곳.

■ 바라밀학생회(http://cafe.daum.net/buruna)-3월5일 개설. 바라밀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친목 도모 공간.

■ 부처님 · 사랑(http://www.freechal.com/budda/)-3월9일 개설. 불교의 기초, 불교의 생성, 불경의 종류, 불경의 내용(반야심경,천수경,등...) 등으로 꾸밀 홈.

■ 선우마을(http://www.freechal.com/edubud)-3월10일 개설. 에듀넷 불교동호회 선우마을의 홈페이지.

■ 경북대학교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kyungbulsa)-3월11일 개설.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및 재학생들의 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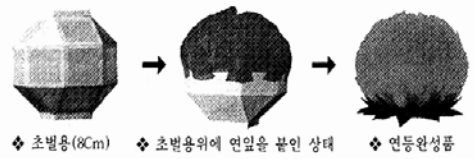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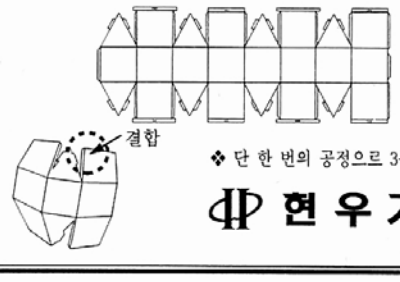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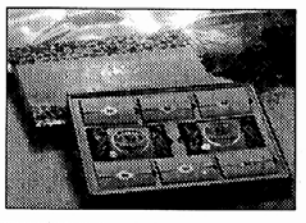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딩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섭취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전통사찰 증·개축 '신중'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거나, 문화 보존을 위한 지역으로 특별히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을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해 오고 있는 곳이 전통사찰이다. 서구화의 물결에 휘말려, 또 아직 문화적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통적 유산들이 소실되어 가는 이 시대이기에, 불교의 울타리 속에서 그런대로 보존되어 가고 있는 전통사찰은 미래의 세대에 한국 전통 건축의 맥을 전해 줄 더더욱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찰들마저 무분별한 증·개축에 휘말려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전국의 전통사찰 가운데 그나마 100여개 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문화유산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아직도 경제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오래 가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 해소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 이런 조류로 미루어 본다면 전통사찰이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꾀한 건축 문화의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물 자체의 보존은 물론, 그 주위 환경과의 본래적인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조언을 거쳐 증·개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증·개축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좀더 강화하여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사찰의 책임자도 무분별한 대형불사 위주의 불사풍토를 지양하고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우선하여 사찰의 보수, 유지,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자체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소중한 우리의 건축 문화를 지켜가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 유산을 보호 유지하는 당해사찰들이 무조건 불편과 피해만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화 중시의 풍토를 조성하고, 또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국가와 온 국민을 대신하여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감시 일변도로 문화재를 보존하려 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보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포교사단 '생명나눔' 실천

지난 12일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하면서 포교사 1천166명이 화장유언과 함께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6년전 불교계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생명나눔 실천운동'이 이제 포교사단에 의해 앞으로 본격적인 생명나눔의 실천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주목해 보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육신공양도 마다하지 않는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화엄경〉에도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필요한 사람이 눈 귀 코 혀 머리 손발 혈액 뼈 심장 간장 신장을 요구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를 베풀어 준다"고 했으며 그밖에도 육신공양의 고귀함을 전하는 경구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불교계이지만 그동안 '나눔의 삶' 실천과 그 사회적 성과는 드러내 자랑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포교사단이 조계종 사찰들을 통해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펴나갈 방침임을 밝힌 것에 우리는 기대를 갖게된다.

마침 지난 2월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땅에도 장기이식이 합법화되어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교사단의 화장유언과 장기기증서약은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한편 장기기증 운동은 불교등 종교계가 앞장서지 않으면 앞으로의 기증문화를 올바로 세워 나가기 어렵다.

사람의 장기가 하나의 상품이 되었을때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취지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낼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여기서 도덕적 기준이나 장기에 대한 존엄성 지키기, 장기이식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 확립등이 필요해진다. 포교사단은 이점 또한 소명(召命)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생명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의학과 종교는 그 뿌리를 같이한다. 장기이식등 의학의 발달은 이제 의학과 종교를 하나의 장(場)에서 만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이 사람의 수명연장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죽음의 극복'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다르다. '육신보시'에는 육신에 대한 무상함의 관찰과 무상함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열 린 마 당

불교학과 학생부족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동국대와 위덕대 등 종립대 불교학부(과)의 출발이 산뜻하지 못하다.

위덕대는 불교학과 40명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올해부터 전과(轉科)제도의 제한규정이 폐지된 동국대 불교학부는 18명이 다른 학과로 전과했다. 동국대는 학부제가 실시된 96년 이후 매년 전체정원의 30%에 이르는 불교학부 학생들이 전과를 했다. 또 지난 97년 대학원 중심제로 특성화하면서 학부 정원도 8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되는 등 종립대학의 면모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덕대의 경우는 그나마 학교와 진각종의 긴밀한 협조로 올해 졸업생 전원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정원미달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교학의 위기는 불교의 위기를 가져온다. 종립대 불교학부(과)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 17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앞으로 공청회 개최등 불교대학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종립대 특성 못살려 위기"

현각〈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위원장〉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의 교육정책은 자율화라는 허상을 좇아 과오를 저질러 왔다. 학부제 실시이후 불교대학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도 여기서부터 발생됐다고 본다. 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채 교육부의 교육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교대학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월 24일 불교대학내 불교, 인철, 선학과 교수 14명으로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17일 회의에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우선 △신입생 선발·학과 신설 및 장학제도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 개정 및 개발 △불교문화연구원 활성화 △취업대책 및 불교대학 공간이전문제 등 4개 연구분야로 나뉘, 4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대학당국과 교수, 학생 등 모두가 참여해 불교대학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여름과 겨울방학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심리학, 성보문화재관리학, 포교학 등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학과 신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과제도 또한 대안을 모색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우수학생 유치 여건 절실"

장익〈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대학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인 만큼 우수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계 전체에서 불교학적 진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교학의 발전은 불교의 발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의 풍토는 불교학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에따른 발전계획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종단과 불교계의 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각성이 인재육성불사인 교육에 반영되고, 불교학을 진흥시키는 힘이 된다. 이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성된 인재들을 다시 불교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립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불교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과과정내에서 다할 수 없는 분야들을 특강 및 실습 등을 통해 활성화 해야 한다. 이는 응용불교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위덕대 불교학과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교수와 학생을 주축으로 교육, 행정, 문화, 복지 등의 분야별 연구회를 결성해 주 1회 모임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지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자는 의도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들도 임시대처방안에 불과하다. 불교학 진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학부제 폐지·장학금 확대"

심재관〈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수료〉

종립대학의 면모를 되찾고 불교학을 발전시키기위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를 폐지해야 한다. 학부제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학과제 실시때만 해도 1학년때 전공기초를 공부하고, 3학년 정도면 원전강독 등 보다 심층적인 전공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96년 학부제 실시 이후 전공기초를 3학년이 되어서야 시작하고 있다. 학교당국에서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을 내세우지만 학부때 배워야 할 것을 대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를 없애면 학교자체의 평가가 저하되고, 각종 교육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지원도 적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로 무리하게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제의 취지도 제대로 못살리고, 불교대학의 특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불교대학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를 교육비지니스 정도로만 인식해 운영하다 보니 순수학문을 공부하러 오는 이들 조차 피해를 본다.

불교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등으로 특혜를 주고, 졸업하면 포교사자격을 주거나 종단 또는 각 불교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과제도는 불교대학 입학시부터 전과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서 전문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목탁소리

위 영 란 〈뉴미디어부장〉

수계 일련번호 1,060,749호

3월13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계법회가 열리는 부처님 출가절. 이날 용성스님 열반 60주기에 맞춘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의 수계법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계사인 회주 도문스님이 "용성조사님의 유훈 10사목 가운데 제 8사목을 완수했습니다"라는 고백의식 순서에 이르러서는 법회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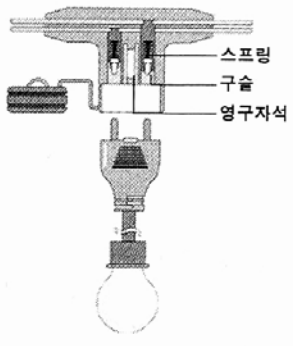
3.1운동 33인의 한분으로 독립운동가이며 대각불교운동의 선구자인 용성스님은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해 10가지 유훈을 남겼다. 그 8번째가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통하여 수계자가 1백만명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대나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에 바쳐 출가 봉공케하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 가르침을 완수하게 된 것이다. 13일 출가절, 맨 마지막 수계자의 일련번호는 제 1백6만7백49호. 이 번호에는 89년여동안 용성-동헌-도문 스님으로 3대의 계대(戒代)를 이어온 원력이 담겨있다. 용성스님이 1911년부터 열반에 든 1940년까지 3만여명에게 계를 주었고 그 수법제자인 동헌스님이 이어 41년부터 60년까지 3천여명에게 전계하였으며, 그 수법제자 도문스님이 61년부터 이날까지 1백만명이 넘도록 수계법회를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도문스님이 계사로 하는 수계법회때는 여늬 일반 수계의식에다가 추가로 용성스님의 유훈인 "아들이나 손자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에 출가 봉공케하라"는 다짐을 확인한다. 즉 계사가 이 구절을 큰소리로 낭송하면, 수계자들은 "네"라고 답하고 이어 수계연비가 실시되는 것이다.

수계일련번호 1,060,749호가 오늘의 교계 현실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요즘처럼 출가정신이 퇴색 내지는 실종되 출가정신을 회복하자는 교계 분위기에서 집안의 한 사람이라도 출가자를 내라는 강한 자신감과 큰 원력을 만나게 된다. 또한 사제 도반지간 등 승가 구성원내의 신의가 추락해가는 현실에서, 은사의 유훈을 평생 수행길의 나침반으로 삼아 반드시 실현하려는 그 제자의 숭고한 뜻이 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 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 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삼·부·농·산·은·습·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승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지하철 역에서 읽는 '자비의 말씀'

감동…참회 "불심 영근다"

서울 1~4호선 115개역사 460개 설치

풍경소리 제작비용 마련 '발 동동'



◇지하철역에 걸려있는 '자비의 말씀'은 찾아가는 포교를 지향하며,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문화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

올해 예순아홉이신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말이 모시는 거지 실은 살림을 도맡아 하시므로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셈이다. 딸과 손녀의 투정에도 무조건 즐거워하신다. 나이 쉰에 남편을 떠나 보낼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모진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한테는 그나마도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던 행복도 겨우셨는지 그만 삐긋한 것이 탈골이 되고 말았다.

…중략…

어머니가 누우시면서 거실 바닥의 먼지도 뽀얗게 잘 보였다. 마당의 잡초는 왜 그렇게 쉬 자라고, 쉬임없이 나는지 알 수 없다. -이재운 (소설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김진희씨는 우연히 벽에 붙은 '자비의 말씀'을 발견했다. 자기고백 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을 위한 동화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그 문구를 되뇌이며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동안 한참을 곱씹었다. '어머니와 할머니…!'

김씨는 "제게도 나이드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글을 읽고나니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심 한번 갖지 않았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하며 낯빛을 붉힌다.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이 불교계에서 시도한 포교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불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자비의 말씀' 캠페인은, 찾아가는 포교를 지향하며,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내 지하철역 구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자비의 말씀은 강행복씨의 관화를 바탕으로 한편씩의 짧은 이야기를 담는 형식으로 제작되는데 시인 장용철, 소설가 김성동, 정찬주, 이우상, 맹란자, 방송작가 오세경씨 등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제작 원칙은 〈백유경〉 등 경전에 나오는 예화나 설화를 인용 또는 각색하거나 짧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현재 서울지하철 공사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 1.2.3.4호선의 115개 지하철역사에 460개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관할인 5.6.7.8호선에도 확산하여 수도권 지역 모든 역사와 전국의 지하철 기차역까지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무간사 이용성씨는 "자비의 말씀을 새로 갈아 끼울 때마다 하루 15~20건 정도의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내용이 참 좋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이며, 책이 따로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받아보고 싶다"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캠페인도 대부분 불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살림이 쪼달린다. 풍경소리의 사업에 힘을 보태 주겠다던 몇몇 단체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게시판 200여개의 제작비용마련이 어려운 실정라는 것이다.

오랜만에 찾아간 절의 처마 밑, 풍경의 미묘한 떨림이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지하철을 기다리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자비의 말씀은 지친 현대인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현대인에게 불교를 가장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전하는 방편이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대중 곁에 다가서는 새로운 포교의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하철 인근의 사찰과 단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봉정사 극락전 벽화 19점
28년만에 다시 '빛 보다'

현존 최고의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외벽의 벽화 19점이 28년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지난 72년 극락전 해체·보수공사 때 떼어진 뒤 봉정사 창고에 보관돼 오다가 지난해 9월 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6개월간 강화처리 방식으로 보존 처리한 것.

이들 벽화는 나한도, 비천상, 보살도 등 전통적인 불교 소재와는 달리 신선인 백복(白僕), 적송자(赤松子) 등이 바둑을 두는 모습과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에서 물놀이 하는 천진스러운 동자, 화려한 모란꽃에 굉과 까치가 노는 화조도, 중국 시인 이태백과 백락천, 장량과 황석공 등이 민화 기법의 화폭에 담겨 있다. 이들은 미술사적으로도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조선후기 불교와 도교의 습합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덧칠한 흔적이 있는 벽화들을 적외선 카메라로 정밀 조사한 결과, 극락전 두 번째 보수공사가 있었던 1625년에 그려진 것을 새롭게 밝혔다.

성묵(봉정사 주지)스님은 "72년 보수공사 이후 창고에 계속 방치돼 왔으나 다행히 최근 보존처리에 성공해 조만간 전시관을 마련하고 참배객들이 극락전 벽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한-일 문화재 맞교환 하자"

日불화 소유 30대 이색제의

13세기말~14세기초 일본 불화인 '16나한도'(16폭)를 소장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나한도를 일본에 돌려주는 대신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 받고 싶다"고 밝혀 화제다. 이처럼 이색적인 제안을 하고 나선 사람은 마정렬씨(38, 대전 가양동).

마씨가 이 불화를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원 소유자였던 부산의 사업가 송모씨가 98년 세상을 떠나자 송씨의 부인이 평소 송씨와 절친하게 지내던 마씨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했다. 광복 직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도는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불화로, 16폭 각각 가로 49cm, 세로 119cm, 비단에 금가루로 부처님의 16제자를 그렸다.

'16나한도'를 살펴본 정우택(불교미술사) 박사는 "진품이고 좋은 작품이지만, 일본의 공공박물관이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맞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화 단신

'불교와 문화' 격월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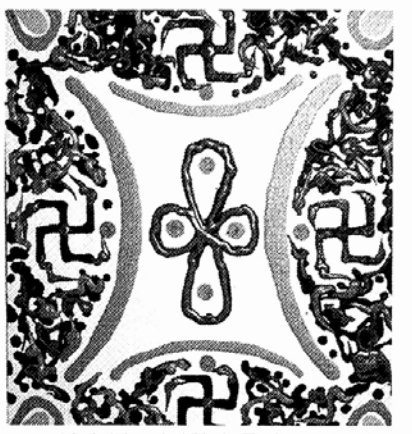
계간 〈불교와 문화〉(발행인 서돈각)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와 문화〉는 3·4월호부터 불교 속의 문화, 문화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문화지로 전환, 격월간으로 발행됐다. 격월간 발행에 따라 지면도 대폭 개편했다. 2000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을 비롯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현대인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신행,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시리즈 등의 기획물을 마련했다.

이번 〈불교와 문화〉에는 △집중서평-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탐방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팔리어 불전 전산화 사이트 소개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인물포커스-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등이 실려 있다.

발행인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은 "디지털 시대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격월간으로 변경했다"며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 지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북대박물관, 전통문화강좌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한국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고대불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제1기 강좌 과목은 '한국고대불교사'(동국대 김복순교수), '한국고대불교사상'(동국대 김상현교수), '불상과 불교미술'(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 '불탑과 불교건축'(정영호 前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다. 강의 기간 한차례 현장 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강의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28일까지다. (053)950-6536.



◇선과 점, 기하학적 무늬로 표현해 낸 '무여열반'.

한지에 그린 만다라

홍미경 개인전…대구 동아갤러리

자애로운 미소의 관음보살이나 동자를 그린 엽서를 무료로 나눠주며 '웃으며 삽시다' 캠페인을 전개해 온 불자 화가 홍미경씨(36)가 3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냥 그리는 그림전'으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는 26일까지 대구 동아쇼핑8층 동아갤러리에서 열린다.

홍씨는 둥근 한지 위에 그린 만다라 시리즈 9점을 비롯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무여열반' '우리는 하나'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만(卍)자와 사람, 점과 선, 기하학적인 무늬 등을 대립 혹은 조화시키면서 차원 높은 우주 의식을 표현해 내고 있다.

2년에 걸쳐 제작한 이들 작품은 예전에 비해 한결 밝은 색감과 명쾌한 구도로 변화된 작가의 의식세계를 드러낸다. 홍씨는 "그림을 보면 작가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를 포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밝은 웃음이 묻어나는 그림을 통해 독자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053)745-3087 이윤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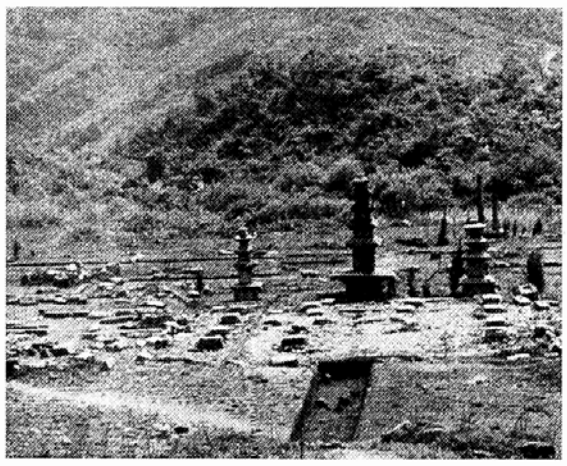
개성 영통사터 대대적 발굴

북한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의 관심이 1990년대의 주된 관심사였던 단군조선에서 2000년대 들어 고려로 변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 발굴팀과 함께 개성시 용흥동의 영통사지 발굴에 나섰다. 영통사는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이 출가·수도했던 고려시대 대표적 사찰로, 영통사지에는 아직까지 대각국사비가 남아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최근 펴낸 발굴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굴을 시작한 것은 98년 5월. 이 중 대각국사 의천스님 묘역 발굴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 묘는 스님을 화장하고 나서 그의 유골을 매장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 초 이미 도굴되어 별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굴단은 이 묘역에 제당으로 보이는 건물터를 발굴했다. 북쪽 바위에선 마애불을 발견하기도 했다.

북한이 40년만에 고려 사찰터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고고학계는 "북한이 1990년대 단군조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이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일컫는 고려로 관심을 돌린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개성지역 고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종욱 기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일본 다이쇼(大正)대학 발굴팀과 함께 추진중인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지.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 국판 /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금 위이시는 분은 송편시로 인덕주심시오. 일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 9078



'선방일기'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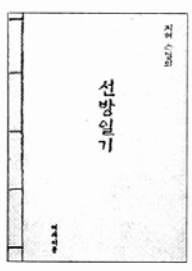
김홍근(문학평론가)

선객의 내밀한 수행기
선불교의 뿌리 본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좋든 싫든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묘하게도 언제나 음양의 두 면을 함께 지닌다. '변화'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동반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정신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간다. 군중 틈에 끼어 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왜? 어디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최근 정신세계, 특히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가상 현실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진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아니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를 가장 치열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장 깨어있는 인간들이 존재의 불가사의와 정면으로 맞대결해서 씨름하고 있는 곳, 그 현장은 다름 아닌 선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방의 전통은 너무나 중요한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이다. 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그 가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해 어느 사찰에서의 단기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책을 읽기는 쉽지만 자신을 읽기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증은 커져만 가는데, 책만 읽어서는 도저히 그 갈증을 풀 수 없었다. 쏟아져 나오는 책을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다가 이제는 책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싶었다. 책이 다 내 소리구나 하고 덮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문득문득 산발적으로 마주치던 나와의 만남을 좀더 길게 지속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며칠간의 단기수련회는 여름 낮의 짧은 소나기 같아서 잎사귀만 적시었을 뿐, 존재의 뿌리는커녕 마른 줄기의 갈증조차도 해소시키지 못했다. 수련회를 마친 뒤, 그 동안 산사에서 겪었던 하루 일과 하나하나가 지닌 상징과 의미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다. 번잡한 불교 이론이 아니라, 선객들의 현실 생활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예불하고, 청소하고, 발우 공양을 하고, 참선하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히게도, 책방을 아무리 뒤져도 선방생활에 대한 증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회 생활인으로서 석 달 동안 계속되는 안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맹정진의 수행을 체험한 스님들의 경험담이나마 얻어듣고자 했지만 그에 대한 읽을거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그때 막 출간된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를 만나게 되었다.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의 스님이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지내면서 겪은 일과를 솔직히 적어 내려간 이 책은, 수행자의 내밀한 발심과 고독 그리고 선방의 풍속과 생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상의 만남이 성행할수록 오프라인 상의 만남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올해도 참선수련회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정신인의 내밀한 생활 모습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다"

20대 미국청년 스노보드 타러갔다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스노보드를 타러 히말라야로 갔던 20대 미국 청년이 네팔의 선승을 만나 삶의 진리와 깨달음에 눈뜨게 된 과정을 그린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백영미 옮김, 황금가지)가 번역 출간됐다.

추운 1월, 히말라야에서 스노보딩을 하던 청년이 한 노승과 부딪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그 노승은 붓다의 깨달음을 전하는 '라에 초르제-포와르'라는 교단의 마지막 스승 프왐. 후계자를 만난 스님은 그에게 참선 수행법을 하나씩 전수하면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끈다. 삶이란 무엇인지, 삶이 왜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상하게 일러준다.

이 책은 대화를 통해 청년이 깨달음에 대해 서서히 터득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눈 덮인 산악을 배경으로 젊은이와 노승이 풀어 가는 삶의 대화는 때론 다정스럽게, 때론 무게 있게 다가온다. 이 가운데 업(業)에 대한 대화를 살펴보자. 청년이 묻는다. "내가 알고 있는 업은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라는 것 정도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참 아무말 없던 프왐스님은 말한다. "업은 불자들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한순간과 다른 순간, 그리고 한 행동과 다른 행동의 상관 관계가 업이란 다. 즉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때 청년이 끼어 든다. "업에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업의 시간 어딘가에 최초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왐스님은 그렇지 않다고 미소를 짓는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청년은 자신이 생각을 털어놓는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날은 그것이 존재했던 방식에 따라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전에 지은 업의 무한함 때문입니다." 이때 프왐스님은 "바로 그것이다"며 찬성의 표시로 머리를 끄덕인다.

깨달음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도 흥미진진하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청년의 질문에 "깨달음이란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이 아니다. 정신의 어떤 작용 없이 일어나는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다"라는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프왐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몰이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삶의 외형이 마술을 부린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계송으로, 전도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다." 즉 깨달음은 삶의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사고와 관념과 굳어진 생각 때문에 무한한 밝음을 지각하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긷고 있어도 마음은 환희에 찬 빛의 차원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는 프왐스님은, 명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도달한 삶은 히말라야 눈처럼 비어 있고 순수하다고 말한다. 프왐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을 통해 도달한 삶은 우리 앞에 늘 순수한 세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프레데릭 렌즈가 쓴 이 책은 94년 미국에서 출간돼 참선 수행의 붐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육신의 죽음은 법신의 탄생

정휴스님 '적멸의 즐거움'
선사들 임종게 묶어



중국 청활선사는 임종이 다가오자 대중 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초암을 짓고 지내다가 어느날 제자들을 불러 "내가 죽거든 시체를 벌레에게 주어라. 절대 탑이나 부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앉은 채로 열반했다. 승찬선사는 뜰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선 채로 열반했고, 등은봉선사는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입적했다.

"불교는 죽음을 육체의 소멸로만 생각하지 않고 법신의 회귀로 본다. 그래서 죽음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법신의 탄생이요 적멸이다."

정휴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역대 선사들의 입적에 얽힌 이야기와 임종게를 정리한 〈적멸의 즐거움〉(우리출판사)을 내놓았다.

생사에서 벗어난 옛 선사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기뻐했다. 보화스님은 관을 선물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경통스님은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 소신공양을 했다. 또 어떤 선사들은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 가니 참으로 즐겁다고 깨침의 노래까지 불렀다.

이러한 열반의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즐거움이다. 이처럼 이 책은 옛 선사들의 입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불교적 죽음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한편, 바른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전등록〉이 전하는 중국의 선사들과 경허, 만공, 효봉, 경봉, 성철, 월산, 일타 스님 등 우리 근현대 선사들의 입적 일화와 임종게가 소개돼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심경' 뜻 알고 외웠으면…

김사철·황경환 공저 '깨달음의 열쇠'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유식, 무식,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깨어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김사철교수와 황경환씨는 〈반야심경〉 속에 깨달음의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출간된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한국불교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요체를 명상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깨어나는 길로 가는 데 필요한 이론과 그 이론에 바탕을 둔 실험과 증명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이정표까지 도식화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오타마의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도 갑돌리'란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실험하고 증명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초의 이 명상가(인도 갑돌리)는 다섯 미니 만트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매일 염송하면서 외운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깨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앞서 글쓴이는 이 책에서 〈반야심경〉에 대한 우리나라 불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꼬집는다. 고오타마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야심경〉을 뜻도 모른 채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기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식의 전달은 고오타마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우리 배달말 〈반야심경〉을 제시하고 하나씩 해석적 접근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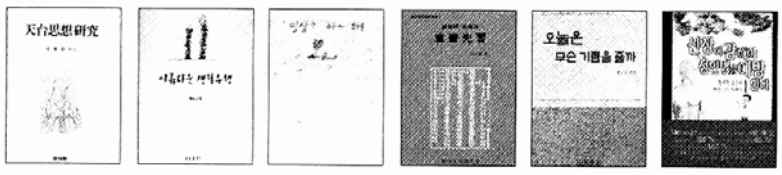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거지성자	전재성	선 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 림
7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8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9	영가천도	일 타	효 림
10	갑작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02)737-0695

새로나온 책



▲천태사상연구(이병욱 지음, 경서원)= 천태를 중심으로 중국불교사상의 특징을 밝혀내고 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천태사상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2부에서는 천태사상의 윤곽을, 3부에서는 천태와 화엄의 비교를 시도한다. 천태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은 〈마하지관〉이 아니라 〈유마경현소〉임을 설명한다. 값 2만2천원.

▲아름다운 생활수행(원혜스님 지음, 봉은)=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닦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예절론이다. 값 5천원.

▲명상? 아~하!(조미혜 엮음, 한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 읽을 수 있는 작은 책. 포켓용 명상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아잔차 스님의 고요한 숲 속의 연못과 크리쉬나무르티 및 밀라레빠의 법문에서 발췌한 것. 짧은 구절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값 2천원.

▲동몽선습(전호근 지음, 전통문화연구회)= 〈동몽선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도서.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문장의 주석과 출전란을 마련하고, 내용의 배경과 현대적인 의미를 고사와 해설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값 6천원.

▲오늘은 무슨 기쁨을 줄까(찬솔 지음, 뉴컴)= 군법사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띄우는 자비의 메시지. 불교방송 '장병의 시간'에 출연해 설법했던 내용으로 20여 년간 군포교의 일선에서 체험한 결실이 녹아 있다. 값 9천원.

▲신장이 강해야 성인병을 예방한다(정지천 지음, 청송)= 생활한방 건강서. 성인병, 노인병을 중심으로 질병의 원인,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돼 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요법을 비롯한 섭생법도 눈길을 끈다. 값 9천원.

원효사상 연구소

원효사상연구소에서는 금년 4월 첫주부터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합니다.

一元曉찬 二障義(元曉의唯識)매주 월요일 19時부터)
無明治斷悟道成佛의 제 玄裝유식과 비교

二玄裝역 成唯識論(중국의 유식)매주 목요일 19時
불교의 심리학 · 인식론 · 번뇌론 · 오도 · 수도론

二三 한국불교의 소의경전 金剛經 五家解 매주 토요일 19時
二十斷疑 七大家주석 함허설의 完講(刊定起 참고)

장소 - 대학로 운효사상연구소
연락처 - (02)3672-9097
강사 - 심재열 소장
※ 통신수강가능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발전에 그동안 기여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립 취지 이념을 되살려 조직을 정비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원 제위께서는 아래 공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아래 임원은 허위문서(임시총회회의록) 제출 사유로 문화관광부(문서번호 종일 86210-169, 2000년 3월 2일) 직권으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바, 본회 정관 제13조(선출) ①항에 근거, 2000년 3월 3일부로 정관 제8조(권리),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본회 임원이 아님을 알리오니 현혹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자 명단 이상 10명

직위	성명	사유	직위	성명	사유
이사장	문홍주	허위문서	이 사	민수열	허위문서
이 사	정이동	허위문서	이 사	이철하	허위문서
이 사	오경상	허위문서	이 사	황의철	허위문서
이 사	강정기	허위문서	이 사	이상진	허위문서
이 사	이성기	허위문서	감 사	하철도	허위문서

2. 위와같이 자격이 상실된 임원으로 구성된 자칭 집행부에서 대의원 제위께 정기총회소집문서(문서번호 한불총 2544-04호, 2000년 3월 25일(토) 14시 이외윤외 37명)를 발송한바 이외윤은 대의원 대표 자격이 없어 소집권한이 없으며본회 정관 제7조(대의원), 제20조(소집) ①,③항에 위배되며, 본회 직인을 날인하지 않은 허위문서로 총회 개최는 구속력과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무효이며, 본회가 소집한 총회가 아니므로 대의원 제위께서는 참석하지 말것과 유언비어에 착오와 혼돈이 없으시길 간곡히 바라며 추후 빠른 시일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2000년) 3월 16일

(사) 한 국 불 교 단 체 총 연 합 회
회 장 직 무 대 행 김 기 문
연락처 : TEL : (02)738-2888 FAX : (02)738-0449

智山 선생 추모
아바타 코스가 열립니다.

Avatar®

2천년 세봄에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아바타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 정진원(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주지 적경스님)은
현대식 숙박/교육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 수행 도량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봉인사는 선공학(禪工學)으로 불리우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의식개발 프로그램-아바타를 이땅에 소개한
故 智山박영철 선생의 부도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살기를 열망해 온 이땅의 구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최 : 봉인사 · 한길 정진원
▶후 원 : 미내사 · 의식개발연구소 · 정신세계사
▶기 간 : 2000년 4월 8일 오전11시~4월 15일 오후6시까지(7박 8일)
▶참가인원 : 20명 (선착순)
▶참 가 비 : 170만원 아바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숙식포함
▶안 내 : 이구상, 오전은
※동참할 아바타 마스터는 연락바랍니다.
▶신 청 : 봉인사 (0346)574-5585
의식개발연구소 02)572-1643-4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유물양식 치중 불교미술 연구 사실왜곡 초래"

엄기표씨 '청람사학'에 기고

불교미술사학계의 한 소장학자가 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찾아 시대를 추정하고 고미술상에서나 통하는 가치를 매기는 데 열중하는 현 학계의 풍토를 비판해 주목된다.

화제의 인물은 엄기표씨(단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그는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학회에서 발간한 〈청람사학〉 제3집에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 방법에 대하여'를 게재,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양식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며 "유물에 담겨있는 당대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씨에 따르면 한국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각종 미술품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조성 연대나 배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 학계는 유적·유물의 공통된 특성이나 양식을 검증·비교하는 계량사학적 연구 방법론만을 활용하고 있어, 그것에 얽힌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현 학계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쇠퇴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엄씨는 "기법이 떨어진 것이지, 불탑이나 불상 등의 성보에 대한 신심(信心)이 전대보다 못하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고려시대 마애불은 통일신라시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몇몇 귀족들의 후원으로 조성된 마애불보다 서민들이 적극 참여해 조성한 고려시대의 마애불이 문화사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씨는 유적·유물의 연대와 개별적인 가치만을 연구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이를 포함한 선대의 불교문화의 양상을 복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엄기표씨는 "미술사학자는 고대의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 속에 과거를 투영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진각종 회당학회 재창립을 위한 총회가 14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진각종 회당학회 재창립

진각종 종조인 회당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교 및 밀교의 교리와 수행, 의식체계 연구를 목적으로하는 회당학회가 재창립됐다.

회당학회는 14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 '회당학회 재창립 총회'에서 혜정정사(유가심인당 주교)를 학회장에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92년 창립된 회당학회는 96년까지 매년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회당학보〉 발간 등을 해 왔으나, 97년 학회 내부 문제로 활동이 중단됐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진각종 교육원에서 회당학회 재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후 재창립을 준비해 왔다. 진각종은 회당학회를 종단이 지원·관리하는 학술 신행단체로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는 열린학회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임회장 혜정정사는 "회당종조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나가기 위해 6월 회당학보 5집 발간, 12월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학회활동 재개를 통해 불교학을 활성화하고, 일반사회에 진각종을 알리는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일제시대 30본산연합사무소 불교 교육-포교에 기여"

한동민씨, 한민족운동사 연구회서 발표

"1915년 제4회 30본산주지회의에서 설치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운용은, 불교계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하는 가운데 발생한 조직이었다."

근현대불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고찰한 논문이 18일 한민족운동사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됐다.

한동민씨(중앙대 강사)는 '1910년대 30본산연합사무소의 설립과 변화'에서 "30본산연합사무소 설치가 사찰령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주지(住持)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권한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해이해진 불교계의 기강과 사유재산에 대한 정리 등 불교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한 바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강학(講學)과 포교(布敎)라는 목표 아래 출범한 30본산연합사무소는 중앙학림(中央學林)을 비롯한 교육사업을 주요활동으로 삼았으며, 30본산연합사무소의 상임위원격인 상치원(常置員) 회의의 주요 의제가 중앙학림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이후 불교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주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20년대 젊은 승려들에 의한 유신운동(維新運動)과 부딪치게 되었다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는 이후 1922년 12월 30본산이 다시 공동으로 중앙기관인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김순석씨(독립기념관 연구원)는 '1930년대 조선불교계의 심전개발운동' 논고를 통해 "일제가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농어촌 개발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심전개발운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제가 조선불교계를 심전개발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선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잠재적 신도가 가장 많았으며, 더구나 조선시대에 탄압받았던 불교를 부흥시켜 조선통치에 이용할 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강요된 심전개발운동은 일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이버공간도 화엄세계"

윤원철교수, '종교와 과학'에 발표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최근 발간된 대우학술총서 〈종교와 과학〉(아카넷)에서 '사이버문화와 종교적 인식론'이라는 주제 논고를 통해 불교의 인식론에 근거해 사이버문화와 불교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교수는 "사이버 공간은 무아 무상의 교의를 바탕으로 한 법계 개념. 다시 말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는 현실이 실체성 없는 실재라는 불교의 시각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가상과 실재의 관계 문제를 불교 핵심교리의 하나인 불교의 무아(無我) 법계(法界)사상, 그리고 컴퓨터 통신망인 네트워크를 화엄경 사상의 법계연기(法界緣起) 등으로 설명한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온갖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은 만물의 겉모습은 그들의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 무상과 같은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실체성 없는 실재라는 법계개념이 가상공간개념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대체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삶의 공간, 현실의 일부 내지 연장이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재와 가상의 이분법을 넘어 삶의 공간, 현실 개념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윤교수는 그 확장의 논리를 초기 대승불교 인식론의 근간을 마련한 용수 중관사상의 이제설(二諦說)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시를 통해 불교의 인식론은 사이버 공간과 정보를 수단적 장치, 도구로 고안하고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까지 적극적으로 접수시키는 장치로써 정보화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학술단신

회당학술정보원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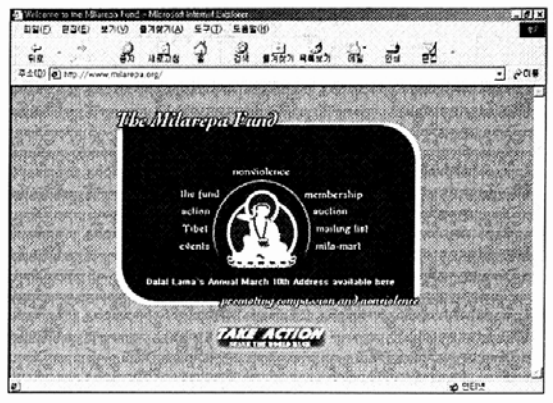
위덕대학교는 16일 중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통합한 차세대 학술정보지원센터인 회당학술정보원 준공식을 가졌다.

회당학술정보원은 연면적 94만여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지역 최대규모다. 멀티미디어실에서는 각종 영상물 상영과 원격강의 등을 할 수 있으며, 밤 12시까지 대출 반납이 가능한 무인대출 반납기, 인터넷 정보망이 설치된 전산실습실, 토론 학습 및 세미나가 가능한 공동학습실, 800여석의 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불교학 연구' 창간호 발간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운영위원장 해주스님)가 〈불교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화엄의 성기사상과 발보리심' '인식의 성립에 있어서의 촉의 문제' '동아시아에 보이는 원효저술의 영향' 등 98년 겨울부터 시작된 불교분과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된 논문 10편과 이에 대한 18편의 논평문을 담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밀라레파 기금

국제적 비영리 불교운동본부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 지원

밀라레파 기금(Milarepa Fund)은 불교의 보편적인 자비정신과 비폭력주의 정신을 진흥시키기 위해 티베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불교 운동기구로, 티베트인들의 비폭력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또 변화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매개체로 상징되고 있는 전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밀라레파'라는 명칭은 11세기께 티베트의 수행가인 제트슨 밀라레파(Jetsun Milarepa)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밀라레파는 평범한 티베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며, 변화를 위한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삼촌으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삿된 마술을 배우거나 삼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악행이 스스로에게는 크나큰 업(業)이 되었다.

그 뒤 그는 당시 티베트 불교계의 큰 스님인 마르파(Marpa)를 찾아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파 스님은 자신이 터득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수년 동안이나 밀라레파의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시험하였다. 밀라레파는 스스로 깨달음을 터득한 후 보살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을 서원하였다.

티베트에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의식의 존재까지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열반의 경지를 뛰어넘어야만 진정한 보살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티베트인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여건과 시련속에서도 깨달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밀라레파는 지금도 티베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또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밀라레파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은 '비폭력 운동'과 '오락'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밀라레파 기금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의(不義)를 종식시키는 각종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자유와 진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 티베트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면서 티베트의 평화적인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관련 교육 프로젝트로는 △티베트인을 위한 자유 음악회 개최 △거리 연설 △음악회 관련 앨범 판매 △미래의 자유 티베트 관련 기록 영화 제작 △일상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무가지 잡지 배포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www.milarepa.org/

禪 체조 수련 · 금강경 강의

불교TV에 방영중인 禪체조 수련을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아울러 금강경 강의와 참선 법회입니다.

선체조 수련 안내	
아침반	오전 9:00~10:20 (월~토)
오후반	오전 10:40~12:00 (월~토) 목요일 제외

금강경 강의 및 참선법회	
금강경강의	목요일 10:30~11:10
참 선 정 진	목요일 11:20~12:00

-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혜원스님의 저서
"선체조 108" "선체조 108비디오"(보급중)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주 소 : 강남구 개포동 5단지 상가 신일 B/D
■ 전 화 : 02) 445-6188 / 2226-5962

第4回
韓 · 日 親善 淨土佛敎 講演會

▷ 2000년 4월1일(토) · 2일(일)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午後 1:30 ~ 4: 00
▷ 좌담회 4일(화) · 5일(수)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 전 일정에 同時 通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講 演 內 容

▶ 眞實의 佛敎란 .....
▶ 참된 幸福이란 .....
▶ 人生의 目的이란 .....

眞實을 아는 사람은 幸福하다.
眞實을 求하는 사람은 더욱 幸福하다.
眞實을 獲得한 사람은 가장 幸福하다.

제4회 한 · 일 친선 정토불교 강연회가 아래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양국의 불자들이 함께 정토불교의 진수를 청문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 회 의 장 : 올림피아 호텔2層 임페리얼룸 02-2287-6000
■ 일 시 : 2000년 4월1일(토) · 2일(일) 4일(화) · 5일(수)
■ 문 의 ☎ : 02-2232-3990 (박 창 재)

【현대불교 261호 모법적인 군법당기사화 한바있는 불사에 대한 광고】

군법당 호국관음사 권선안내

군장병들의 심신단련 도량인 군법당호국관음사 신축불사가 건물(법당 한쇠기와 80평, 요사채 40평)은 완공되었는바 내부 불사가 (불상, 탱화, 불단, 단청 등) 이루어지지 못해 낙성식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젊은 불자들이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익히는 군법당(호국관음사) 불사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불자님들의 십시일반의 정신과 동참을 삼가 발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법당 신축불사에 동참했던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불사원만 회향을 이루어 불은에 보답하겠습니다.

불사동참 내용
불상, 탱화, (후불지장, 신중) 불단 닷집, 단청, 설법대, 경상, 방석, 앰프 그외 기타

불사시주금 계좌 : 광주은행 (083-107-002087)
예금주 : 한영규 (군법당건립추진위원회)

▶ 연락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호국관음사
062)571-7832/260-6163 016)356-5829

제 31 보병사단
군법당건립추진위원회 올림

說法 방법강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 서예반 강좌 개설

연수안내
▶ 기 간 : 3개월 과정
▶ 출석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10명) ※수시접수
▶ 통신과정 : 1개월중 3주간 통신을 통한 강의 ※마지막주 출석강의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만법이 공' 알면 죄업 사라져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1〉

오계상경-5

예불·염불하며 허물 드러내 고백해야
부처님 상호 관하고 참회해도 죄 소멸

지난 주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도과를 증득한 뒤 사람들에게 출가를 권했다. "자매여,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출가하겠습니까? 출가를 하면 계를 받게 되고 만약 계를 범하면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출가할 수 없습니다." 연화색 비구니가 다시 말했다. "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조금도 없지만, 만약 계를 받고 난 뒤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받고 나면 계를 받은 인연으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전세에 음녀였을 때 장난삼아 가사를 입고 춤을 추었는데 그 공덕으로 이렇게 출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의 인연으로 항상 계를 범하였고, 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지만,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다하자 이 세상에서 곧 계를 받게 되었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을 만나 수행을 하고 도과를 증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청정하고 복된 삶을 위한 하나의 원인이고 시작인 셈이다. 일단 계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계 생활뿐이다. 그러나 나약한 신념으로는 계를 굳건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계를 깨트리거나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순수하고 청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참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계율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참회법에는 작법·취상·무생참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법참회'는 율장에 나타난 작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전을 향하여 몸으로는 예배를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관을 하는 삼업으로 법도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드러내 고백하며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취상참회'는 '관상참회'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고 죄를 소멸하는 참회법이다. 즉, 선정에 들어 바른 마음으로 참회하는 생각을 냄으로써 도량 중에 혹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나, 광명이 나타남을 보거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거나, 꿈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현상을 보거나,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는 참회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얻게 되면 곧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화경』이나 『대비경』『점찰경』 등에서 말하는 온갖 행법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참회로 근본 중죄도 소멸하고 정계(淨戒)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생참회'는 마음으로 생도 멸도 없는 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을 없애는 참회법이다.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무멸의 실상을 관하는데, 온갖 죄업이 모두 한 생각이 심성을 요달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만약 심성이 본래 공적하여 죄든 복이든 실상이 없어서 일체법이 모두 공적함을 요달하면 무명번뇌도 여의게 되고 죄도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참회법은 『금광명경문구기』 권3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작법참회와 취상참회는 사참(事懺)에 해당되면서 조행(助行)이며, 무생참회는 이참(理懺)으로써 정행(正行)에 해당된다.

범계한 죄를 비교해서 가벼운 것일 때는 작법참회를 하고 무거운 것(네 가지 중죄)일 때는 반드시 취상참회를 해야 한다. 참고로 『왕생예찬』에서는 참회의 상에 따른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신체의 털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상품(上品)의 참회라 하고, 털구멍에서는 땀이 나고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중품(中品)의 참회라 하며, 온몸이 미열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하품(下品)의 참회라 한다. 이처럼 취상참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중죄는 결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理懺)은 교리에 통달하고 밝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만법이 모두 다 공하다' 하는 관을 지어도 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무리 참회하는 방법이 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를 받고 난 뒤에는 삼가고 근신하여 범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를 범하기는 쉬워도 참회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격이고, 또한 인과를 깊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참불자"

법회증계

범어사
〈2000년 3월 13일〉



성오스님
〈부산 범어사 주지〉

존경하는 수행자 찾아 일심으로 가르침 듣고 사회위해 보살행 펴자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 많은 비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주 수행자를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수행자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훌륭하다. 그리고 수행자를 만나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사람 중에 존경심을 갖는 사람이 낫다.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도 경을 묻는 사람이 있고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경을 묻지 않는 사람보다는 묻는 사람이 훌륭하다. 경을 묻는 사람 중에 일심으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이 훌륭하다.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중에도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도 깊이 뜻을 관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뜻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는 사람 가운데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면서도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이 말씀은 〈증아함경〉의 '선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불법에 대한 자세를 자상하게 일러놓은 경전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신행하고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가를 설하신 것입니다.

불자들을 보면 초하루나 각종 재일 또는 각종 화엄산림, 보살계 산림 법회 등이 열리면 절이나 포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이러한 불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입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큰절이지만 법당이 좁아 기도할 자리가 부족한 경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다툼을 하고 심하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법회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으려고 후원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자들을 볼 때면 무엇을 위한 기도이고 무엇 때문에 법문을 듣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복만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출가하여 오랫동안 지냈지만 일반 재가 불자들이 법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경우도 입제식과 회향식에만 참석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법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 할 때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말합니다. 이 선법경의 부처님 말씀 안에는 믿음과 앎과 실천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보살행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불자들의 바른 자세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여 부처님의 말씀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수행자를 찾아가서 경에 대하여 질문하고 일심으로 듣고, 듣고는 그 뜻을 깊이 관찰하여 마침내는 자신과 사회를 위해 보살행을 하는 불자가 되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작가·화가등 지식인층 불교에 매료

세계의 불교학 〈11〉 러시아 ②

세르바츠코이 '러' 불교철학 정립
볼셰비키후 사원폐쇄·학자 탄압



◇갈목지역 티벳불교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러시아 불교학자.

러시아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러시아 정교와 친(親) 정교적 사상가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두 진영, 즉 친불교적 작가와 화가들과 정교 신부들은 드디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연방(구 소련)에 자리를 내어주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한층 고조되었다.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 세르바츠코이(F.L.Shcherbatskoy · 1869~1942)는 이때 러시아 불교학계의 전면에 나서, 두 진영의 논쟁을 평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범어, 티벳어 등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철학 속에서 불교 교학의 위치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불교의 본질은 신앙이라기보다 철학'이라는 시각에서 불교를 이해하였고, 또 인도철학 그리고 근·현대의 서양에서 나타난 주관적 유심론과의 근본적 연관성을 모색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대각(大覺)과 베르크송의 직관의 순간 △불교의 열반과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엔트로피(entropy)론 △연기법과 서구 수학의 약수 개념 △중관학파의 공(空) 사상과 브래들리의 객관적 관념론 △용수의 법신론과 스피노자의 범신론 등을 주로 비교 연구하였는데, "모든 이론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결론지었다.

후대 학자들은 세르바츠코이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불교철학을 지나치게 유럽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불교에 대한 그의 애착과 탁월한 이해가 러시아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외에도 니콜라이 레리흐(N.I.Roerikh · 1874~1947), 로젠베르그(O.O.Rozenberg · 1888~1919) 등도 20세기 전반까지 러시아 지성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러시아 불교학 발전에 일조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불교는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구 소련이, 비(非)러시아계 민족들에게 러시아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민족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부터 소련은 불교의 태동지인 부르야트 지역의 불교사원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1937년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문을 닫지 않은 사찰이 없었고,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9백여 명의 스님들은 환속하거나 아니면 총살당했다. 또한 1940년대에는 갈목 지역에서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러시아 불교학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세계 석학들과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던 세르바츠코이를 부르주아적 반동 학자로 핍박하였지만, 세계 불교학계의 여론을 의식해 감히 구금·총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세르바츠코이가 이끌었던 '인도·티벳 연구실'은 폐쇄되었고, 이 연구실에서 발간되었던 '불교전서(Bibliotheca Buddhica)' 시리즈도 폐간되었다.

또 세르바츠코이 학파를 구성하였던 그의 제자인 소장 학자들은 대부분 '간첩 혐의'로 극형을 받았는데, 세르바츠코이에게서 '나보다 더 위대한 학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보스트리코프(A.I.Vostrikov · 1904~1937)를 비롯해 발디인(B.B.Baradiyn · 1878~1943), 투뱐스키(M.I.Tubyanskiy · 1893~1943), 세미초프(B.V.Semichov · 1900~1981) 등이 그들이다.

사실상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가 소련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제한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1950년대 중반까지도 구 소련에서의 불교학은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주장하는 불교가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체계와 결코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엄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천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혈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신도들은 경리를 맡고있는 신도에게 인등비, 기도비, 운영보시금등을 납부한다.



◇매달 첫주 일요법회 후 열리는 사찰운영위는 정혜사의 운영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스님과 신도회장단이 2월 결산내역을 검사하고 있다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의 사찰재정공개운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역포교와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경로잔치, 독거노인 돕기 등 재정의 30%가 사회로 환원된다.

사찰재정 투명화 9년 **의정부 정혜사**

열린사찰… 스님도 신도도 '주인'

수입·지출 '공개'…재정 30% 사회복지에

군불자 후원-푸드뱅크 사업 등 포교 열심

오전 9시가 되자 조계종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절에 온 선화행보살(의정부 두촌식당 운영)이 종무소에 들러 경리를 맡고 있는 신도 문혜경보살에게 운영보시금을 전달한다. 경리신도는 웃음으로 화답하며 월보시금 카드에 납부 도장을 찍어준다.

이어 신행모둠별 회장들이 각 법당의 불전함을 들고와 불전을 헤아리느라 분주하다. 불전함 관리는 개방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신행 모둠 회장들의 몫이다.

이날 정기법회 후 주지 혜승스님과 총무 도헌스님, 이종모 신도회장과 윤학진 부회장, 문혜경 경리보살과 각 신행 모둠 회장들이 참석한 사찰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월 포교원 재정결산보고가 이어진다. 신행 모둠 회장들은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의문 사항들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사찰운영위는 월말 결산 후 3월 사찰 행사 계획과 포교원 운영 중점 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부터 군인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법회 후 다과 및 점심공양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사찰운영위는 초파일 등값 보시금과 특별행사비도 회의에서 결정한 뒤 곧바로 집행할 정도로 결정과 민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처음 재정공개를 실시하자 부담을 느낀 것은 오히려 신도. 기존관습에 젖어 공개 취지를 이해 못한 신도들의 이탈로 인해 곤란을 겪어야 했던 주지 혜승스님의 오랜 노력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의정부포교원 정혜사의 사찰재정 공개운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역포교와 불교세 확장으로 이어진다.

의정부포교원 정혜사의 99년 총수입은 1억9천3백여만원, 총지출은 1억 9천여만원. 이중에서 건물운영 및 건축비 이자지급, 재사비, 부식비, 스님 및 직원 보시금 등 기본경비를 제하고 남은 6천여만원(약30%)이 순수한 지역포교 및 자원봉사 후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등 사회복지비로 지출됐다.

이와 함께 사찰재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도회 등 각 신행 모둠의 사회복지비 지출내역까지 합할 경우 포교·복지보시금은 더욱 늘어난다. 신도회 산하 신행 모둠의 경우 유치원과 양로원 등 연계단체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간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재정의 일정정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연화회'는 불교용품을 판매하여 여름·겨울 불교학교도 운영하며, 중고등학생회를 담당하는 '선화회'는 학생회 지도 및 재정지원은 물론 노인무료급식과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도 열고 있다.

또 불교대학 출신동문들로 구성된 '정법회'는 지역사회 포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14명으로 구성된 '불교대학후원회'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매달 발전기금을 보시하고 있다.

매년 2~3천명정도가 찾는 일요 군인법회의 운영도 주지스님과 신도 30여명이 후원회를 구성하여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군 생활 고충상담 등을 통한 병영생활의 활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렇듯 의정부포교원 정혜사는 사찰에서 벌어지는 모든 포교활동을 자급자족형태로 꾸려가며 일반사회에도 눈을 돌려 불교의 사회화를 통한 포교를 펼쳐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다.

지역 자원봉사단체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종파를 초월한 사암연합회, 경승단, 의정부불교유치원연합회, 의정부 운전불자회 활동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주지 혜승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푸드뱅크사업과 장애인초청행사, 경로잔치, 노인무료급식 등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모범사업으로 공가받고 있다.

이종모 신도회장은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은 신도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월보시금 도입으로 사찰운영의 견실과 사회 참여를 높일수 있다"고 밝혔다.

91년 혜승스님과 19명의 거사들이 힘을 합쳐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의정부포교원은 의정부 시내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28평의 현대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의정부포교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포교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21세기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정혜사 주지 혜승스님

인터뷰



"삼보정재를 포교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요" 의정부 정혜사주지 혜승스님은 "신도와 스님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사찰공개운영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아직까지 사찰에서는 주지권리가 막강하다보니 삼직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외호하는 신도회장도 유명무실하다"며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찰운영에 참여해야만 불교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정재 쓰임새 투명해야죠"

열린사찰의 의의를 강조한다. "대중스님도 사찰에 보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혜승스님은 월보시금을 신도들과 같이 납부하는 것은 물론 사찰행사시 보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스님들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월보시금을 소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전액 복지포교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회암사 주지시절부터 사찰재정 공개운영을 실시해온 혜승스님은 의정부포교원 개원과 함께 사찰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사찰재정의 일정액을 환원하여 지역복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사암련,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정부유치원연합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사찰재정 공개운영이란

94년 조계종단 개혁 이후 교단의 민주화와 사찰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이 종단정책으로 추진돼 온 상황에서 사찰운영위가 설치된 곳은 35.6%, 이중에서 사찰운영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두손으로 꼽기가 부끄러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본말사 주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67%의 스님들이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미묘하게 취급되던 사찰재정공개운영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주지스님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가연대는 지난해 종단시대 이후 반복되는 종단분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찰재정 투명화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종회에 종법제정요청, 서명운동 전개, 신도간담회, 지침서발간 등을 통하여 교단이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사 총무 도헌스님은 "주지스님들의 경우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사찰운영의 공영제를 이루려는 종단의 정책이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불교발전도 이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속연화유치원의 수업장면.



◇매주 일요군인법회에는 평균 2~3백명이 참석한다.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안 삼태리 마애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천안 삼태리 마애불 입상

소발의 머리카락·둥근 육계 '인상적'

두 손 가슴앞으로 든 독특한 손모양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에 있는 이 마애불은 거대한 산정바위에 돋을새김 했다. 넙적하면서도 박력있는 얼굴, 길게 치켜올라간 눈, 광대뼈가 나온 뺨, 큰 코와 작은 입 등의 이목구비가 매우 강건한 인상을 주고 있다. 소발의 머리카락과 둥글고 큰 육계도 력 인상적이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독특한 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수인은 고려시대의 미륵불 수인들과 같은 것이어서 불상 명칭까지 알 수 있다. 넓은 어깨에 걸친 통견의 볼의는 배 아래에서부터 U자형의 주름을 형상한 점이나 손목을 돌아내린 의습의 대창적인 표현 등은 거침없고 활달한 편이지만 선각의 평행적인 처리, 끝단의 마무리 등에서는 도식화된 면도 보인다. 이처럼 전체적인 형태나 상호, 옷주름의 표현 등이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마애불상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407호.

글·사진 = 불지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개발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장안 최저 폭발!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8)
황토 물참대 겸용 돌침대 탄생!!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새벽바닥 축축하고 녹녹한 냉기에 … 황토물침대로 사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나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환상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을 팡팡!!
◆초정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물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밀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원적외선 황토물침대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전국 무료 배송!!

돌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⑦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因此作業
불언일체중생 진시미인 인차작업
墮生死河 欲出還沒 只爲不見性
타생사하 욕출환몰 지위불견성
衆生若不迷 因何問着 其中
중생약불미 인하문착 기중
無有一人得會者 自家運手動足
무유일인득회자 자가운수동족
因何不識 故知聖人語不錯
인하불식 고지성인어불착
迷人自不會曉 故知此心難明
미인자불회효 고지차심난명
唯佛一人 能會此心 餘人天及衆生等
유불일인 능회차심 여인천급중생등
盡不明了 若智慧 明了此心
진불명료 약지혜 명료차심
方名法性 亦名解脫 生死不拘 一切法
방명법성 역명해탈 생사불구 일체법
拘他不得 是名大自在王如來
구타부득 시명대자재왕여래
亦名不思議 亦名聖體 亦名長生不死
역명불사의 역명성체 역명장생불사
亦名大仙 名雖不同 體卽是一
역명대선 명수부동 체즉시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으므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해서이다.' 하셨다. 만약 중생이 미혹되지 않았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밖의 인간·하늘 및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만일 지혜로써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法性)이라 하고 해탈이라고도 한다.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대자재왕여래라 하며, 부사의(不思議)라고도 하며, 성체(聖體)라고도 하며,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대선(大仙)이라고도 한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곧 하나이다.

聖人種種分明 皆不離自心
성인종종분별 개불리자심
心量廣大 應用無窮 應眼見色
심량광대 응용무궁 응안견색
應耳聞聲 應鼻嗅香 應舌知味
응이문성 응비후향 응설지미
乃至施爲運動 皆是自心 一切時中
내지시위운동 개시자심 일체시중
但有語言道斷 卽是自心
단유어언도단 즉시자심
故云如來色無盡 智慧亦復然
고운여래색무진 지혜역부연
色無盡是自心
색무진시자심
心識善能分別一切 乃至施爲運用
심식선능분별일체 내지시위운용
皆是智慧 心無形相 智慧亦無盡故
개시지혜 심무형상 지혜역무진고
云如來色無盡 智慧亦復然
운여래색무진 지혜역부연
四大色身 卽是煩惱 色身卽有生滅
사대색신 즉시번뇌 색신즉유생멸
法身常住無所住 如來法身
법신상주무소주 여래법신
常不變異故 經云衆生應知佛性
상불변이고 경운중생응지불성
本身有之 迦葉只是悟得本性
본시유지 가섭지시오득본성
本性卽是心 心卽是性 卽此同諸佛心
본성즉시심 심즉시성 즉차동제불심

四大로 된 몸은 생멸이 있으나
法身은 머무르되 머무는 바 없다

성인들의 여러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광대하여 응용함이 무궁하다.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 하였으니, 몸매가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하니, 사대(四大)로 된 몸은 번뇌의 몸이라서 생멸이 있으나 법신(法身)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여래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중생은 응당 불성(佛性)이 자기 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가섭도 단지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다.

김원각 〈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화엄스님

김해 동림사 조실

'불교와 사회'라는 주제가 매우 의미깊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사회라는 말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 또는 사람들이 모인 뜻이니까 불교의 사회활동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불교NGO라는 말이 귀에 설지 않을 정도로 불교의 사회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불교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탐 진 치 삼독심의 제어가 불교의 궁극이므로 더욱 수행과 기도에 정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불교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화엄스님께 듣는다.

"욕망의 무게 줄여야 상생"



- 1924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
- 45년 오사카 의학전문학교 졸업
- 48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득도
- 73년 범어사 주지
- 74년 영구암 주지
- 현재 김해 동림사에 주석

—불교의 사회적인 활동.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 경제정의, 최근의 총선, 환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요.

▲우리가 불국토(佛國土)라 함은 생명있는 모든 것을 부처의 종자를 가졌다 하여 '불(佛)'이라 하고,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 하여 '국(國)'이라 하고, 이 모든 자연을 '토(土)'라 이름한다고 하는 사상이 불국토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는 거대한 돈덩어리가 굴러가고 있는 모양이예요. 인륜이 무너지고, 상호의 생명을 경시하고, 서로를 불신하여 끝간데 없는 욕망의 탑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가 가벼워야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간단한 이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고통의 근원이 집착과 욕망에 있다고 거듭 설하신 것은 세상고통의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고 답을 예시해놓은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욕망의 무게를 줄일수록 인류가 공멸하지 아니하는 길을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출가사문들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 인천의 스승으로 뭇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모범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살아가야 현대의 불제자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력의 바탕과 기도의 원력을 쉼없이 쌓아서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구조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현대의 고통과 병리를 치유하는 데도 각기 맡은 바 수행의 방편을 잘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은 어떠한 종교보다 불교가 그 근본적 치료를 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은 서양에서도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적대시하고 어느 쪽을 소외시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공존과 공멸이 욕망과 분별이라는 한 생각에서 갈라진다는 인식을 하여 우리 불교가 적극 나서서 사회의 병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승려교육은 물론 재가자 법사 포교사 등에 다양한 현실적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당장 밀림 속에 던져놓아도 숲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용기를 오늘을 사는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행과 중생의 삶이 둘이 아니고, 너무 산속만 고집할 수 있는 시대도 이미 아니기 때문에 역할과 방법을 잘 나누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네들이 현실사회를 모두 부정하고 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안주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수행가풍의 전통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다 해야 보살의 아픔도 끝난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교의 적응과 대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네들은 젊은 수좌들을 잘 돌보아서 우리 사회의 재목으로 길러내는데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통신 등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속도에 휩쓸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의 발달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파괴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필요할텐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보화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과 나태에 기반한 것입니다. 육체적 노동을 정신적 노동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자는 방식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문명이 피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속력이 가공할 정도여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거의 농경사회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현대의 사회는 한치의 예측도 불허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통계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들이 난무하며 인간을 안심시키고 꿈을 주기도 합니다만, 통계적 편리 구조가 일시적으로 안락감을 주는 것 같고 지식정보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면에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배제된 인간의 도덕적 순수성에 기반한 공존의 삶과 상생의 철학이 중심이 되어야 겠지요. 부조화된 정보화가 많은 실작자를 낳는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선수행은 매우 타당한 대안일 수 있는지요.

▲선은 앉아서 솔바람을 코로 냄새맡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팔만사천 번뇌라는 도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참선은 번뇌를 부수어 생각이 쉬어지고 또 쉬어지면 대지와 같아져서 거기서 만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듯 매우 힘있는 수행법입니다. 현대의 인류문명이 욕망의 축적으로만 달려가는데, 불교의 선수행은 인류가 축적한 위대한 정신문명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백분 활용하여 대중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고도로 자제되는 자리가 자성에 가까운 자리요, 인류공존의 자리인 것입니다.

—불교의 역할이 어떤 종교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종교학자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위상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환경 인권 소득분배 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사회비판 및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NGO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맨발로 상징됩니다. 길 위의 삶이었으며, 길 위의 죽음이었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맨발로 중생들과 함께 했으므로 비로소 석가모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렸음은 기존의 권위와 제도로부터 자유로와졌음을 말해줍니다. 싯타르타가 왕자로서의 지위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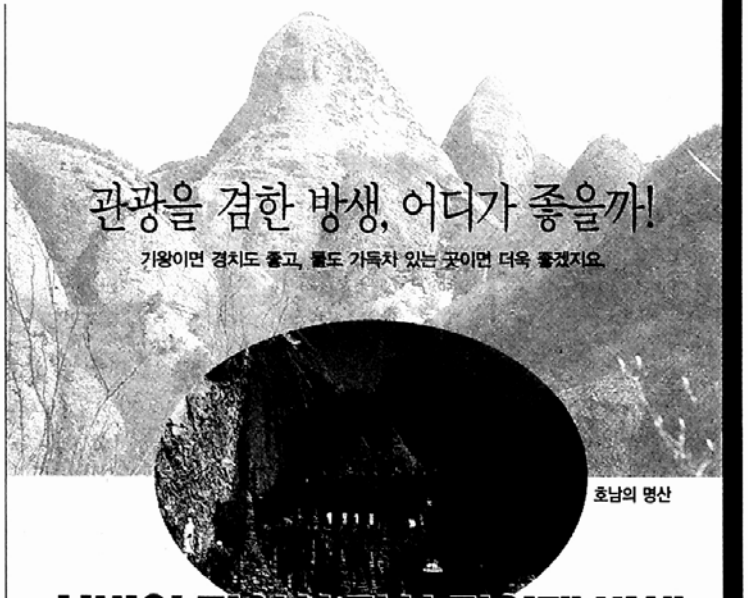


진현종 편저 / 혜영스님 감수
올컬러 / 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외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탑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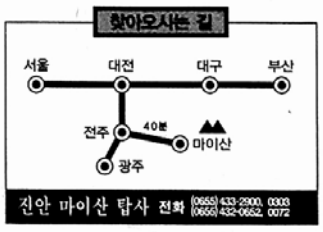
은행나무 전화(0213143-0651 팩스(0213143-0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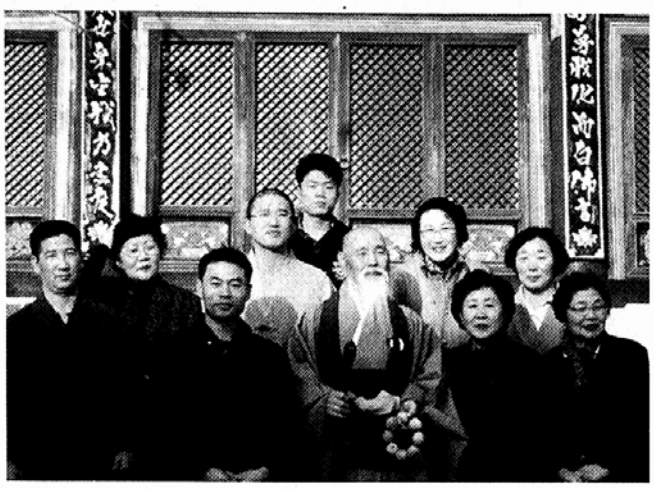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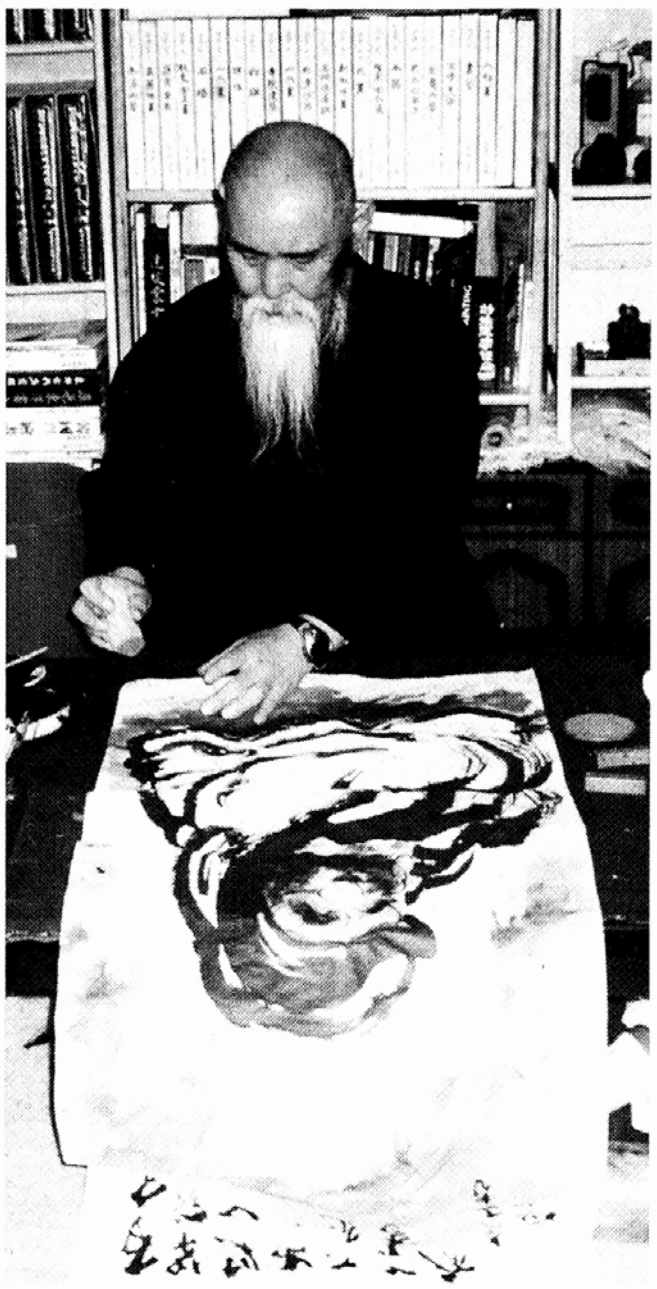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 433-2900, 0303 (0655) 432-0662, 0072



◇어느 봄날 해질녘 화엄스님이 경내를 산책하자 신도들이 하나 둘 모였다. 이왕 모인 김에 기념촬영을 했다.

'사회의 병' 치유 불자 앞장서야

"선수행은 정신문명 발전 동력"



◇지난 겨울 몸이 편치 않아 멀리 했던 붓을 다시 들었다. "진정한 예술은 부처님의 삶이겠지요." 요즘은 소림굴의 달마와 씨름한다.

를 계속 가졌으면 부와 권력을 얻었겠지만 정신의 대자유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유는 구도, 모든 새로움, 창조, 변화를 이뤄내게 하는 젖줄입니다. 불교만큼 자유와 역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와 요즘 얘기되는 NGO라는 것은 성격이 닿아 있어요.

어느 시기에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를 바라는 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의 관계가 팽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워낙 어려운 시대를 겪다보니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그러다보니 역동성, 변화하려는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어요. 최근에야 우리 사회에 역동성이 보이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이치는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 이웃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불교NGO라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과 함께 살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찰은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으니, 그 지역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회와 모임을 자주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찾고 맡기는, 그런 일을 절에서 먼저 시작해야겠지요.

—21세기는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단의 극복이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기 전에 분단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치유의 종교가 되어야 할 불교계의 관심은 너무 미미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생각이 다른 외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섭수와 절복이라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해결을 했으며, 당시를 사상적으로 치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백가쟁명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특수한 것은 있지만, 이제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30년, 40년 옥고를 치른 분들이나,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을 보낸다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하였으니 인간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국가가 그것을 침해한 적이 있다면 응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성숙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도 진정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불자들의 삶의 지남(指南)이라고 하듯,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을 중생들을 위해 회향하는, 그래서 불교는 인간다움을 찾는 '인권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지요.

▲앞에서도 부처님의 일생은 맨발로 상징된다고 했는데, 동남아 불교 나라에 가면 부처님 열반상이 많다고 해요. 발은 맨 밑바닥이고, 부처님은 맨발의 삶이었으니 마침내는 하화중생이지요. 인권이란 말이 서양에서 온 것인데, 사람답게 살자는 것 아니예요. 그러자면 최소한 먹고 입고 바람 눈비 막을 거처가 있어야 할텐데,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격식도 차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툼의 이치로 굴러가요. 그러니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 버렸고, 욕망 채우기를 삶의 목적으로 알아요. 중생계이니 사람들이 똑같이 재물과 지위를 나눠 가질 수는 없겠지요.

불교에서는 실유불성이라 했어요.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말인데, 이 말만큼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친 말이 또 있을까요.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서로의 불성을 북돋자는 것이잖아요. 실유불성이라는 가르침을 모르는 불자는 없을텐데,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툼의 이치로 산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아서 절에도 나오고 가족들 무사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생에 쌓은 선행의 덕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실유불성이라 했듯, 사람들은 물론 만물에게도 그들의 심성이 다치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님에게 그림은 무엇이며, 무엇을 담아내시려 하십니까? 예술은 삶의 올바른 길로 이르게 하는 유용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술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까요?

▲예술이란 별 것이 아니라 삶이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삶이 예술인 것입니다. 제가 붓을 들고 50년을 살아온 것은 산사에서 선을 하다 틈틈이 경전을 사경했는데, 그것이 습이 되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네가 그림을 그려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러한 삶이 좋아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부처님의 삶이겠지요.

—봄을 맞아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의욕이 생겨남을 느낍니다. 저희 독자들에게 봄맞이 잘 하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지만, 병 또한 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자리를 불국토로 만들어봅시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묘운스님 (下)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늙은 처사를 돌보겠다고 젊은 비구니가 나서자 모두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우선 은사스님으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졌다. 정신나간 년이라는 말도 들었다. 또래의 도반들로부터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묘운은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행자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서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모름지기 자비한 마음으로 지키고 간호하라(有病人 須慈心守護)"하지 않았던가. 그것뿐인가. 부처님께서는 병든 사람 돌보기를 자식이 부모 돌보듯 하라고 하셨다. 이런 대목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은사스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시로서는 대학을 졸업한 비구니스님은 드물었고 따라서 중요한 재원(才媛)이었다. 그런 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스님이 늙고 병든 처사의 병수발을 들겠다고 나섰으니 그것을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할 수 만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리라. 그리고 스님이, 그것도 여스님이 어찌 처사의 병수발을 하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절 집안의 관습이나 관행으로는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승과 속 초월한 수행자 삶
아름다운 향기 느끼게 했다

처음 그 처사를 돌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저 돌볼 사람없는 병자를 간호하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의외로 완강하게 반대하자 묘운은 아주 작심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오기가 생긴 거라고 해야 할까.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돌보자"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 처사를 데리고 절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가난하기 이를데 없는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부모님도 이제는 다 늙어 농사일을 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묘운은 여자의 몸으로 병든 처사와 늙은 부모를 돌보며 농사를 짓고 산 것이다. 그렇게 되자 스님이고 스님이 아니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내가 지리산 암자에서 비오는 날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묘운은 그 암자에 잠시 다니러 왔었던 모양이다.

결핵인가 하는 병을 앓았던 그 처사는 정성을 다해서 간호한 덕에 병이 나아서 몇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지만 묘운은 절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비승비속으로 살아온 그에게 절집은 이제 더 그를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것, 병들고 늙은 노인들을 한 두 분씩 모셔다가 살았다. 그것이 1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난한 살림에 힘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두가 부족했다. 하지만 노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이곳 저곳에서 얻어다가 먹었다. 그 일을 몇 년이나 계속하다 보니 그만 병을 얻어 열반에 들고 말았다고 한다.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변이 마려워 문밖으로 나왔다. 철우스님도 나를 따라 나왔다. 둘은 담밑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다. 마침 하늘에는 유난히 꼬리를 길게 하고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수행자가 돼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니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행자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승복을 벗었다고 수행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승(僧)과 속(俗)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수십년 절집에서 부처님의 밥을 축내고, 주지를 한다 무슨 벼슬을 한다 해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옷이 고급스러워지고, 고급 승용차에 운전기사가 굽신굽신 하면서 타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한다고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듯 그런 이를 수행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이의 옆에 서 있으면 속세의 구린내가 난다, 마음까지 역겨워 지는 것이다.



그림 · 문병성

반대로 소매끝이 낡아 실밥이 드러나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피었더라도 수행의 길을 올곧게 걷는 이에게서는 맑은 향기가 난다. 문향(聞香)이라는 말이 있다. 향기를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다는 말이겠는데 수행자에게서 나는 향기를 두고 하는 말일 듯 싶다. 그 향기란 코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향기일 테니까.

그렇다, 문향이었다. 그 날 울진의 포교당 객실에서 밤이 늦도록 철우스님에게서 들은 그의 누님 묘운의 이야기는 듣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했다. 방안 가득 향기가 배어 있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 있었다. 아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내 몸에 배어 있다. 좋은 향기란 한번 말으면 일생을 가는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지, 그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향기, 옛 스님들의 향기는 시공(時空)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우리가 맡을 수 있지 않은가.

◆◆◆ 목 재 전 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부 · 방충 · 방염 · 방수)
효과
◆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통기성(Breathing) 양호 · 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취 - 급 - 품 - 목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퇴색 방지 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석재 석탄 세척제
특구조주택 보수 문의 환영합니다.
ⓒ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 02)3474-6232(代) FAX: 02) 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누구나 바로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Reiki)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레이키법은 기공수련을 한 일이 없는 분도 그날부터 氣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세계 유일의 氣능력자 (氣치료능력자 · 氣응용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튠먼트는 소주천을 여러 해씩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주천의 우주 기운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이키 에너지(氣=우주생명에너지=빛=파동=자비=사랑)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생활환경을 포함하여 사람,동식 물,생활용품,부적등 형상에너지 물품, 광물 등 만물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 요법과 여타의 氣치료법의 다른점
① 자기가 자기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힐링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
② 원격 치료를 식은 죽 먹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③ 단 한 가지 치료방법으로 수 천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치료방법이 간소하다. 따라서 누구나 그날로 치료법을 배울 수 있다.
④ 환자와 치료가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치료가의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나(박희준)의 자격
저 박희준(朴熙俊)은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 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냈지만 氣치료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997년부터 레이키법을 만나 외국의 여러 레이키스쿨에서 다채롭게 레이키법을 전수받은 결과 이제는 굴지의 능력 전수 능력을 가진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습니다.이제는 이런 토대위에서 한국적 레이키법을 독창적으로 체계 세우는 일을 차근 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레이키법을 전수받기를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 사업 종사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 ·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요 70만원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 · 카루나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잠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흥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붕제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흥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를 및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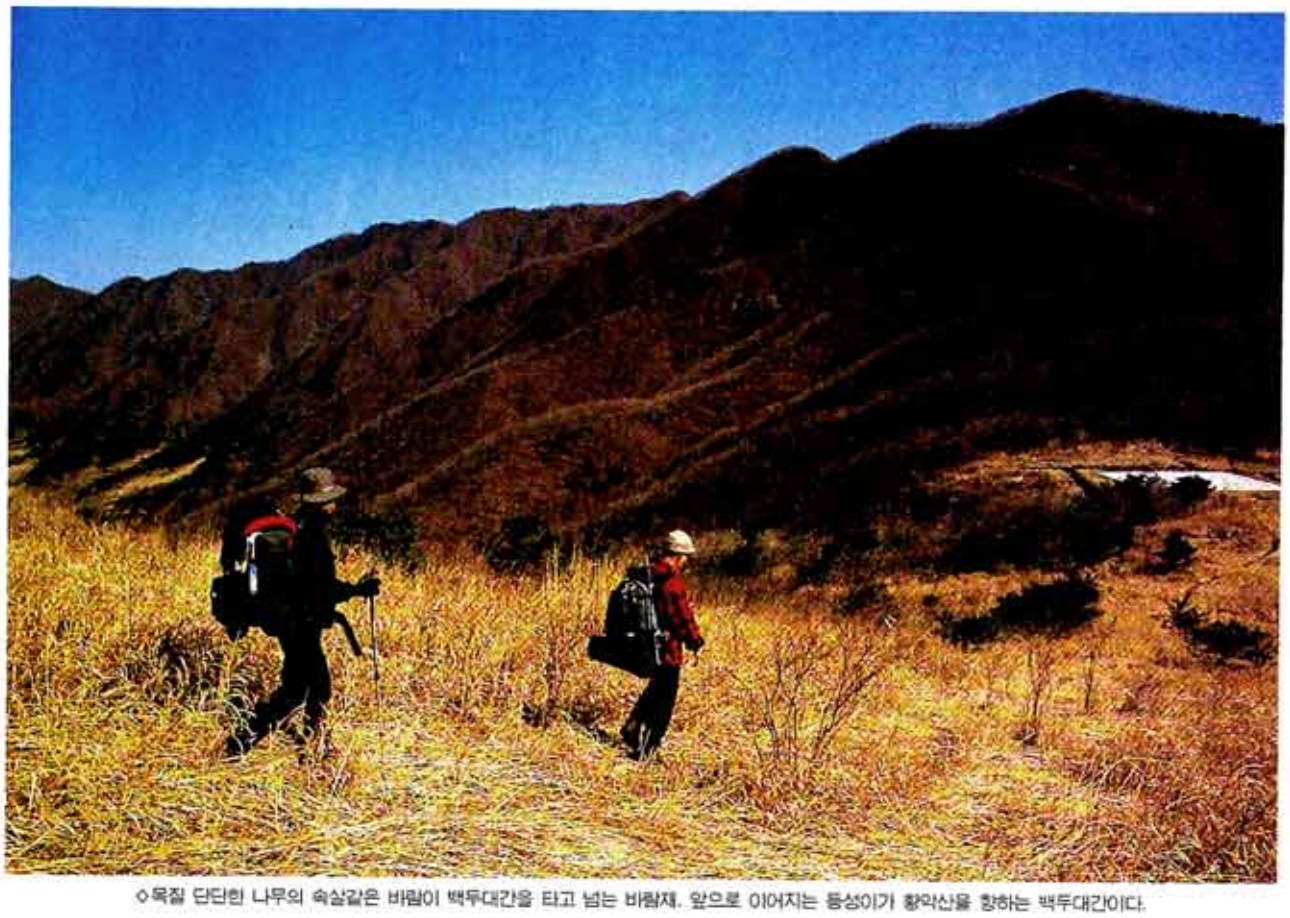
눈은 하늘로 봄은 고양이 걸음으로

백두대간 속으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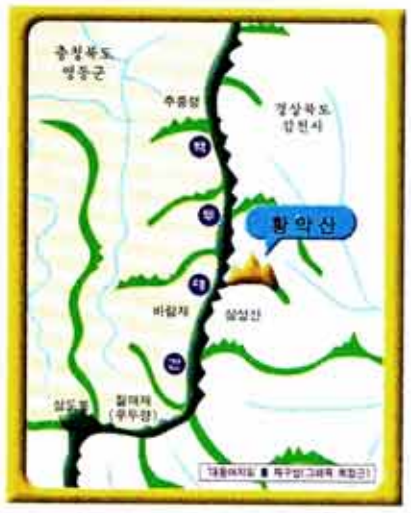
삼도봉→황악산

임춘 경칩 다 지나서, 마음 속엔 벌써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데, 산봉우리엔 아직 눈이 남아 있다. 아니, '남아 있다'는 말은 온당치 못한 표현이다. 내려올 때보다 더 조용히, 하늘 저 깊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봄은 고양이 걸음으로 온다.

이렇듯 자연의 순환은 은밀하고도 섬세하다. 따라서, 이 즈음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계절의 교대라는 엄숙한 자연의 제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봄 산행은 야단스럽지 않아야 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만치 오던 봄이 화들짝 놀라 달아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목질 단단한 나무의 속살같은 바람이 백두대간을 타고 넘는 바람재. 앞으로 이어지는 등성이가 황악산을 향하는 백두대간이다.



화주봉-일망무제로 탁트인 경관 '일품'
바람재-밀도 높은 바람에 속진을 털고…

삼도봉을 지나 삼마골재에 이르러 물한 계곡을 부려놓은 백두대간은 다시 허리를 틀어올려 곰길인 양 아득한 등성이를 첩첩이 이어간다. 이곳에서부터는 전라도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추풍령을 지나 국수봉에 이르기까지는 좌우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끼고 간다.

삼마골재에서 질매재까지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이어지지만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밀목재에 이르기 전에는 마치 오던 길을 되짚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어 돌아야 하고, 화주봉(1,207m)앞 암봉(1,175m)을 지나서는 깎아지른 듯한 암릉을 조심조심 내려서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봉우리 다 조망이 탁월하므로 오르내린 수고의 몇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화주봉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질매재 쪽 등성이뿐 아니라 뒤로 민주지산의 연봉을 비롯하여 덕유산, 덕유삼봉산, 초점산, 대덕산에 이르기까지 오던 길을 찬찬히 되짚어보게 한다.

산행의 즐거움 중 으뜸으로 꼽을 만한 것이 바로 조망(眺望)이다. 대롱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일망무제로 펼쳐지는가 하면,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정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권형한 인간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는 더없이 훌륭한 스승이다.

특히 백두대간 위에서의 조망은 흡로 우뚝선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현격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등줄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가지치며 물을 가르고 땅을 나누어 이 민족을 거두어 왔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 서야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유기적이고도 입체적인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화주봉에서부터 질매재까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질매재(730m)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과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을 넘나드는 고갯마루인데, 우두령(牛頭嶺)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이 고개의 생김새가 '질매'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질매'란 소 등에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 때 안장처럼 얹는 물건인 '길마'의 이 고장 사투리이다. 이런 고개 이름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자화하면서 생겨난 이름인 '우두령'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조차 별개의 곳인 양 표기하는 것은 빨리 바로잡혀야 할 일로 보인다.

질매재에서 동쪽으로 휘돌다가 다시 북쪽으로 허리를 곧추세우는 오름길은 저물녘에도 햇살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권안하다. 방긋 웃는 봄꽃과 도란거리며 걸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이르다. 계속 오르면 바람재로 내려서기 전에 봉싯 솟아 사방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삼성산(985.6m)에 이른다.

말만 들어도 한 무리의 바람이 거침없이 안겨들 것 같은 바람재(810m)는 말 그대로 바람의 길이다. 이 곳의 바람은 도시의 바람과는 밀도가 다르다. 수백년 켜를 다져온 목질 단단한 나무의 속살 같다고 할까. 아무튼 고개의 주인이 바람인 만큼 사람들은 거저 온몸을 내맡겨 속진이나 달여볼 일이다.

이 고갯마루에는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에서 올라오는 임도가 닦여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넓따란 헬기장과 미군들이 주둔하다가 버리고 간 벙커, 김천시에서 세운 무선 통신 중폭 안테나까지 세워져 있어 황량함을 더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가끔씩 바람재에는 전국의 아마추어 무선사(HAM)들이 무전기의 성능 시험을 하기도 하고 미국이 개입한 국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미군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름값만큼은 톡톡히 하는 셈이다. 바람재에서 황악산 정상인 비로봉(1,111m)까지는 다투어 오르지 않아도 한 시간 남짓이면 된다. 형제봉(1,020m)에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서면 바로 그 곳이다. 동쪽으로 산자락이 다한 곳에 418년(신라 눌지왕 2년)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개 들어 먼 눈길을 주면, 톡 트인 시야로 김천 시가지는 물론 추풍령을 향해 내달리는 경부고속도로도 들어오고, 금오산과 가야산도 가늠이 된다.

황악산(黃嶽山)의 이름 내력은 딱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만분의 1 지도에는 황악산(黃嶽山)이라고 적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 택리지 같은 문헌에는 황악산이라고 적혀 있으니 황악산은 분명 오기인 듯하나, 산의 모양새로 봐서는 '악(嶽)'자에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산 자체가 흙산인데다 봉우리 또한 두리뭉실하니 말이다. 그러나 속리산과 이 산 사이의 형세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리뻗은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지나서 황악산에 이를 때까지는 이렇다 할 산을 솟구쳐올리지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속리산과 황악산 사이에는 1천 미터가 넘는 산이 하나도 없다. 물론 높다고 두조건 명산인 것은 아니지만, 명산이 갖출 요건들인 수목, 계곡, 물, 형세 따위에서 싹 내세울 만한 산이 없던 차에, 자태도 우람하고 그윽한 계곡도 품에 안은 황악산을 만나고 보니 주지없이 '악'자를 붙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다.

황악산 정상에서부터는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속도에 적당히 제동을 걸기만 하면 직지사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닿는다. 내쳐 올라서면 여시골산으로 향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면 직지사다. 갈길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진짜로 여시가 나타나 아홉 꼬리로 홀리더라도, 이곳에서 직지사를 둘러보고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차례에는 직지사를 찬찬히 둘러볼까 한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418년(신라 눌지왕2) 아도(아도화)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직지사 대웅전. 대웅전 앞의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물 제606호다.

인물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6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 · 노랑 · 연분홍



팔모주름등 (핑크)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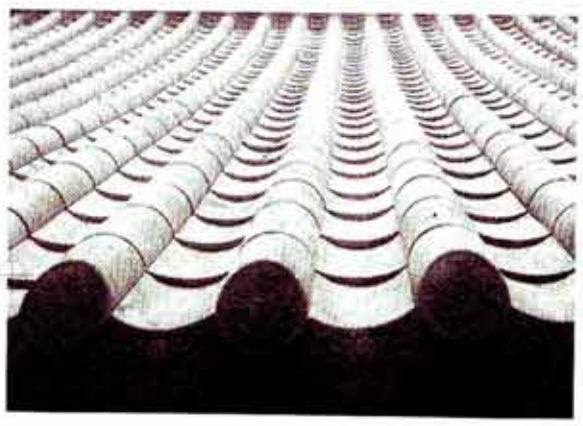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식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청동 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 성공

2000년 3월 27일 KBS 2TV 저녁 8시 55분
체험 삶의 현장 방영 〈재방송 4월 1일 일요일〉



주요시공내역

1995년	3월	경남 함안 안씨문중 제각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청련암) 대웅전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제각 시공
1997년	5월	정릉 영각사 대웅전 시공
1997년	3월	경남 양산 법수원 시공
1997년	5월	인천 문수암 시공
1998년	8월	서울 상계동 선각사 시공
1998년	11월	안산 화림선원 시공
1998년	11월	설악산 오색석사 시공
1999년	4월	영양 계은 동천사 시공
1999년	6월	신장 선법사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실용신안 9119053 호 모방할 수 없습니다

재래식기와의 무거운하중(평당600Kg ~ 700Kg)과 잦은 동파 및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평당 200Kg)으로 중량을 대폭감소 하였으며 천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리, 주석, 아연을 합금하여 만들었으며 전통방식(점토, 백토, 생석회 다짐)으로 시공합니다.

우영기업

본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청동주물기와사업부 : 02)473-1958 02)474-1550
한식동 기와 사업부 : 02)478-210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나 하나 버린다면 붙을게 전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세세생생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이는 날은 바로 에너지 창고에 같이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마련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참선방에 가서 참선을 따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구는 그냥 쉴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체가 공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봤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해서 망했다고 하고,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옴도 그렇고 모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착입니다.

말하자면 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겁이 이렇게 착이 누진된다 이거죠. 즉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넘치도록 비질 않는다. 우리한테 닥쳐오는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과성 영계성 이 모두가 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착이 없다면 그냥 다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겁겁이 착이 있는데 모두 공했다는 걸 모른다면, 겁겁이 천차만별로 쌓이고 쌓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해서 나도 공하고 해도 함이 없구나, 함이 없이 날아다니듯 그냥 살고 있구나, 사는 사이 없이 살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갖는 사이 없이 갖고, 모든 게 이렇구나, 그런 걸 아시고 나 하나 버린다면은 아무 것도 붙을게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급한 일을 할 때 내가 했다는 말은 없어도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 나가는 앙금의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다는 생각도 또 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도 알았다고,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 내면 속의 다보탑이라는 한줄의 자리는 바로 움죽거리지 않는 자불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법당이 되고 그 법당안에는 다보탑위에 자불이 계시다. 그 아미타불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태양과 같고 즉 말하자면 에너지 창고와 같고 벌빛같죠. 온화하게 안해주면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와 흙과 모든 게 겸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방편으로 아미타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글자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자 그러구선 그냥그냥 텀벙텀벙 사세요. 도가 별난게 도가 아니라 텀벙텀벙 사는 게 그냥 도입니다. 뛴다는 생각, 땅이 질다는 싱각, 뭐 좋은 자리다 이런 것도 아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내 앞에 걱정거리가 닥쳐오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기가 퍽 쉬운데,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붙을게 없는데, 버린다는 생각 없이 버리면 너무나 좋은 것을, 나 하나 버린다면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화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내가 한다고 하고 자만을 부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따져서 시비를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너는 악한 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건 꼭 악한 일을 하고야 맙니다. 네가 얼마나 선한가 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악하더라도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 이건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불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99%가 부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말입니다. 이 공한 도리와 내가 없는 도리와 내가 한다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 것을, 그럼 왜 편리하냐? 금방 구정물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구정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큰일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금방 맑은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것 뿐이 아니죠. 일체를 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이 없이 하고 사는 것도 내가 없이 살고 있다 이런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내 생각이 부처와 둘 아니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실 때에 진짜 여러분은, 몸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탔다 안탔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치의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모두 살 양으로 애를 쓰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안치게 해달라고 빌고 배가 안 뒤집히게 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공했다는 도리를 알면은 그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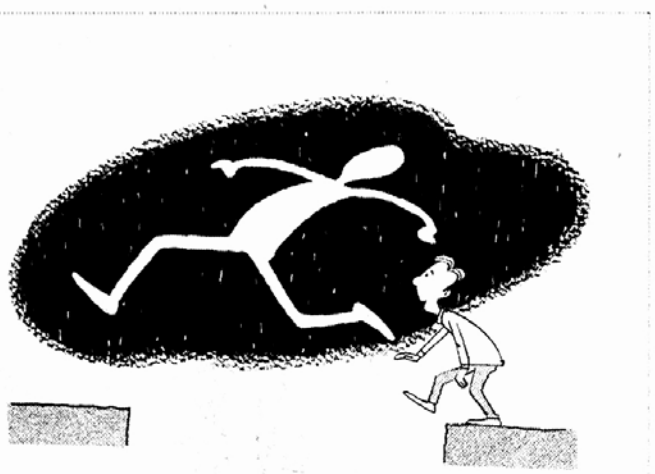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만명이 깨달아도 부처는 하나
자불을 아는 게 곧 꼭도리 아는 것

자기는 움죽거리지 않아도 자기의 선장이 그냥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1초도 안 걸리고 멀다 가깝다 말도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면 자부처님들은 그렇게 생각으로서 이 육체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살로 화하게 만들어서 전부 응신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첫째 싸움이 없으니 병이 안걸리죠. 싸움이 없으니 또 화목하죠. 이 몸이 화목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면 가정이 다 편안한 겁니다. 어디 한쪽이 아파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공부로 알고 공한 도리를 안다면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그것이 어디서 왔나 하고 분잡하게 야단하지 않고 편안하단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병도 병이 아니라 그냥 공부죠. 아프지 않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묘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조금만 아프다 해도 벌써 그냥 사방 팔방으로 이거 죽었다 하곤 야단을 하죠. 이 모습이 차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고장이 났으면 이거 누가 고칩니까? 그 주인인 운전수가 고쳐야죠. 딴 사람이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쳐야죠. 그러니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고쳐 줄까봐 그렇게 야단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마음이 야단을 하니까 몸이 더 아플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떡해서 그런가 하고 산란하겠지만 모르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럭하다 보면 알게 될겁니다.

수만명이 깨닫는다 하더라도 일불이요, 그 일불마저도 공했으니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가 어딨는고 하고 몰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데 시급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니지마는 우리가 살았다 하고 내세울게 없는게 뭐냐 하면 지금 모두가 살아 나가는데에 이 지구라는 그릇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한 그릇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먹을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지수화풍이라는 근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에도 가지고 있고 그 모습 속에 주장자인 내 불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 하나만 잘 하면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할게 뭐 있습니까? 한철 살다가 모습을 훨훨 벗고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한철 살게 되는건데 뭐이 꼭 살아야만 하고 안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도 종자가 있으니까 나올 것이고 종자가 커질 것이고 유명해지겠죠. 물론 종자 나름이지만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꼭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남이 하는 것도 보고,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다 완성시켜 주는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이듯이 부처님께서도 한데 모이는 날이 있죠. 여러분이 계시면은 다 모일 때가 있죠. 이렇게 모이는 날 부처님은 다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는 날은 안 계신가? 그게 아닙니다. 모이든 모이지 않든 부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모든 것이 고정된게 없지요. 보는 것도 이것 보고 딴 거 보죠. 듣고 또 딴거 듣지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죠. 이거 하고 또 딴거 움죽거리죠. 이렇게 돌아간단 얘깁니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찰나찰나입니다. 그러니 항상 누진 컴퓨터에다 맡겨라, 맡겨서 입력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앞에 입력이 잘못된 거를 없애려면은 새로운 입력을 해야만이 그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저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사시면서, 지금 모습을 나쁘게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편안하게 가지고 나와서 자유스럽게 사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일을 할 때도 원하면은 같이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산돼지들을 만났는데 앞다리가 짧아서 허덕거리고 빨리 못뛰니까 잡아먹히고 그러는 걸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낮아서 한생각을 못하니까 진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속에 이 마음의 보살들이 응신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셔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끔 해놓으시구선 나오셨단 말입니다. 가끔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살행을 하느냐가 다르죠. 현대과학은 기계가 있어서 하는 거고, 보살은 마음으로 하죠.

6·25 사변이 났을 때 보니까 기계든 의사든 모두 소용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고 뭐 어쩔 수가 없이 되더군요. 하다못해 스님네들도 부처님을 하나도 안 가지고 버리고 그냥 가시고요. 원효대사도 말씀 하시기를 부처님은 무거운데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염주도 왜 걸고 다니느냐, 목탁은 무거운데 왜 들고 다니느냐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니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에 아무 때라도 목탁 칠 수 있고 염주 돌릴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옳다 그르다 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까 저게 진정 옳은 말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공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야 합니다. 지구라는 주머니 속에는 생명이 살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생명도 생기고 아주 더러운 생명도 생기고 모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르고 옳고가 어디 있습니까? 차원대로 사는데 우리도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으로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상을 잘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진화해서 형성되었다는 걸 아시고 수천 수만년으로 거쳐서 이렇게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고양이 몸을 받았다면 고양이로 살던 습이 남아서 고양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양이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살면서 생각을 했더랍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렇게 내 모습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깐 모습은 고양이더라도 행하는 거는 사람과 같이 행하고 살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주인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어서는 그냥 다음 생에 형제로 태어나서 잘 살더랍니다.

그러한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아주 미묘한 공부이기 때문에 공기주머니 안에서 살던 이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스럽게 에너지 주머니를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서천국의 아미타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에 속합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마는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서 내면에서 배워야 하고, 또 두번 깨달아서 그 공법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세번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다 나눠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이 공부하실 때에 침착하게 착이 안되도록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 하고, '여보' 하면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서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죠. 아버지 노릇하고 금방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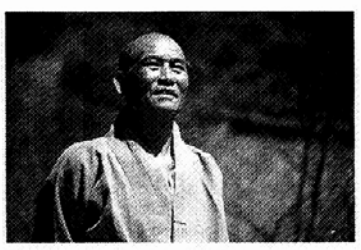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35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즉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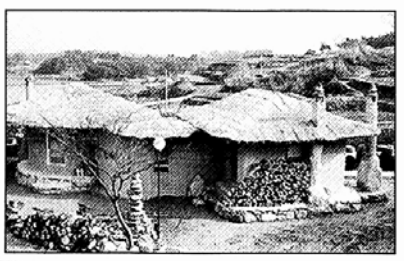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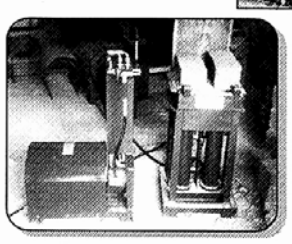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법공양 페이지

공한 도리 알면 아픔도 괴로움도 없죠

☞ 15면에서 계속

또 딴 일로 움죽거리죠. 그렇게 하시듯 사세요. 모든 일체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상사가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자1: 청주지원에서 온 신도입니다. 큰스님의 하해와 같으신 대자대비하심에 감읍할 따름이오며 금일 이와 같은 설법 회상에서 감히 법을 청하옵게 됨을 세세생생의 은혜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광명선원을 비롯해서 제주지원 그리고 진주지원 등에 한마음 탑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지원에서 확산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장묘제도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게 되는 커다란 의식전환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협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화장의 타당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최근 서울지역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매장보다 화장하는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섰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묘제도와 관련해서 몇가지 법을 청하옵니다. 첫째는 화장을 해서 한마음영탑에 모시는 경우가 되겠구요, 두번째는 화장을 하기는 하되 그냥 일반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있구요, 세번째는 종전의 풍습대로 화장을 안하고 산소에 모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어떤지요?

스님: 예전에 큰사찰에서는 스님네들이 열반하시면 꼭 화장을 했습니다. 다비식을 했죠.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서도 공하고 죽어서도 공해서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에 집착을 하고 땅에다 묻습니다. 마음 공부를 안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삼혼이 있다고 합니다. 살던 집에 하나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고 하나는 산소에 갑니다. 살았을 때 먹는다, 입는다, 산다에 애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애착에 잠겨서 영 움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령들이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고생하는 거와 영령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와 둘이 아니죠. 또 그렇게 떠돌다가 어떡하든지 살 양으로 개구리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하기 되죠. 모르니깐요. 눈이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무의 법 유의 법을 동시에 둘 아니게 알면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못보니까 집착을 했던 뜻으로만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짐승으로 살면서 살던 습에 또 잠겨서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습만 남게 되죠. 짐승이 사람으로 되기는 참 어려운건데 그렇게 산소에 매달리고 몸뚱이에 집착하고 먹고 입고 살던 것에만 집착하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납골당이라고 하는 데에 모셔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탑에 모시는 거와 뭐가 다르냐. 탑에 모셨다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한 사람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탑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어떡하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처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전부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불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장소란 말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시비 없어야 편리하게 살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하신 분이 탑으로 모셔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평소에 염불만 하셨다면 염불소리 듣고 몰려가서 염불만 하고 그러겠죠. 이게 다른 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게 되는 건데 말이죠. 이 마음공부하면서 탑에 모시게 되면 항상 영령과 둘로 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와 같단 얘기죠. 뭐든지 같이 하니까 합이 없이 하는 거죠. 합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자식을 안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서린 마음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한다, 공심으로 산다. 또 공생이다 하는건 종자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산다.

모두가 이렇게 탑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본래 착하게 살다가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안했어도 그냥 훌훌 벗고 떠나십니다. 떠나서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깐 무슨 공부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같이들 모이죠. 이런 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이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마음공부해서 벌써 먹는거 입는거 또는 모습이서는 나는 큰집에 살고 있다 그러시면서 무척 좋아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아직 영탑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산소에 모신 신도님들의 경우에는 가끔 꿈에 조상님들이 큰집을 사달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탑을 보고 하는 얘기로 생각되는데 과연 큰집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스님: 우주를 전체 합하면은 큰집이 되지요. 이게 지구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체는 그냥 있어도 마음이 가는데는 저 다른 혹성에를 한 찰나에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전부 한 울타리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한도량이죠, 한도량이기 때문에 큰집이 되지요.

질문자1: 세번째는요 유골함에 화장유골을 약간만 모시고 위패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골을 전부 모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님: 유골을 전부 고신다 하면은 이 공부를 영 안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산소에 그냥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손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탑에 모시는 것과 안하면서 탑에 모시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 그 탑에다가 뼛가루 넣는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보죠.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세 번씩 요렇게 손으로 꼭꼭 집어서 이렇게 넣으시라 이런 거는 공부들 못하셔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한해서 만이죠, 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마음이라는게 허공에 꽉 차 있다면 큰집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고생이라기보다는 진짜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고생이 아니죠. 이 공장에서 사람이 돼 가지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좀 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나를 생각한다면 만약 지구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 해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죠. 살아온게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뛰어 넘어 갈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딴 세상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탑에 모신 분들은 우주의 관리인이 된다든가 전부 보살로 되시죠. 편리하게 자유자재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거 해야겠다 하구 하는 거죠. 모두 알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질문자2: 큰스님 감사합니다. TV에 보면 매주 수요일에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보면 마음자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는데 밖으로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같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과 깨달으신 분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스님: 피눈물이란 깨닫지 못한 데서 피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우를 이렇게 따져 볼 때 수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입니다. 아픔이 보이면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살펴 보면은 이 지구에도 살아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32평이라면 32평에서만이 살게끔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발전이 돼서 다른 데를 좀 개발을 하고 살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 걸리는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없는 천차만별의 문제가 죄 아픔은 갖다 주겠죠. 그럴 때 힘이 없는 사람은 울고 있겠고 힘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네들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순간 말입니다. 좀 더디고 빠르고 이런 건 있어도 도와지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들 사랑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은 정말 모르고들 살죠. 그러니 그저 보는 순간에 건져진다는 것만 아세요. 허허허 그러면 눈물이 덜 나올 겁니다.

질문자2: 지금 보통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깨달으신 분들의 그 한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해주십시오.

스님: 네, 깨닫지 못해서 바깥으로 아둥바둥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는 진짜 결정이 아닙니다. 이 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결정을 다 해 놓고 나서 보이는 모습이 결정해서 일을 하면 참 쉽죠, 재미있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일을 진짜 모르시고 아무렇게나 결정을 지어 버리죠. 이 지구도 반은 물에 잠기고 반은 물 위에 떠 있죠. 그것처럼 사람도 반은 정신계에서 움죽거리고 반은 물질계에서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 50% 정신계 50%가 합쳐서 100%로 하나로 수레가 돌아가야 될텐데 반만으로 결정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질문자2: 감사합니다. 발원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견성하는 그 날까지 큰스님의 성체 건강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스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죽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 계시면 그냥 여러분으로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있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같이 더불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편리하게 모쪼록 앞으로 잘 사셔야 합니다. 주장자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계신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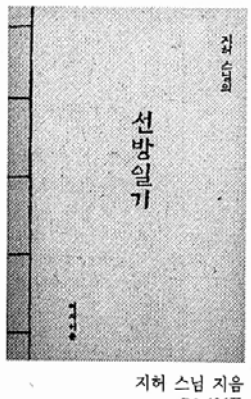
※위 법문은 2000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믿음과 만족을 드리는 동천 황토마을
황토방 흙벽돌 제조 · 판매
황토방 시공전문
대표 이 해 구 합장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10번지
0594)867-1988,4037

강좌

범통 범음 범패 수강생 수시 모집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5시
기간 6개월
■초심반: 각단 예경의식
■발심반: 각단 불공시식 의식
■자경반: 사십구재의식 및 영산재
■연구반: 바라춤 승무작법 사물일절
대한불교 남파종문회 범음 범패 연수원
051)332-0289/018)398-3022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철학 강좌
사주, 관상, 작명, 부적
▶ 초급반, 고급반, 개업반
▶ 강의시간 1교시:11:00부터
2교시:14:00부터
3교시:16:00부터 (월~금 주5일)
▶ 스님직강 3개월 완성(월 8만원)
※ 사주보실분 (1만원)
관천불사관
☎ 02)946-0078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0638)432-0837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승적번호 : 10-672
◇주 지 : 김 운경
◇법 명 : 김 범석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산91-1번지 **화엄사**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3. 10

탈 종 공 고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1
◇오색석사 (성국사)
◇주 지 : 황 운영 ◇법 명 : 학루(해명)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선학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3. 10

구인구직

모십니다
스님들이 야생사철쑥과 자연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 식품을 전국에
공급하고자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하실 처사님이나 보살
님을 모시고자합니다.(20~55세)
※ 사무직(서울거주자)모집
02)988-4773

경관 수려한 서해 바닷가 사찰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55세이하)
안면암
0455)673-2333

금강암 청년회는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기법회 : 둘째 넷째 일요일
■위 치 : 범어사에서 300m 떨어짐.
051)508-4509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한증)
■스님질환 전문
051)508-4509
018)455-7029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가정집 김밥 전문
■서울,인천근교
■ 방생법회, 성지순례 및 각종 법회(행사)시 주문 환영
※ 2일전 주문 바랍니다.
신따라 물따라 김밥
02)736-0368 (주간)
032)464-1461(야간)

사찰안내

사찰부지 안내
◆위치 : 거제도 장목면
(거가대교 입구)
◆부지 : 270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60평
◆특징 : 뒤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와 해수욕장이 있음
◆가액 : 3억(절충가능)
0558)635-3891
017)560-4227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공주시
◆부지 :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2채, 방4개, 욕실, 화장실(수세식), 입식부엌식당 15평 새건물 지붕 콘크리트(스라브집)
◆특징 : 고찰로 석탑문화재가 있고 연꽃이 있어 주위경관이 좋으며 석수물 양호, 개인등기 有
◆가액 : 5천 8백만원
0416)853-7512 / 011)225-6387
0342)758-6387

사찰 안내
◆위치 :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자락
◆대지 : 1600평, 법당등 50평
◆도로 양호, 신림 IC에서 1.5km
◆가액 : 1억 4천만원
◆위치 : 영월군 수주면 엄둔 천하절경
◆대지 : 800평, 건물 40평
◆사찰형태 고건물 신축도로 계곡양호
◆가액 : 2억 5천만원
017)374-5388/02)663-4939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법당 : 15평
◇요사 : 30평
◇부지 : 250평
◇가액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 건물 : 법당및 요사채 50평
◆ 대지 : 50평
◆ 가액 : 6천만원
◆ 위치 : 강원도 정선
◆ 건물 : 법당(목조), 산신각, 요사
◆ 대지 : 250평
◆ 가액 : 9천만원
해동불사 0418)533-8636
017)705-65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9천
◆ 특징 : 포교도량 최적지
(준도시 형성됨)
0595)883-2448
011)831-4712

사찰 안내
◆위치 : 울산 언양
◆대지 : 7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5, 공양실16평, 욕실2개, 화장실2개
◆가격: 8천만원
◆실공사비 1억 3천만원 들었음.
052)254-1969/254-1929
011)9525-1969
※인연이 되시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건물 : 법당 大1,
요사채1(방1, 부엌1)
◆평수 : 대지 20평
◆가액 : 전세 1,300만원
011)491-1247
053)653-4846

사찰 안내
◆위치 : 조치원 시내
(국민회관 맞은편)
◆평수 : 24평
◆가액 : 2천만원(전세)
0415)867-2481
011)819-4113

사찰 안내
◆위치 : 창녕군 부곡 온천 5분거리
◆대지 : 130평, 법당10평, 산신각, 미륵부처님외 요사채30평 슬라브
◆가액 : 6천 7백만원
0551)231-5778
017)310-6482

포교당 안내
◆위치 : 구리시내 포교당
◆평수 :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부대시설 완벽함
◆가액 : 답사후 결정
※ 인연 닿는분에게 무조건 인수인계함
011)751-7960
(스님 직접)

사찰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평수 : 422평
◆특징 :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산속 평지 도로완벽 건축허가필
◆가액 : 3천만원
0563)337-5156
011)9857-5156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 건물 : 법당 목조12평,
산신각4평 요사채 13평
◆ 대지 : 97평
◆ 월세부지 240평 (1년 80,000)
◆ 가액 : 6천만원
0418)533-8636
017)705-6531

토지(옛절터) 안내

◆위치 : 경북 영천 근교
◆평수 : 약 1170평
◆특징 : 동국, 천연약수, 관음보살, 탑등, 신속 맑은 계곡 옆 차량진입가능
◆가액 : 5천 5백만원
053)982-4976
011)813-3679

고불청동불상

◆약600년전 추정
◆관세음 보살님상
◆청동 가로35cm
, 높이 55cm
◆무게 약 40kg
◆구입가 3천만원
◆매도가격 500만원
053)982-4976
011)813-367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지 70평 건평100평
◆가격 : 3억 5천(융자포함)
◆특징 : 현대식 2층 건물의 도심 사찰로, 아파트 밀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도심 포교지로 적지임
◆남양주, 강릉, 마산, 김천, 동해, 서울 부산 인근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동진불사 서 울 02)3666-9020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하동
◆부지 : 300평
법당25평(단층), 요사 40평
◆가격 : 2억 5천만원
◆특징 : 고찰로 국보급 석탑문화재가 있고, 주위경관이 수려하며 기도처로서 적지임.
◆수원, 청평, 사천, 하동, 진주, 음성, 진천, 함양, 창녕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동진불사 서 울 02)3666-9020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토지(산) 안내
◆위치 : 성주군 선당면 도성리 산610 (인가 근접)
◆특징 : 도로변에 근접해 있어, 차량진입가능
◆가액 : 1억
0546)473-9153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영주시 단산면
영주시내에서 7~8분 거리
◆평수 : 790평
◆산세좋음
◆가액 : 3천 2백만원
0444)423-7462

포교당 안내
◆위치: 울산시 아파트 밀집 지역
◆건물: 2층 42평
◆가격: 전세2천 (월 30)
◆권리금 · 시설물:1,700만원
011)429-0222

포교당(법당) 안내
부산시내 최요지 상권중심
◆삼존불(아미타,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 방2칸, 큰거실
◆총55평, 옥상사용가능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전세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889-7141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건물 80평, 입야 4천5백평 , 방11개
◆가액: 2억 5천 (절충가능)
◆안대수려, 차량진입, 수질양호
※ 부전스님 모십니다.
0591)746-2478/011)830-288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충주시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대지 : 150평
◆건물 : 법당 25평(목조), 요사채90평
(시설완벽함)
◆산새좋고, 청정도량임.
◆가액 : 4억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정부3청사
승용차 10분거리
◆대지 : 70평
◆건평 : 150평
◆도솔산 약수터 밑 도심속의 숲속공간
◆가액 : 2억 5천만원
017)672-2157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쌍책면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
(방3개, 입식부엌)
◆ 대지 : 78평
◆ 가액 : 3천만원
053)312-5689
※ 공양주 구함(조용한 절)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200평
◆ 22평건물1동에 소법당, 방1칸
◆요사채 25평 건물1동에 방2칸, 마루, 화장실
◆요사채12평 1동에 방1, 부엌, 주방, 나무땜
◆용왕당, 창고1, 주차장, 화장실
◆특징 : 산자수려하고 물이 음양수로 나와 청정약수가 나오며, 사찰 길은 주위 장애물 없이 단독 산속으로 절 도로만 되어있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594)862-6199/ 011)831-4712

토굴(급) 안내
◆위치 : 지리산 계곡(암자터)
지리산 실상사→마천방향 15km → 한남마을옆 장터목 산장에서 산길로 1.5(장터목 산정에 문의)
◆대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12번지 외 산필지 707평
현재 논 휴양지 준농림지 계곡 옆 남향 마천면 군자동 임야 600고지 산필지
◆가액 : 2천만원
0597)963-4695
011)9542-9060

대가람(사찰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85 진위사 성취선원 불지촌
◆ 대가람(사찰터)총30필지 15만평 원하는 평수만큼 분할가능
◆ 대지6필지 1600평, 건물 요사채 130평(옥실 화장실 완비된 방22개 기타 6개) 식당 60평, 가법당 330평, 굴법당 100여평(굴길이 84m 좌우석실 7개), 기타 60평, 전기170kw 지하200m이상 암반수 3곳, 지하수 평평!! 서울 강남에서 40분, 오산IC에서 10분 2002년 개통전철역 5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남부, 주산 주봉을 포함한 대가람터
◆ 계약금조로 3~5억 받고, 소유권 이전해 드림.(단 안정장치요망) 나머지 금액은 불사하시면서 년부상환 "뜻 맞으면 천하도 반분한다"는데 보시 못할 이유도 없지요, 잘만 하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0333)662-6677 FAX 0333)663-6677
011)264-6677 011)392-6689

불자 세상보기

인륜마저 무너진 교실

학생이 교사폭행 잇달아… '왕따'도 계속

세상에 이보다 더 개탄스런 일은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계속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왕따' 현상도 계속해 늘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경북 모 여고에서 일어난 한 학생의 교사 구타사건은 충격적이다 못해 비애마저 느끼게 한다.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찼다니…. 학교가 배움의 터전이 아닌 패륜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서울 모고교에서는 인근 고교생 4명이 친구의 졸업식장에서 밀가루를 뿌리려다 만류하는 교사 3명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지난해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나무라는 교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이 있었고, 대구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꾸짖는 여교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대도시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에는 지난해부터 학생이 교사를 집단 구타하는 내용의 게임 '캠퍼스 블루스'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 99년도 77건으로 2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5만5천6백여건) 중 집단따돌림이나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호소한 학생이 39%인 2만1천7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8년(1만7천8백여건)의 1.2배, 97년(6천9백여건)의 3.1배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담학생 중 9백여명은 우울증·품행장애·학습장애·약물 오남용 등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특별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 '왕따학생'의 처참한 학교생활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 12일 저녁 KBS 제1TV에서 방영된 일요스페셜 '교실 이야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2시간 동안 무려 11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 학생을 폭력적으로 괴롭혔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빠진 교육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 만큼 대책도 간단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분명 안된다. 교육문제이기 전에 인륜의 문제로 여겨질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생자경〉에 "제자는 마땅히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그릇된 행위가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하고, 스승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방불경〉에는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지닌 악업은 온갖 중생의 눈을 뽑아낸 죄보다 더 크다"는 가르침도 있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의 도리를 말한 경전 말씀은 수없이 많다. 또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간, 동료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전체가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미래사회는 '결함사회' 가능성"

빌 조이, 미래분석 잡지 '와이어드'에 기고

첨단기술의 발달은 과연 인류에서 장미빛 미래일까, 아니면 재앙의 그림자일까.

미국 굴지의 소프트웨어업체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 창업자인 빌 조이(Bill Joy)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래분석 잡지 '와이어드(Wired)' 14일자에 기고한 '왜 우리에게 미래는 필요치 않은가(Why the Future Doesn't Need Us)'라는 주제의 글에서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들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이는 이같은 미래세계를 '결함사회(dystopia)'로 명명하고, "기술이 개발될수록 인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어왔지만 만약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이제 그런 우려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이가 우려하는 '21세기의 독약'이 될지도 모르는 분야는 유전공학(genetics), 나노공학(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 등 세 분야. 그는 이 세 가지를 'GNR'로 통칭하고, 이것들에 의해 인간의 개성이 말살되고 급기야는 인류가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현재보다 수백만배 강력해진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조이는 컴퓨터의 발달로 삶의 모든 환경을 컴퓨터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권조차도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전공학의 발달로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지 않은 인간이나 동물은 자연스레 도태되며, 나노공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을 위해 흡혈귀를 창조·이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30년 경에는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스스로 복제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며, 이런 첨단기술들은 자기복제, 돌연변이, 기계적·생물학적 전염병들을 쏟아낼 능력을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확산 등 신기술의 진보는 이를 악용하는 소수에 의해 핵무기보다 더욱 막강하고 그 피해규모도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후보들 "선거법 준수" 서약 '선거법 정말 지켜질까?' 14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종로 동숭동 흥사단 강단에서 이번 16대 총선 서울지역 입후보자들이 서약식을 통해 선거법 준수를 다짐했다. 공언(公言)이 될지, 공언(空言)이 될지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복제돼지도 탄생

장기이식 치료 전기 기대
인간존엄성 논란도 가속화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지 3년반만에 세계 최초의 복제돼지가 탄생했다. 특히 이번 복제돼지 탄생은 동물장기의 인간이식으로 불리는 이종이식(異種移植) 기술 개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PPL 세러퓨틱스는 14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히고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적 어려움은 모두 극복했으며, 4년내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올 1월 현재 각각 6만8천여명과 5만명에 이르며, 이번 복제돼지 탄생으로 장기이식 치료에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돼지장기는 그동안 간 심장 신장 등 인간 장기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고 인체 이식 후 거부반응이 가장 적다는 점 때문에 만성적인 장기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돼지는 체세포핵 이식 등 체의 난자 조작과정에서 손상되기 쉽고 20개 이상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 동시에 자궁에 이식하지 않으면 수태가 안되는 등 양이나 소 등에 비해 더욱 어려운 기술이 필요해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국저시력인연대 '실명예방 재활교육'

질병·사고·유전(약시) 등의 원인으로 손상된 시력이 회복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 사실.

전국저시력인연대(회장 미영순)가 실시하고 있는 '실명예방과 대처를 위한 저시력인 재활교육'은 저시력인들의 재활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저시력인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교육은 눈의 보호와 관리, 컴퓨터 등 직업재활훈련,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 또 저시력인들을 위한 생활재활, 영어회화, 번역 등의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593-3396

시론

유권자만이 희망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으로 선거혁명에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역감정 자극, 천문학적 돈의 살포, 흑색선전과 비방, 색깔론 등 낡은 정치의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정치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정당의 지구당행사에서 식권이 마구 뿌려지는가 하면 학생을 동원하기도 하고, 출마자에게는 표를 몰아줄테니 돈을 내라는 지역단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빠짐없이 바르게 찍자

일부 지성인들의 "이번에도 선거혁명은 김칫국을 마신것에 불과했다"는 자조도 이즘되면 무리가 아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의 행태에는 아량을 베풀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총선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결코 절망해서도 안된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한다면 낡고 썩은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투표 행위란 그저 한 표를 던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한 표를 찍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 번째,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집을 떠나 있거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부재자 투표이다.

둘째, 바르게 찍어야 한다. 지연·혈연·학연·종교를 따져서 찍으면 안 된다. 선심공약, 실현불가능한 공약에 속아서도 안 된다. 돈을 마구 뿌리는 후보도 찍으면 안 된다. 후보자가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증거로 갖다주어야 한다. 철저한 공영제가 아니므로 선거에는 어차피 돈이 들지만 돈으로 표를 팔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금권선거는 금권정치를 불러온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조달 과정에서 검은 돈도 받고, 이권에도 개입한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셋째, 불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부정을 묵인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와 의무의 포기이다. 선거부정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 경우 물증이 있거나 그 정황이 정확하면 더욱 좋다.

넷째,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각 정당은 앞다투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지역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다섯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표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누가 더 나은가를 관단·선택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물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한다.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은 후보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 가운데 하나이다. 후보 검증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바른 투표를 하려고 해도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문제 정치인'들을 가려내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역감정 벗어나야

여섯째,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된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정후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좋다. 이 때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을 거부해야 한다. 돈 덜 드는 선거를 위해 활용하는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와의 은밀한 거래로 오히려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지역감정만 잘 극복하면 유권자의 손에 의한 선거혁명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낡은 정치에 대한 절망과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2000년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유권자들이여 깐깐해집시다.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흐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양해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응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괴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邊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상 욱 지음
값 25,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작!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권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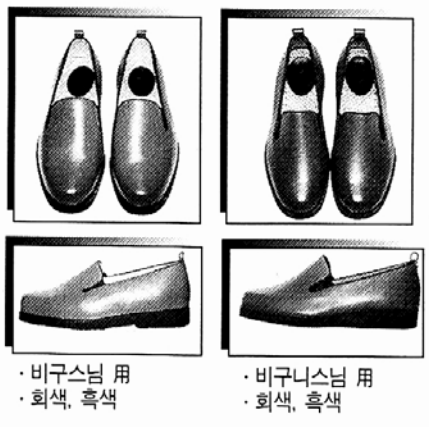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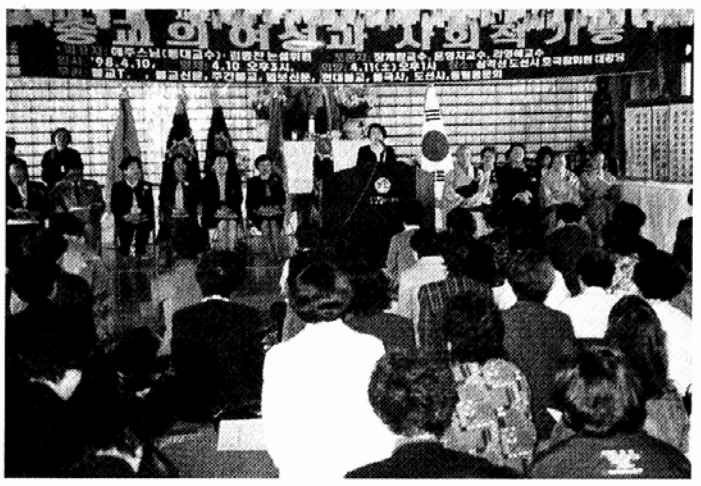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行대표 박동진 합장

불교 여성단체

'자비의 손길' 이웃에 골고루

◇불교계 여성 단체들은 연수교육, 세미나, 봉사활동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성불교연합회 환경세미나 · 다양한 강좌 준비

불교여성개발원 불자의식 조사 · 보호시설 추진

대한불교부인회 무연고자 천도재 · 양로원 불사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새봄을 맞아 여성 불교 지도자 양성과 봉사활동, 성폭력 상담 등에 역점을 두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등 교계 여성단체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올해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세미나와 연수 교육을 통한 여성지도자 양성과 양로원 · 군법당 자원봉사 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10월 창립을 앞둔 불교여성개발원은 각 분과별로 세미나와 인터넷 홍보,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여성불교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단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사업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성불교의 현실"이라며 "여성불자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불교계에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기복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등 사회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여성불자들이 조직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체계적인 회원 교육을 통한 조직력 강화 △종단차원에서의 남녀 평등관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계의 주된 의견이다. 불교 주요 여성단체들의 올해 사업 계획을 살펴 본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다도강좌, 경전공부 강좌, 사찰순례, 양로원 봉사 등을 연중 펼친다. 4월 21 · 22일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또 생활한복 발표회와 전통혼례 세미나를 5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한다. 특히 6월에는 전국 10개지부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11월10일에는 '우리의 터를 지키자'를 주제로 환경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불교여성개발원=10월 창립을 앞두고 '한글대장경속에서 여성 관련 자료 찾기' 연구활동과 '불교여성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을 4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한다. 또 8월에는 전국 1천만 불자를 대상으로 '한국여성 불자 의식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계사와 길상사에, 아이를 데리고 온 참배객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을 5월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구화산, 인도 네팔 등 동남아 불교국가의 학교 및 사찰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영등포구치소와 청송교도소 등을 찾아가 염주 나눠주기 운동도 꾸준히 전개한다. 올해는 특히 군불교진흥회와 공동으로 군법당의 수계법회 활성화 운동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다.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월례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연말에는 파주에서 무연고로 숨진 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천도재도 준비하고 있다. 또 예년과는 달리 경기지역에 독거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불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불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자)=매주 월 · 목 · 토요일에 실시하는 장애아동 돌보기 외에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디오 및 관련 교육을 각 불교 유치원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생활정보

해외 스포츠스타 사이트 개설

인터넷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이트. 김미현, 박세리, 박찬호, 조진호, 이상훈, 박지은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선수들의 경기 실적과 동향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AP통신, 골프헤럴드 등과 협약해 기사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운영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도 담겨 있다. 박찬호 박세리 조진호 등의 불자 스포츠 선수 사진도 게재.
(http://www.iccnews.com)

세금도 인터넷으로 납부

조세 시민들이 관공서와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부에서부터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4월부터 강남구에 시범 운영된다. 또 특별징수 주민세와 사업소세에 대해 인터넷 납부제도를 우선 실시한 뒤 모든 지방세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내야 할 세액을 열람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뒤 홈뱅킹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부과과정상의 착오로 시민이 세금을 더 냈다면 인터넷을 통해 찾아갈 수도 있다.

여고 동창생 찾아주기 행사

여성 대우자동차는 15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750여개 영업소에서 '여고 동창생 찾아 주기 행사'를 펼친다. 대상은 70~85년 사이 여고를 졸업한 중년여성이다.

영업소를 방문해 찾고 싶은 동창생의 이름을 대면 영업소는 대우 데이터베이스(DB)와 연결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소의 전화 번호를 확인해 준다. 또 참여도가 높은 여고 동창회 10곳을 선정, 해당 모교에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매그너스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위 세 곳에는 '매그너스' 한 대씩을 증정한다.

유실물센터 18개월 지나면 기증

정보 딴 생각에 잠겨 지하철에서 내린 뒤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두고 내려 머리를 쥐어박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문이나 서류봉투, 휴대폰, 우산, 양복 등 지하철 유실물 센터는 그야말로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유실물센터에 일단 들어온 물건은 1년 6개월동안 보관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기증돼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진다. (www.lost114.co.kr)

◇수도권 지하철분실물 센터

호선	역이름	전화번호
1 · 2	시청역	(02)753-2408
3 · 4	충무로역	(02)2271-1170
5 · 8	왕십리역	(02)2298-6766
6 · 7	태릉입구	(02)949-6767
국철	구로역	(02)869-0089

건강백과

봄철 건강관리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 들어 오히려 몸이 무겁고 정신 집중이 잘 안된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고혈압, 심장병, 호흡기질환 등 만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봄철에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의들은 생체리듬의 급격한 변화가 주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최현림교수가 최근 소개한 '봄철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춘곤증 탈출

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가벼운 운동 △식생활 개선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 등이 요구된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직장내에서도 2~3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등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준다. 점심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철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해 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3~5배 증가하므로 비타민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조깅·스트레칭으로 춘곤증 탈피

심장병등 만성병 주치의 찾도록

■스트레스 분산

봄철은 직장인들에게 인사 이동과 가족들의 이사 등으로 환경의 변화가 많은 계절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때론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해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며 가능한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질환 극성

먼지, 풀잎이나 꽃가루 등이 바람에 날려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항히스타민제 등 보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봄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을 앓는 사람들은 이같은 신체부담으로 병이 깊어지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뚜렷한 이유없이 피곤을 느끼면 주치의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청소년 자원봉사 새방향 찾는다

대전청소년센터 30일 세미나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30일 평송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자원봉사는 봉사학습'이라는 주제로 '개소 4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봉사학습적 관점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을 연구하고 재조명해 봄으로써 청소년 봉사의 인식 개선과 함께 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부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박강수 배재대총장), '봉사학습의 의미와 방법'(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략'(이강현 블런티어 21소장) 등이 발표된다. 또 김영준(대전교육청 장학관), 남궁단(중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용만(사회복지사), 이문현(신탄중앙중학교 연구부장) 등이 주제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명수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청소년들의 봉사 활동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042)488-0732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서불청 연꽃 노래잔치 내달 16일 동대서 예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4월 30일 오후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인 '제12회 연꽃 노래잔치'를 개최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연꽃 노래…'는 봉축위원장상을 비롯해 단체상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어린이 찬불가를 취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대한불교 소년 · 소녀 합창단의 입단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예선은 4월16일 오후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0-9108

청소년단신

대불련 아카데미 강좌

대학생불교연합회는 9일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조계사내 강의실에서 '제7기 KBUF 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불교의 본질 △근본 불교 △인도 불교의 이해 △대승 불교의 사상 △한국불교의 이해와 역사 △불교와 현대 사회 등에 대해 강의한다. (02)732-0239

디지털상담실 창단식

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이 25일 오후3시 본원 법당에서 '제1기 학생회 창단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 상영과 학생회원들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된 친교 프로그램 '마음나누기' 등이 진행된다. 현재 30여명의 청주 지역 중고생들로 구성된 제1기 학생회는 4월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전국 사찰 답사, 불음 포교 등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0431)212-5711

대불어 경남교사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8 · 19일 양일간 마산 정법사에서 경남지구 교사 연수회를 실시했다. 새싹불자를 이끌 참된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연간 어린이 법회 운영 및 신학기 준비'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진철스님(표충사 주지)의 법문에 이어 법회 활용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목동수련관 동아리 창립제

목동청소년 수련관은 25일 오후 5시30분 수련관 극장내 유스텍에서 '동아리 창립제'를 연다. 수련관 내 동아리 회원들의 소속감 강화를 위해 꾸며지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풍물패 공연으로 막을 연다. 랩댄스와 보컬 밴드 연수 등도 마련될 계획. (02)2646-6815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뭣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뭣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권 5,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펴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권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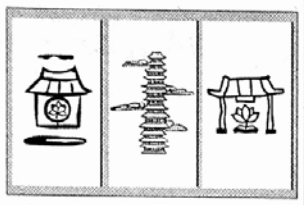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경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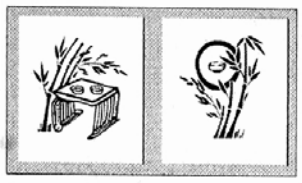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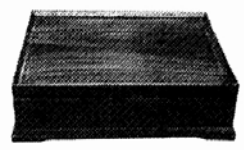
팔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와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31×26cm
재질- 청동
가격:₩250,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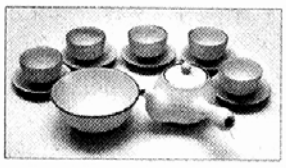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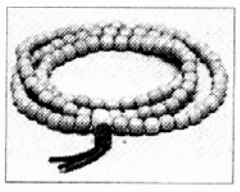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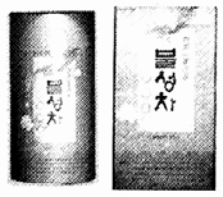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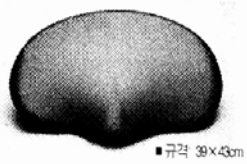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쉐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일 반 ₩27,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 109-025009
- 의장등록 432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4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통+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반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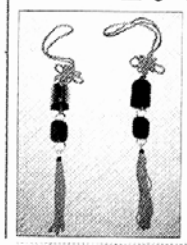
가격:
₩50,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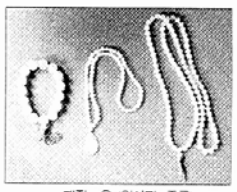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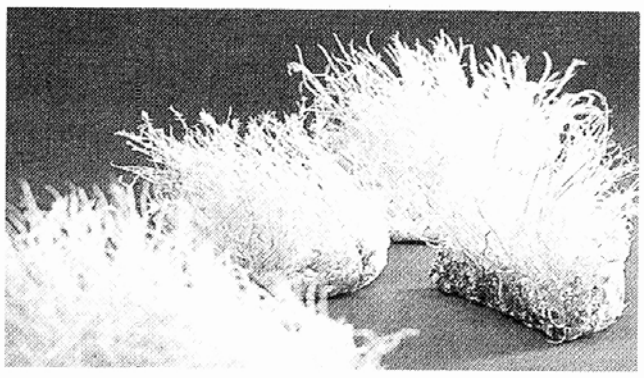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동충하초

■동충하초란 무엇인가?

동충하초는 겨울에 벌레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이 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써 동충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에 직접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기생성 약용버섯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불로장생비약으로 결핵,황달, 강장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되어 왔다.
주로 병후의 신체조절, 보양등에 사용되는 한방 약제로 취급되어 왔으며 300년에 한번씩 핀다는 우담화에 비교될 정도로 길조의 상징으로 귀중하게 여긴 신비의 버섯입니다.

■탕으로 드시실 때

동충하초 15g과 전복 40g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동충하초 술

1. 동충하초 50g에 소주 1.5l 비율로 담근다. (과실주 담금용 소주)
2. 한달정도 지난 다음과 마신다.
3. 술을 하루 한번 작은 술잔에 한잔씩 그대로 마시거나 물로 약간 희석해서 마신다.
4. 동충하초 약술에 독특한 버섯 냄새나 단백한 냄새가 나는데, 마시다 보면 차츰 익숙해진다.

■동충하초 복용방법

1. 하루 복용량은 250cc이다.
2. 아침기상과 동시에 80cc를 공복에 복용한다.
3. 점심과 저녁 중간시간쯤인 공복시에 80cc를 복용한다.
4. 저녁 취침전에 80cc를 복용한다.

■동충하초 끓이는 방법

동충하초는 끓이기 전에 깨끗한 면보자기로 동충하초 50g을 잘 싼다.

1. 초탕
- 50g(한봉)을 4.5리터의 찬물에 넣고 가스렌지의 중간 불로 2리터가량 될 까지 끓인다.
- 다 끓인 동충하초액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다.
2. 재탕
- 초탕을 끓였던 동충하초에 또 다시 4.5리터의 찬물을 넣고 가르센지의 중간불로 2리터가 될 때까지 끓인후 초탕에서 받아논 동충하초액과 혼합한다.
3. 마지막
1과 2로 만든 동충하초액을 혼합해서 또 다시 3리터가 될 때까지 가스렌지의 중불로 끓인 후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10일동안 복용한다. 음용시 동충하초의 독특한 냄새가 거북하신분은 1과 2를 혼합해서 3리터~2.5리터 될 때까지 끓인 후 복용량을 100cc ~ 130cc 정도 복용한다.
또는 1번초탕에 동충하초 50g에 대추 1컵 영지 10g 감초 5g 을 첨가해서 끓인 후 복용한다.

■동충하초 보관방법

다습한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발생하여 버리게 되므로 건조한 곳에 저장 하십시요..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2cm
(얼지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날개 CD



가격:
₩9,5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6분

■ 가격:
각 ₩25,000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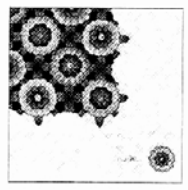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택일 ₩5,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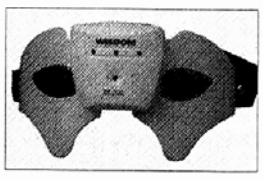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톤)
※사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면 착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청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 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에 인사장 입니다.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깅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참회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12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용서의 날' 미사에서 십자군 원정, 마녀사냥, 종교재판, 유태인탄압, 신대륙 발견시 원주민 학살 등 지난 2천년간 저지른 가톨릭의 과오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참회했다. 이를두고 세계의 여론은 늦은감이 있지만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반기고 있다. 이번 교황의 과오인정은 역사적 오류와 범죄를 반성하고 고백하는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시작된 대헌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간 충돌가능성이 높아져 3차 세계대전의 경우 종교전쟁이 될 것이라는 '문명충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교황청의 반성은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종교는 모름지기 성찰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를 밝혀주고 선도하는 기능을 해야한다. 이번 가톨릭의 참회를 계기로 우리 불자들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무수한 잘못을 진실로 참회해 보자. 참회와 관련된 부처님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번뇌 쉬고 화해로 가는 길

▨만일 능히 법답게 참회하면 있는 바의 번뇌를 다 제거함이 마치 겁화(劫火)가 세간을 무너뜨리고 수미산과 대해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참회는 능히 번뇌의 섶을 태우고, 사선(四禪)의 낙을 얻고, 마니보주를 비추고, 상락의 궁(常樂宮)에 들어가고, 3계의 욕을 뛰어나고, 보리의 꽃을 피우고, 부처의 대원경(大圓鏡)을 얻어서 보소에 이른다. 〈심지관경〉

▨본래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받나니, 악을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고치면 강철로 구슬을 뚫는 것 같다. 〈법구경〉

▨과실로 비악(非惡)을 범할지라도 능히 뉘우치면 선이 되어서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나니, 참괴가 있는 사람은 선법이 있고 참괴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유교경〉

▨괴로움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거든 부디 나쁜 일 행하지 말고, 나쁜 일 생각하면 곧 후회하라. 〈출요경〉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술을 무척 좋아하는 노공(老公)이 있었다. 아난이 가서 권유하여 부처님 처소에 오기를 원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 날 술에 대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무에 부딪쳐 넘어져 많은 상처를 입고 곧 후회하였다. 부처님께서 노공에게 물으셨다. "오백 차에 가득 실린 섶을 태워버리고자 한다면 몇 차의 불을 쓰면 되는가?" "많은 불은 필요치 않습니다. 팥알만한 불로 잠깐 사이에 태워버립니다." "공은 그 옷을 입은 지 얼마나 되는가?" "1년 됩니다." "그 옷을 씻어서 때를 지우는 데는 몇 해나 걸리겠는가?" "물 한 말이면 잠깐 동안에 깨끗이 씻습니다." "공의 쌓은 죄도 오백 차의 섶과 같고 또한 1년 된 옷 때와 같다." 이 말을 들은 공은 곧 깨달아 오계를 받아 가지고 뜻이 환하게 열리었다. 〈잡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배고픔에 쫓기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서는 곧 주둥이를 닦는다. 다른 새들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서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증일아함경〉

▨비록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계율을 따르는 일이 되나니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리라. 〈증일아함경〉

▨만약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 일이다. 숨기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질 것이며, 만약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죄가 소멸될 것이다. 〈열반경〉

▨제가 저지른 불선(不善)에 창피한 마음을 지니며, 모든 부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 참괴를 갖추어 육근을 지킨다면,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이 빛나게 갈아지리라. 〈해의보살소문경〉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은 엷어져 악의 근본은 사라지느니라. 자신이 지은 악업을 벗어나게 할 사람은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며 권력이나 재물도 아니니라. 〈증일아함경〉

신행 캘린더

3월22일 (수)

■원우회 무비스님 초청 '금강경 강좌' 법회=원우회는 오후 6시30분 불교회관 1층에서 무비스님을 초청, 금강경 강좌 법회를 마련한다. 02)732-4923

■청광화백 달마도 특별전=신어산 은하사 3천3백관 범종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청광 화백 달마전'이 부산 국제신문 전시관에서 열린다. 0556)674-6625

3월23일 (목)

■강화 선원사 4천일 기도 입제식=강화 선원사는 오전 10시30분 선원사 복원을 위한 '4천일 지장기도 입제식'을 봉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정택목사를 초청한다. 032)934-8484

3월24일 (금)

■강정구교수 '북한 역사와 사회…' 강좌=좋은 벗들에서는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북한 역사와 사회의 이해'를 주제로 통일 강좌를 마련한다. 02)587-8996

■광주 밀교교리 대법회=광주 영광심인당은 오후 2시 심인당 법당에서 '밀교교리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혜정 대정사가 설법한다. 062)263-5272

■중앙무용문화硏 무용 대공연=(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은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승무' '대궐' '부채춤'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무용 대공연'을 개최한다. 02)866-8880

3월25일 (토)

■동불회 15기 강화선원사지 정수사 순례=동국대 동불회 15기는 26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강화 정수사와 선원사지 사찰 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저녁 7시 조계사 앞. 032)937-3611

■터사랑 대흥사·백련사 답사=터사랑답사회는 26일까지 무박 2일간 동백꽃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한 백련사를 찾아 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흥사와 다산초당, 무위사 등을 둘러 본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선생님이 안내한다. 참가비는 5만원. 출발은 저녁 8시 안국역 앞. 02)725-1284

■여래지답사회 도갑사 순례=여래지답사회는 깍아지른 듯 장엄한 월출산과 도갑사를 26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순례한다. 이어 천왕사와 구정봉에서는 마애석불도 구경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5천원. 출발은 25일 밤10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고즈넉한 주말 오후 새싹 불자들이 마련하는 음성 공양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한주간 쌓인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며 울려 퍼지는 법음의 메아리속에 잔잔한 법열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제=안양 한마음선원은 오후 7시 안양문예회관에서 결식아동돕기 '어린이 합창제'를 마련한다. 0343)470-3100

■진각스카우트 지도자 모임=진각스카우트단은 2001기 기본 훈련생과 진각 스카우트 대장들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02)913-0751

■중리복지관 도예교실=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 지역내 아동을 대상으로 광리도예원에서 도예교실을 연다. 0551)231-8017

3월26일 (일)

■조계사 관음회 군부대 방문법회=조계사 관음회는 파주지역으로 군부대 방문 법회를 떠난다. 포교국장 본오스님이 법문한다. 02)732-2115

■정토 불교통신대학 입학식=정토불교대학은 오후 1시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정토불교통신대학' 입학식을 거행한다. 02)687-8994

■백용성 유훈후원회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는 오전 10시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백용성조사 입멸 제60주기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461)741-3734

■강남포교원 철야정진 법회=강남포교원은 저녁 8시부터 대웅전에서 1080배 철야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수선당에서는 철야 참선 정진법회도 함께 열린다. 02)539-2631

3월28일 (화)

■노사나혼성합창단정기연주회=(사)불교음악협회 산하의 노사나 혼성합창단이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02)751-9997

법회안내

법왕사 백고좌 법회



정휴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은 23일 오전 11시30분 대구 법왕사 대웅전에서 '경율론 삼장 백고좌법회'에 초청돼 '법화경 제1 서품'을 주제로 법문한다. 053)766-3747

'종교와 복지' 법문



보각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은 30일 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종교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36-4848

3월 다보법회 설법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은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25일 염불정진법회



의은 불광산사 주지스님은 25일 오후 2시 불광산사 대웅전에서 '염불정진법회'를 맞아 법문한다. 02)2276-0993

게시판

알림

▲미취학 아동 도서 체험실시=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송파구 내 어린이 집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한다. 장소는 삼전복지관 내 주민도서실. 02)421-6077

▲요리사 출장파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백일, 회갑, 약혼 등 집안의 대소사를 위한 전문 요리사를 출장 파견한다. 이용료는 15명 기준 출장비 8만원(재료비는 최하 15만원). 02)2282-1100

▲무료 결혼식=두송복지관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무료축복결혼식을 마련. 가정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마감은 5월 27일까지. 051)265-9417

▲물리치료실 운영=낙동복지관은 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전문의 진단 후 물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아동 상담 및 교육도 실시한다. 051)271-0560

모집

▲불교원전 연구과정=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은 일반 연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65-9602

▲보육사=혜명보육원은 고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보육사 1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숙식 가능한자. 02)802-0358

▲후원물품=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다용도 선반, 의료기구, 서랍장, 전자용품 등의 생활용품 후원을 기다린다. 02)365-3677

▲자원 봉사자=개금복지관은 정신지체 장애아동 프로그램 봉사자를 모집한다. 정신지체 1·2급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교육, 야외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051)893-5034

▲재활용품=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의류, 신발, 가구, 가전제품 등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중고 생활 용품을 모으고 있다. 판매 된 수익금은 결식아동 및 불우 노인들의 무료 급식에 이용된다. 02)852-0525

강좌

▲직업훈련=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실 강좌를 마련했다. 한식·양식 조리 기능사, 컴퓨터 자격증, 종이접기, 꽃방 경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0342)716-4215

▲불교 수화=조계사 장애인 포교 원심회는 4월3일부터 3개월동안 불교 수화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월·목요일 저녁7시. 수강료는 4만원. 02)720-4528

▲중급 참선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중급 참선교실을 개설한다. 개강은 23일이며 매주 목요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접수인원은 40명 선착순 마감. 051)466-4080

▲장애인 취미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서예·한지공예교실을 개설한다. 화·목요일 주2회, 12월까지 1년과정이며 회비는 연 1만원. 0443)652-0900

▲무료 시민대학 강좌=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6월28일까지 3개월간 '제11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2000년 봄학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는 수지침, 원왕생, 불교호스피스, 수화, 환경교육 등 6개 과목이 마련된다. 02)723-6258

▲포교사 양성반=경남 합안대암사는 국내외 포교사를 양성하는 '불교 법보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0552)582-5056

▲참선·화두 참구법=수선회는 4월11일부터 1개월동안 '참선반 제50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참선목적과 자세, 선종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참구법 등. 02)732-5960

이전

▲부산고려불교예술원은 18일 부산시 진구 연지동 미하야리야부대 정문 앞 건물 3층 매장으로 이전했다. 051)807-6842

화촉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찬미씨는 26일 낮 12시40분 서산시 예원예식장에서 최현호씨를 신랑으로 화촉을 밝힌다. 02)739-1830

부음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대정사의 모친 권병달여사가 17일 낮 12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발인 20일 오전 6시, 삼성의료원 (02)913-0751~4

알고싶은 불교상식 100가지
100문 100답
정승석 교수의 명쾌한 풀이!
100문 100답!
개정판

불교를 쉽고 바르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불교의 기초가 되는 이 100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자신있게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교입문서!
언제 어디서나 얘기하고 싶은 불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불교!
100문 100답에서 찾아드립니다.

정승석 교수의 글은 잔잔하고 자상합니다.
정승석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계시며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고려대장경 해제》
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교양대학 및 사찰의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

값 9,500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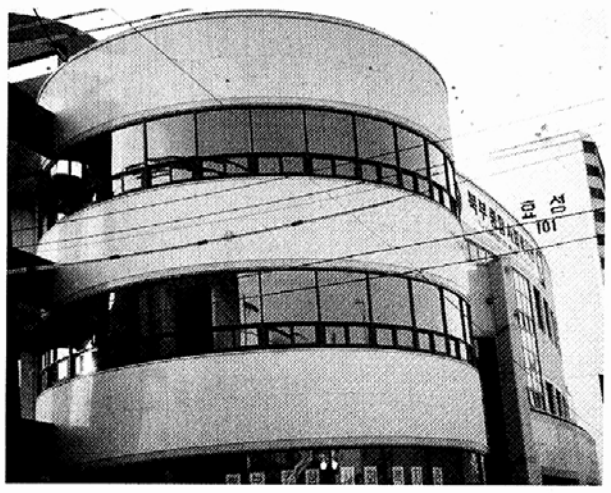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청주불자 설립 '선재원' 市 복지관 수탁

◇청주지역 불자들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창립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은 4월중순 개관하는 북부 복지관 전경.



자비회 2백명 십시일반 보시 결실

공주에 노인복지관·요양원도 추진

충북지역 불자들이 십시일반 참여로 사회복지법인 선재원을 설립한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노인복지관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원스님을 지도법사로 98년 창립한 자비회(회장 강지수)가 1년만인 99년 6월 사회복지법인 선재원(이사장 도원, 공림사주지)을 설립하고 최근 충북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수탁한 것.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현재 내부 시설공사가 진행중인 460평 규모의 북부복지관은 4월중순 개관한다.

선재원은 또 최근 충남 공주시 유구면에 12,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선재원의 이같은 왕성한 사회복지활동 참여는 유력사찰이나 불자 재력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여타 법인과 달리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

자비회 2백여명의 회원이 매월 착실하게 납부하는 1~5만원의 후원회비를 든든한 재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열성적인 관심과 참여로 자비회는 2년만에 청주지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직을 갖췄다. 부정기적으로 1~5천원을 후원하는 일반회원도 200여명에 이르는등 짧은 기간동안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비회는 무의탁노인 생활비 보조, 소년·소녀가장 보조, 생보자를 위한 컴퓨터, 음악, 미술등 사설교육 무료지원, 무료급식, 원주 소쩍새마을 후원사업 등을 펼쳐왔다. 특히 어느 곳이나 달려가 음식을 수령하여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자비의 음식나누기 푸드뱅크사업은 청주지역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출발한 만큼 선재원은 북부복지관의 운영도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즉 지원사업보다는 당당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중점사업으로 펼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컴퓨터, 카운셀링교육과 꽃꽂이, 가죽공예등의 강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청소년 모니터교육, 여성문화강좌를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인 무료급식 및 1주일에 한번씩 치과, 관절시술을 펴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학습교실, 미술치료 상담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장 도원스님은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획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복지관에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 참선과 마음다스리는 글, 불교인성교육 등을 간접적으로 실시하여 불교적인 가치도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세계최초 황동열반상 봉안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는 26일 오전11시 세계 최초의 황동와불 열반상을 봉안한다. 만불사 황동와불은 황동 7500kg과 아연 500kg으로 조성됐으며 불두길이 2m40cm를 포함 총길이가 13m이며 높이는 4m에 달한다. 이날 법회에는 구해스님 범패단의 영가천도대재 및 열반상 족상 친견식도 거행된다. (053)756-0101

"세상 보는 지혜 禪에 있다"

국제신문 불교대강좌 개설

4개월동안 고승·학자 초청



동·서양을 떠나서 선(禪)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일간지 국제신문이 불교 대강좌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신문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불교 전문가 7인과 함께 하는 불교 대강좌'가 바로 그것.

불교 대강좌는 4개월 과정으로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에 열린다.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스님,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을 비롯 위덕대 장익 교수, 김용태 신라대 총장, 홍윤식 前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김무조 경성대 명예교수, 서윤길 동국대 교수 등 7인의 불교 전문가들이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불교입문 및 기초교리, 원시근본불교, 화엄사상의 진수, 21세기 문명과 불교, 선(禪)문화, 금강경 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051)500-5222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제선원 무상사 개원

계룡산에 2층 규모

매일 8시간 참선 700배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무상)가 19일 개원법회를 거행했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향한리 산51-9번지에 문을 연 무상사는 화계사 조실 숭산행원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미국인, 99년 4월 숭산스님으로 전법)과 주지 무상스님의 원력에 의해 선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선원은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과 연등국제불교회관, 강화 연등국제선원 등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252호 23면 기사참조>

4천여평의 대지에 140평 규모의 2층 선원동으로 개원한 무상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대봉스님과 명행스님은 그간 선원동 앞에 지은 가건물에서 기거하며, 매일 8시간 이상 참선에 매진하고 700배의 절을 하는 용맹정진을 하며 불사를 일궈내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무상사는 앞으로 60평 규모의 법당과 40평 규모의 조실당, 170평 규모의 대중요사채를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 불교복지보건대 입학식

상담·침·뜸과정 신설



불교계 최초로 보건 및 복지분야 강좌를 개설해 주목 받고 있는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이 10일 건축사회관 12층 대강당에서 2000학년도 입학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 혜도 스님, 혜총 감로사 주지스님, 구현 한국상담연구원 이사장, 황소성 부산경남포교사단 단장을 비롯 2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불교계에서는 처음 개설된 심리상담사 과정, 불교 침·뜸 과정은 상담이론과 실습, 침·뜸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돼 졸업생들의 포교와 봉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혜도 스님은 "불교가 이제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상담, 침, 뜸, 호스피스 과정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하동 동서화합법회

사부대중 3천여명 참석

'동서화합과 국태민안 민족총화 기원 방생법회'가 3월13일 오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섬진강변에서 경북 보현산 충효사 불자와 전남 목표 보현정사 불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산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양지역 스님, 신도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방생, 봉행사, 큰스님법어, 대회사에 이어 영·호남 합수와 특산물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금오등 불교복지관 5곳

경북 협의체 결성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는 경북지역의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 '경북 불교사회복지관 협의회'를 결성했다.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형), 문경 모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창), 상주 냉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봉), 경산 백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의)은 협의회를 만들어 불교복지관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직원연수, 아동청소년 캠프개최, 캐릭터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2달에 한번씩 실무자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신도교육원 개원

금산사(주지 도영)는 18일 대적광전에서 제17교구 신도교육원 개원식 및 신도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했다. 보제루, 설법전, 향적당 등을 상설교육관으로 문을 연 신도교육원은 상설수련시설로 활용되며 년 4회 신도 의무연수 실시, 불교학술회의 개최, 여름 숲속마을(수련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친다. 150명이 참석한 신도연수회는 19일까지 1박3일간 진행됐다. (0658)548-4441

천왕사 비룡스님 49재

제주 천왕사(주지 기연)는 16일 삼광당 비룡 대종사 49재를 거행했다.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원로의원 성수·지종스님, 총무원장 정대스님,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재가제자 임무박거사의 추모사와 각계의 헌화 및 분향순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영남사찰 성지순례

경기북부종무원(원장 신명)은 종도들의 애종심 고취와 단합을 위하여 24~2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관암사를 비롯한 영남지역 종단사찰 성지순례 겸 각 사암 주지·교임 단합대회를 갖는다.

천태종

구룡사 법당 기공식

포항 구룡사(주지 무원)는 4월 1일 오전 10시 법당 신축 기공식을 갖는다. (0562)276-9151

진각종

국제협력봉사단 모집

진각복지재단은 오는 7월 개관하는 스리랑카 사회복지 직업훈련센터에 파견할 국제협력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단은 현재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현지 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아동보호, 지역사회 구호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전문적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02)942-0144

원융종

국민화합 기원법회



창종 20주년을 기념해 나라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27일 오전 11시 용산 캐피탈 호텔 대연회장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일공스님<사진>, 총무원장 법륜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신도, 교계 지도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2)857-5094

화엄종

총무부장 화응스님 임명





13일자로 인사개편을 단행 총무원 새 총무부장에 화응스님(인천 약사사 주지·사진 위), 사회부장에 대휴스님(약사사 부주지·사진 아래)을 각각 임명했다.

조계선교종

총무원장에 혜암스님

대한불교 조계선교종이 2월 23일자로 창종, 종정 직무대행 겸 총무원장에 혜암스님을 추대하고 그 추대식을 18일 총본산 경남 진해시 구산동 불광정사에서 개최했다. (0525)335-0511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참장
서울 종로구 명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4년 봉축 현수막
14도 칼라

불기2544년 5월 1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연수막도 제작 가능

2544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불기2544년 5월 1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2544 Buddha's Birthday
연등축제
5월 7일 종로거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봉축캐릭터기 색상(문양색,깃색)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매
▲봉축(차량용) 스티커 (50매 1세트)
▲봉축 캐릭터 풍선 (풍선대롱 포함)
▲봉축 타이슬링
▲봉축 버튼 색상(군청, 주황, 백색)
▲봉축 캐릭터 등 색상(적색,분홍,녹색,노랑,청색)
일반 고급 3단귀빈용 ▲봉축 리본 (색상다양)
부처님오신날 이웃과 함께
▲지하철(장엄)연수막 (105cm×200cm)
▲봉축 장엄 번 제등영령용(7가지)
◀봉축 팬시스티카 (12종 1세트)
불교기 (20cm×30cm)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매
▲차량용 옴마니반메움
▲봉축 캐릭터 티셔츠 (그림 종류 다양)
▲암치마 색상(노랑, 빨강, 녹색)
▲차량용 연꽃염주
▲성인모자
▲아동모자 색상(빨강,노랑,청색)
(앞면) (뒷면) ▲부채
(앞) (뒤) ▲봉축 어깨띠 색상(흰색,노랑,오렌지,분홍,연두)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 불교기, 법륜기, 태극기 크기별로 있습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9 FAX.(02)738-8682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82)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41)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6)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47)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5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27)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

의정부 통일안국사

30여평 조립식건물 고아 23명 '보금자리'



◇아이의 상처난 다리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지산스님.

지산스님의 고민 "아이들 커가는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자리잡은 통일안국사. 입구에 통일안국사라는 팻말만 없다면 누구도 절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30여평 조립식 건물을 들락거리며 앞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람들은 이곳을 선재동자원이라 부른다. 절이긴 하지만 한 스님이 고아 23명과 함께 10년을 넘게 살아온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물 아래층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2층에는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으로 꾸며져 있다.

얼마전 구미에서 온 선재(5)가 축구공을 들고 "아빠, 축구놀이하자"며 지산스님에게 보챈다. 지산스님은 아이들에게 아빠로 불린다. 하지만 아빠스님은 대답이 없다. 선재는 눈치를 살피다 슬금슬금 뒷걸음을 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지산스님에게 요즘들어 전보다 고민이 늘었다. 여자 아이들이 방을 따로 달라고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아이 23명중 여자아이는 모두 8명.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들이다. 3년전부터 식당을 개조해 구석방을 만들어 주었지만 주거공간이 협소한데다 화장실 사용문제 등 생활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3살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어느덧 훌쩍 커버린 것이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겪는 이런저런 불편은 또래끼리도 말못할 부끄러운 일이다. 남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침마다 세면시설을 이용할 때 여동생과 누나들 눈치를 봐야하고, 학교에서 또래간에 컴퓨터 얘기라도 나오면 금새 기가 죽는다.

90년 어느날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가 돼버린 돌배기 어린애와 인연으로 한 스님의 토굴이었던 이곳에서 가건물을 세운 지산스님은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야말로 미래의 불국정토를 가꾸는 것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바뀌었다. 자신의 주민등록에 올려놓은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과 다름없이 키우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도 하고, 묘목을 키워 내다팔기도 하면서 버텨왔지만 늘어나는 교육비와 이이들 용돈까지 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한달 생활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된 지는 이미 오래전. 그러니 아이들 방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지금의 식당 건물을 헐고 방 몇 개 늘린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주고 싶지만 여력이 안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먹이고 입힌다고 어디 제대로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어린 것들 더울 때 맘놓고 샤워라도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없는 식당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때늦은 점심을 먹는 영미(가명·초등학교 6년)를 바라보는 지산스님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진다. 식당이래야 낡은 장판에 벽 군데군데가 갈라지고 습기가 차 곰팡이가 핀 10평 규모의 방.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서는 지산스님에게 올 여름은 겨울보다 더 추운 계절이 될지도 모른다. (0351)872-9629. 제일은행 641-20-383234(예금주 선재동자원). 한명우 기자

부석사 무량수전 뒷벽 불탄채 수년째 방치

국보 제18호인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뒷벽 아랫부분이 불에 탄 모습으로 훼손된 채 수년 동안 방치된 사실이 밝혀져 행정당국의 문화재 관리감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최민정(25·충북 청주시)씨의 제보로 밝혀진 무량수전의 훼손 자국은 지름 25cm, 깊이 5cm 크기로 시커멓게 그을린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다.

무량수전의 화재로 그을린 부분은 현재 사찰측이 경고표지판으로 막아 놓았지만, 2년전 촬영한 사진에는 경고표지판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최소한 수년째 그을린 모습으로 계속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 올해 문화재 보수 계획에 무량수전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목조건물이다. 오종욱 기자

대장경 복제품 판매 '물의'

해인사 "경전 위상 손상" 고령군 품질보증서 취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복제·판매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경북 고령군 이산각조각연구소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걸쳐 모 중앙지 2곳에 '대장경판 복제품 판매' 전면광고를 함으로써 불거졌다.

이 광고에서 연구소 측은 고령군수의 품질보증서까지 게재, 1장당 19만8천원에 보급한다며, 구매자에게는 해인사 순례 등의 특혜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해인사 측은 고령군과 연구소를 각각 방문해 "대장경판 상품화는 경전의 위상 손상"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품질보증서를 취소하고 연구소와 복제품 제작회사 측은 지난 10일자로 광고를 냈던 신문에 '사과문'을 실어 일단락 됐다. 오종욱 기자



◇입정에 든 출가체험 참가자들.

조계사 하루출가체험 "스님되기 힘드네요"

조계사(주지 지홍)가 출가·열반절을 맞아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13일부터 19일까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루출가체험' 행사에는 매일 20여명씩의 불자들이 하룻동안 '스님'이 되기 위해 행자복을 입었다.

참석자들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행자복을 입고 108배, 참선, 발우공양을 해보니 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행자복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등의 소감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맨발 국토천리 고행 대행진

'국가의 안녕과 소외된 국민을 위한 맨발 휠체어 국토 10000리길 고행대행진'이 1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입제식을 갖고 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대한불교 불이종(종정 성공스님)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곰두리 봉사대(회장 홍남호)가 협찬해 열리는 이번 국토 대행진에는 지운스님 등 6명의 불이종 스님과 각 도의 장애인 8명이 참가하고 있다. 장애인 가운데에는 '98 아시안게임 휠체어 중장거리부문 3관왕(800m, 1500m, 5000m)인 문정훈(지체 1급, 23)씨도 강원도 대표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씨는 "장애인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맨발국토천리길고행대행진은 4월 9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회향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생명나눔' 창립 6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29일 오후 2시30분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에 기여해 온 현대불교신문사와 신장기증자 무료검사를 실시해 온 서울의과학연구소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가 수여된다. 한명우 기자

도심사찰에 교통유발부담금

건교부, 내년부터

도심지역의 각종 종교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 2천만대 대비 중장기 육상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던 종교시설 및 병원 등 건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평 이상 규모의 사찰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차량 10부제, 해당 종교시설 단체버스 운행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명우 기자

"공천반대 인사 불자라도 안찍겠다" 52%

불교총선연대, 교계지도자 342명 설문

불교지도자들은 대부분 '공천반대인사가 불자라도 찍지 않겠다'(52.1%)거나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43.1%)는 생각를 하고 있으며, '불자라면 무조건 찍겠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불교계의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28%)하거나 반대(29.5%)하는 등 응답자의 57.5%가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적극 지지는 25.1%, 지지는 17.4%.

이같은 결과는 불교총선연대가 지난 2월28일부터 15일까지 조계종 종회의원, 주요사찰 주지, 중앙신도회 대의원, 포교사단 포교팀장 등 342명의 불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

불교지도자들은 불교계의 낙선명단 발표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므로'(41.4%),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19.2%) 등으로 응답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법회시 사회공익적 기준에 입각한 특정후보 지지,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 45.6%, '해서는 안된다' 42.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불교행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접한 적이 '있다'가 48.5%, '없다'가 51.5%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22일 '사찰불사 문제점' 포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22일 오후6시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사찰불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김희욱 재가연대 집행위원이 '종단 건축불사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김영일 조계사 종무실장이 '올바른 사찰불사를 위한 의식의 전환'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옥수복지관 주민 노래잔치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24일 오전 10시 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 2주년 기념 '성동주민 노래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가족사진 전도 개최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282-1100 한명우 기자

보육원 운영금마련 일일찻집

조계사 청년회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혜명보육원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전 9시 사중 찻집인 '생각해보자'에서 일일찻집 행사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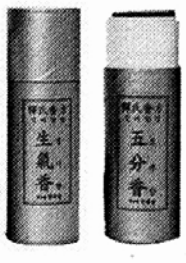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래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악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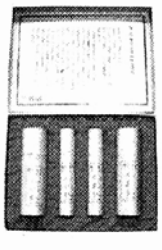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주부신행담 부처님 아니계신 곳 없으니 ㊦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불보살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의 가호하심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음에도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지만 불보살님의 가피로 마음의 문이 열려 부처님께 귀의하게 해준 남편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다. 덕분에 한주도 빠지지 않고 일요법회에 참석하여 덕높으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교의 진리는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명심하여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심하고 있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신경쓰고 고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국 내몸을 망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신경쓰고 걱정하기보다는 불보살님께 의지하여 기도정진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불보살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정진하다 보니 모든 일이 스스로 잘되어감을 느끼고 있다.

얼마전 치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턱에 이상이 있었는지 잇몸의 통증으로 입을 벌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견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는 나에게 남편이 내일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쁘다면 최악의 경우 수술까지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저는 관세음보살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관세음보살님뿐입니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하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쉼없이 외쳤다. 한 호흡에 몇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념으로 부르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께서 하얀천을 내 턱밑에 갖아주셨다. 그 하얀천에는 탑이 그려져 있었고 그 탑 속엔 빨간 글씨가 빽빽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나를 안심시키고는 천을 정성스럽게 잘아주셨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날 나는 또 거짓말같은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통증으로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내 입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병원에 가라던 남편은 내가 꾀병을 했다고 할 정도로 믿지를 않았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감사드리고 더욱 발심하여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불보살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 작은 보시함을 만들어 기도할 때마다 적은 돈이나마 꼬박꼬박 보시함에 담았다. 한달동안 모은 적은 돈이지만 매월 말일에 그 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후원금으로 회향하고 있다. 불보살님께 입은 은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드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내가 받은 가피를 또 한가지 더 적어보고자 한다. 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렇게 착하고 부모 말씀이라면 순종하던 아이였다. 그러던 그 아이가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급내는 엄마인 내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춘기때의 반항이려니 하면서도 변해 가는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꾸중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매도 들어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아들과 마주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흐리멍텅하게 정신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순간 섬뜩했다.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를 보는 듯 낯설었다. 그렇다고 마약같은 것을 복용한 것도 아닐텐데 눈에 초점없음이 이상했다.

나는 놀라서 추궁하던 말을 멈추고 내 방에 들어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의미하는 눈물인지도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내렸다. 그리고 내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장으로 자식을 통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참회의 기도를 열심히 일심으로 했다. 나는 100일을 정해서 아침에 예불문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관음정근 발원 반야심경 순으로 기도가 끝나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번씩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시작한지 60일 정도 되는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말을 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이다. 나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

나는 내 업이 많아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부처님께 내가 지은 업으로 내 자식들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하고 발원하고 열심히 기도정진하고 있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불교학교에 보내고 부처님께 다가가게 했다. 엄마의 소망을 마다하지 않고 불교학교에도 잘 다니던 아들이 순간 나쁜 길로 빠지려함이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아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보다는 모든게 다 내가 지은 업을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열심히 참회의 기도를 했다. 짧은 날이었지만 나에게 참회의 기도를 하게끔 깨우쳐준 아들은 지금은 학업에 열중하며 착하게 생활하고 있다. 모든게 불보살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피를 체험했다. 그 체험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아만심을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전생에 나의 숙제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써 극복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만 찾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나는 불법을 만나고부터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불보살님을 의지하여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로써 이겨내고자 한다.

마음 한 번 바꾸면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한 것을 모르고 항상 너와 나를 분별하여 무명 속에서 생활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새기며 마음 한 번 바꾸니 고통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인욕으로써 참고 견디며 내가 지어놓은 업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중생의 어버이이신 불보살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다행복하기를 바라며 나도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끝〉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일체유심조' 교훈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림 · 이준석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형)

안정성 작업성 내부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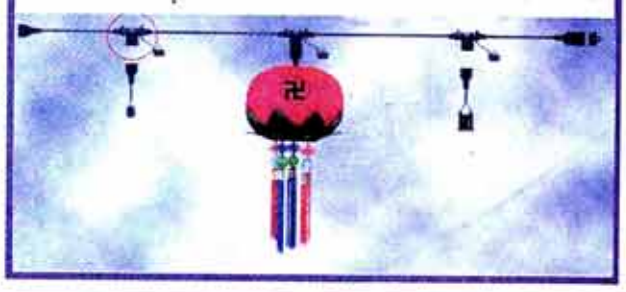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원기업
■ 인터넷: http://www.bulje.co.kr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